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나간 것을 좇아가지 말며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말라.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9월 1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18호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초의 진영, 日이모본… 소치作 아냐"

진영 전문가 김호석 동양화가 15일 초의 학술대회서 주장

현재까지 조선 후기 문인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의 작품으로 알려진 초의 선사(1786~1866)의 원본 진영이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이모본(移模本, 원본을 두고 베껴 그리는 것으로 원본과 똑같이 그리는 모사와는 다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시대 전통 진영 기법을 연구하는 동양화가 김호석 화백은 10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원본으로 알려진 초의 선사 진영은 1925년 전후로 일본인 화가나 일본식 채색화법을 익힌 사람에 의해 새롭게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본 초의 진영은 '백묘 · 무채'

김 화백에 따르면 초의 선사 진영 원본에 대한 기술은 남아 있다. 초의 선사의 다맥(茶脈)을 계승한 응송 스님은 〈동다정통고〉에서 초의 진영에 대해 "소치 허련은 초의 선사의 진영을 그렸다. 초의 진영은 무채(無彩) · 백묘(白描)법으로 그렸으며, 그가 그린 추사의 초상화와 함께 가작(佳作)에 속한다"며 "하지만 이 진영은 일제 압정기에 해남서장이었던 일본인 심석(心石)이 초의의 증법손 김천오에게서 탈취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일본인이 탈취했던 소치의 원본 초의 진영은 채색이 되지 않고 선으로만 표현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에 대해 찬(讚)한 진영의 '화상찬' 역시 오류가 많아 이모본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 화백은 신헌이 저술한 〈위당집〉권13에 담긴 '초의선사화상찬'의 원문과 아모레퍼시픽 박물관 소장 진영의 '초의대선사영찬'을 비교한 결과 진영의 화상찬에서 적지 않은 첨가와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초의 선사의 입적 세납은 80세이지만 진영의 화상찬에서는 84세로 기술돼 있다"면서 "이 같이 원본과 달리 진영의 화상찬에는 글자의 탈락과 오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자리에 배석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은 "진영에는 글을 쓴 사람으로 '유경도인훈 찬'으로 돼 있다"며 "초의의 제자 중 상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낙관을 신헌의 호인 '금당'으로 찍을 이유가 없다. 이것도 이모본이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기물 · 법구 · 복식 모두 '왜색'

김 화백은 "진영에 배치된 기물과 법구, 복식도 동시대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포갑의 경우 문집의 비례가 맞지 않고, 제책 순서도 오류가 있으며, 찻주전자는 조선이 아닌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족자 표구도 일본식으로 제작됐다.

김 화백은 "포갑의 형식에서 앞뒤가 뒤바뀌어 있고, 문집 비례도 맞지 않다. 당대 문인화가였던 소치의 작품이라면 이런 세세함을 놓칠 수 없다"며 "이처럼 원래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전달돼 달리 해석되는 게 이모본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의 선사가 진영에 지니고 있는 법구는 금강저로 주로 밀교 계통에서 사용하는 법구이다. 선사로서 당대 이름을 날렸던 초의 선사가 밀교의 법구를 지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 화백은 "조선시대 진영의 핵심은 '전신사조(傳神寫照)'에 있다"며 "선사인 초의를 표현하는 법구로 금강저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초의 선사의 앉아 있는 좌대와 방석, 복식도 일본풍으로 재해석됐다. 김 화백은 "좌대는 자를 대고 그은 계선 기법이 사용됐다. 이런 좌대는 일본 진영에서 나타난다"면서 "방석도 일본식 문양이 장식된 천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역사 인식 바로잡아야

김 화백의 이런 주장이 있기까지 학계와 대중은 아모레퍼시픽박물관 소장본을 초의 진영의 원본처럼 여겼다. 초의 선사 열반 150주년을 맞아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회에도 해당 진영은 전시 중이다.

김 화백은 "일본식으로 해석된 그림을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화가 소치의 작품으로, 초의 진영의 원본으로 알고 있던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초의 선사의 진영을 추증하며 재현하기 위해서는 일본 방식을 배제하고 조선 방식대로 회복해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아직까지 초의 선사 진영에 대한 연구 논문은 단 한편도 없다"면서 "열반 150주년을 맞아 초의 선사 진영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동국 서예박물관 서예부장은 "김 화백의 연구는 현 진영에 대한 통설을 다양한 근거를 통해 반박하고 이를 공론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역사적 사실 관계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화백의 이 같은 주장은 10월 15일 오후 1시 서울 서예박물관 4층서 열리는 초의 선사 열반 150주년 학술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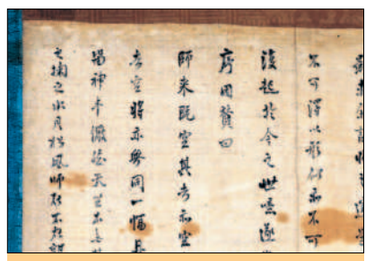
〈移模本〉



아모레퍼시픽 박물관의 초의 선사 진영. 초의 선사를 그린 진영 원본으로 소치 허련이 그린 것이 통설처럼 전해졌다.

화상찬, 원본과 달리 오탈자 많고
80세 입적한 초의를 84세로 적어
진영 기물도 조선시대 물품 아냐
스님 복식·법구, 전통방식 달라
족자도 일본풍… 원본될 수 없어
"제대로 된 초의 진영 연구 全無"

초의선사 진영의 이모본인 결정적 증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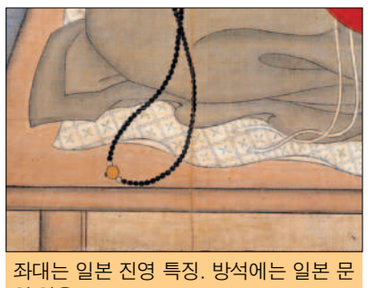
화상찬 오탈자 많고 표구도 일본식.



선사인 초의가 밀교의 법구인 금강저를 지니고 있다.



포갑의 문집 비례 안맞고, 찻주전자는 조선 것이 아니다.



좌대는 일본 진영 특징. 방석에는 일본 문양 있음.

"한중일 평화 우호 불교가 이어가자"

제19차 한중일불교도대회 성료… 공동 평화선언

한중일 불자들이 천년동안 이어온 한중일 동아시아 평화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고 동북아 불교교류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한중일 세 나라 불교도 400여 명은 10월 12일 영보 설두사(雪竇寺) 용화광장에서 제19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열고 공동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설두사는 중국 5대 10절 중 하나로 이 곳에 주석한 설두 선사의 공안선이 한국전통 수행인 간화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은 삼국 불교도들을 대표해 "현시대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자기 나라 이익을 우선하려는 경향에 따라 지역정세에 긴장이 더해지고 있다"며 "보살행의 마음가짐과 자아성찰의 수행이 우리 세계 평화의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자비실천으로 사회와 국가를 넘어 불교인들이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내안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삼국이 비바람을 거치면서 함께 학술연구와 인재양성, 정보교환, 수행체험 등 깊은 교류를 하며 동북아 불교발전과 세계불교 번영을 이끌고 있다. 불법전승의 옛일을 거울 삼아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유대를 더욱 다져가자"고 다짐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따오츠(道慈) 스님은 "불교도들은 자신의 안락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고를 떠날 수 있도록 불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중일대회에서는 2017년 중국불교협회서 40명을 한국에 파견해 수행체험을 교류하고, 일본 또한 중국불교협회와 수행체험을 교류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또 20차 대회를 위한 예비회의를 2017년 3월 22~24일 제주도에서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자 중 불교 공용한자 808자를 확정하자는 제안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원철 스님은 불교적 문화유전자를 통한 동북아공동체 복원의 일환으로 3국 민간학자들이 새롭게 선정한 공용한자 808자 확산을 제안했다.

한중일 불자 400명 운집해
내년 한국서 수행교류 합의
포럼서 불교한자 제정 제안
3국 다도 최초 시연해 눈길

한편, 13일에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최초로 3국 다도교류회가 열렸다. 천동선사에서 열린 삼국 다도 교류회에서는 나라별로 30분씩 전통다도를 선보였다. 중국 측에서는 '차와 음악이 산속의 통합이 되어 울다'를 주제로 전통악기 연주 소리에 맞춰 다도 시연을 펼쳐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한국공연에서도 전국비구니차인회 소속 스님들과 조계사예차회 회원들이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불교 전통다례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2일 설두사에서 진행된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사진 맨 앞)을 비롯한 삼국 대표 스님들이 헌향하고 있다.



조계종 2·3급 승가고시
2급 51명, 3급 286명 합격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중앙승가대에서 '2016년도 2급 및 3급 승가고시'를 시행했다.

올해 2급 고시에는 총 52명이 응시해 51명(비구 37명 · 비구니 14명)이 합격했으며, 3급 고시에는 총 288명이 응시해 286명(비구 125명 · 비구니 161명)이 합격했다.

2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로는 지산 스님(금산사)이 비구 수석, 원영 스님(해인사)이 비구니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한 3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수석에 신경 스님(통도사), 비구니 수석에 선효 스님(수덕사)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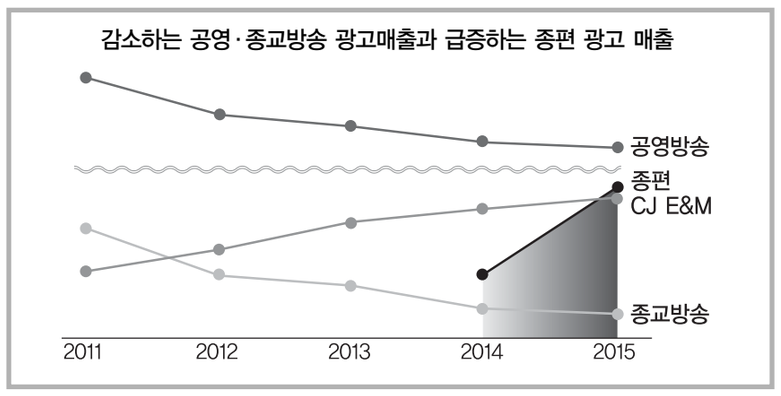
2급 고시 수석의 영예를 차지한 지산 스님은 "앞으로 수행자로서 삶을 잘 살라는 경책으로 알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원영 스님은 "도반과 함께 모여 논강을 하며 그룹 스터디를 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 승가고시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3급 수석인 신경 스님은 "늦게 지원해 준비할 기간이 많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선효 스님은 "그간 수행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행자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논술을 풀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종교방송' 위기, 규제 철폐 · 공공성 확대 과제

국감서 매출급감 지적
전문가 대책 마련 촉구

불교방송 5년간 매출 30% 감소
지상파에 광고매출 묶인 구조
광고시장 정체 속 종편 급성장
경쟁 매몰, 공공성 훼손 우려



미디어 환경의 급변 속에서 BBS불교방송 등 종교방송의 광고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시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종교방송의 광고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상파 광고 매출이 종합편성채널의 급성장에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영미디어렙의 역할 강화와 종교방송의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BS불교방송 등 종교방송과 중소지역 방송사들이 급감하는 광고매출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용진 의원이 본지에 제공한 '주요 방송사업자 방송광고매출액 현황'(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종교방송은 2012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전체 628억여원 규모의 매출이 2012년 563억, 2013년 547억, 2014년 505억, 2015년 507억여원으로 23.9%의 큰폭으로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특히 BBS불교방송은 지난 5년간 30.2%, 평화방송은 34.8%나 광고매출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광고매출 급감은 예견된 상황이다. 현재 BBS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과 중소방송사들은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라 미디어렙 체제로 광고 판매를 진행한다. KBS와 MBC, EBS와 BBS불교방송 등 종교방송, YTN라디오 등을 묶은 공영미디어렙 코바코(KOBACO)와 SBS 및 지역 민방 9개사, OBS경인TV 등을 묶은 민영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대표적이며, TV조선이 구성한 TV조선미디어렙, 채널A가 구성한 미디어렙A, JTBC가 구성한 JTBC미디어컴, MBN이 구성한 MBN미디어렙 등도 2014년 구성됐다.

자료에 따르면 종편들의 영향력 확대로 기존 미디어렙의 광고매출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공영미디어렙 코바코의 광고매출 총액은 2011년 1조 6362억원에서 2012년 1조 4998억, 2013년 1조 4112억, 2014년 1조 2921억, 2015년 1조 3143억 여원으로 감소했다. 미디어크리에이트 민영미디어렙도 2011년 7246억원에서 2012년 6824억원, 2013년 6523억원, 2014년 6019억원, 2015년 5918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종편 미디어렙 4개사의 총 매출액은 2014년 1588억여원에서 3223억여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케이블 채널인 CJ E&M 등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송미현 CBS경영기획부 부장은 "지상파 전체에서 기업 광고가 감소하는 것이 1차 원인이다. 공영미디어렙 코바코서 종교방송 분을 배정하는데 코바코 자체의 예산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부장은 "자체적으로는 코바코가 매출의 70%를 담당했다면 이제는 40% 수준에 불과하다. 후원 등으로 매출을 충원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도 옛날 같지 않다. 라디오 인터넷, TV 등 각 부서에서 생존을 위해 각자 치열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공성 확보 뒷전, 상업 경쟁 심화

이런 상황 속에 BBS불교방송과 CBS를 비롯한 종교방송계는 종편과 달리 지상파에만 있는 차별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사와 지역방송사 등 35개 지역 · 라디오 방송사는 올해 9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상파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중간광고 금지 등으로 최소한의 제작비 조달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차별적 규제가 원인이며, 그 사이 유료방송만 크게 성장했다"고 비판했다.

유재호 BBS불교방송 기획경영부장은 "전통적인 지상파가 위축된 상황에서 종편이 지상파를 뛰어 넘는 수준"이라며 "종편 등이 지상파 규제의 틈을 비집고 성장하고 있다. 그 영향은 중소방송사에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사들은 최근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성과 다양성 훼손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관규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적자를 이제 막 벗어난 종편과 상업방송 등에서 향후 기금 출연 등 공공성 기여와 함께 공영미디어렙의 역할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종교방송의 경우에는 본연의 포교프로그램과 함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상파와 종편 등의 차등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종교가 공공영역이라는 애매모호한 논리 외에 종교방송계에서도 공공성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또 종교계 후원 등 광고매출 의존 탈피가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韓日여성불자들 국내서 우호 다진다
한일 불교여성대회, 20~22일

한국과 일본 여성불자들이 국내에 모여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불교성지를 참배하며 신심을 다진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는 오는 10월 20~22일 공주 마곡사서 '제11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일불교문화교류회의와 함께 각국 여성불자들의 우호를 다지는 자리로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린다.

대회는 첫날 충남 온양관광호텔서 환영만찬 · 문화공연이 열리며, 21일 마곡사서 본행사가 봉행된다. 이날 여래사 주지 동휘 스님의 만다라그리기 체험과 천안 각원사서 성지순례가 진행된다. 북촌한옥마을 일대 관광도 예정돼 있다. 대회에는 양국 임원을 비롯해 여성부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다. **윤호섭 기자**

"역사문화 훼손하는 현대차 GBC건립 반대"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대책위, 13일 규탄 가두행진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대책위(공동위원장 원명 · 지현, 이하 봉은사대책위)가 문화재 환경평가 등을 생략하고 초고속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GBC건립을 반대하는 가두행진을 진행한데 이어 인허가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봉은사 대책위는 10월 13일 서울 봉은사에서 '한전부지 졸속행정 재벌 특혜개발 저지 및 봉은사 역사문화수행환경 보존 기원법회'를 열었다. 법회 후 봉은사 신도들은 '1조 7000억에 봉은사 천년의 혼 팔아먹은 박원순 서울시장 즉각 퇴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GBC졸속 인허가와 건립을 반대하는 행진을 벌였다.

대책위는 특히 문화재 영향평가 미실시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 등을 진행하며, 105층 GBC건설 추진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의 'GBC 건립 후 봉은사 일조량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3시간 가량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절기에는 4시간 넘게 일조량이 줄어 봉은사 소재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노덕현 기자**

"파리에서 한국불교를 알린다"
조계종, 10월 25~29일 '한불수교 130년 대표단' 프랑스 파견

사찰 음식 리셉션 개최
설정 스님 파리대 특강도

한불수교 130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불교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월 25~29일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한국불교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50여 명으로 이뤄진 조계종 대표단은 5박 6일의 기간 동안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과 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25일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과의 면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며, 26일 주프랑스 한국대사 초청 오찬, '사찰음식 만찬 및 리셉션'을 소화한다. '사찰음식 만찬 및 리셉션'에서는 프랑스 정계, 문화 · 예술계와 조리 분야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7일에는 파리7대학에서의 도서 기증식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의 특강 등이 진행된다. 특히 2011년 이뤄진 프랑스 방문에서 한국불교에 대해 알고 싶지만 관련된 책을 찾기 어렵다는 프랑스 문화계의 의견을 받아 제작한 〈Korean Buddhism〉이 전달된다.

아울러 공식 일정이 진행되는 25~29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불교의 전통미와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경, 연꽃만들기, 전통문양 채색 등 체험 프로그램과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 '7개 전통 산사의 사진전'도 함께 열린다. 27일~28일에는 프랑스 대표 조리교육기관인 '르 꼬르동 블루'와 '에꼴 페랑디'의 교수 및 학생들을 초청,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특강도 진행된다.

조계종 관계자는 "한국 전통문화를 유럽의 중심지 파리에 소개하는 자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 이전법회

종 정 진성 법운
이 사 장 호월 화엄
총무원장 원경 삼주

귀의삼보 하옵니다.

초대법왕이신 일붕 존자님의 고귀한 유지를 받들어 온 (사)대한불교선교종이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중추종단으로 거듭나고자 새로운 큰 걸음을 내 딛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총무원을 천안에서 대전으로 새롭게 이전하여 이전법회를 봉행합니다. 제방 대덕 큰스님들과 종도여러분의 수희 동참을 기원드립니다.

◆장 소 : 대전 중구 대흥로 88 다솜타워 7층
◆일 시 : 2016년 10월 27일 오전 11시
◆전 화 : 042)242-1080 / 팩스 042)252-1081
◆후 원 :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일붕신문사

가을, '불교학의 숲'을 거닐다

가을맞이 불교학술대회 세미나·강연

이제 완연한 가을이다. 이 시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불교학계와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학술 세미나와 강연 등이다. 이들 중에는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들도 관심있게 찾아볼 세미나와 강연들이 적지 않다.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행사들은 다양한 주제로 이뤄져 불교의 식견을 넓히는 데 부족함이 없다. **신성민 기자**

불교의 깊은 이해 원한다면

불교 전문 학회와 기관들이 여는 세미나는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최신 학술 사안을 파악하기 좋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11월 12일 동국대 초허당세미나실에서 '불교 전래에서 교학의 연속성과 불연속성_인도불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배경아 동국대 경주캠퍼스 강사의 '원시불교로부터 부파불교까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의 '원시부파불교로부터 대승불교까지' 남수영 동국대 박사의 '원시·부파·대승불교로부터 중관사상까지'가 발표된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보각)은 오는 10월 22일 오전 9시 45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수계의식의 형성과 변천'을 주제로 제9회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자랑 동국대 HK연구교수가 '중국불교에 있어서 수계의식의 변천'을, 박광연 동국대 HK연구교수가 '한국불교에 있어서 수계의식의 변천', 오카모토 잇페이(岡本 一平) 일본 게이오대 교수가 '보살계 수계의식의 특징-범망계를 중심으로'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불교의 참회사상을 학술적으로 고찰한다. 10월 28일 오후2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호운미술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이성운 불교문예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의 '중국불교 참회법의 발생과 그 의의', 한지연 금강대 학술연구교수가 '〈법화삼매참의〉의 특징적 내용과 그 의의',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화엄종 참회법의 사상적 특징과 그 의의' 등이 발표된다.

수계·참회 등 세미나 주제 다양
현대 고승·의승군, 학술적 조명
해외 석학 참여 등 강연도 풍성

불교미술·종교학에 관심있다면

불교미술과 종교학 관련 학술대회들도 마련된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는 오는 10월 22일 서울 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근대불교미술의 재해석'을 주제로 제2회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1930년대 불교조각의 새로운 경향'을, 홍은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부장이 '남양주 흥국사 근대 범종 연구'를,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동국사 소장 일제강점기자료 고찰'을, 홍대한 숙명여대 연구교수가 '한국석탑 건립에 있어 전통과 현대의 계서성 연구' 등이 발표된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종교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최준규)는 11월 4일 오후1시 선문대 국제회의실에서 '양극화현상 극복을 위한 종교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계에서는 김세곤, 정귀연 동국대 교수가, 개신교에서는 오성주 감리신학대 교수가, 천주교에서는 김경이 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여해 각 종교 교육으로 본 양극화 극복 방안을 고찰한다.

고승을 통해 불교사 보기

고승들의 행적을 통해 불교사를 톺아볼 수 있는 세미나도 열린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과 봉암문도회는 10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용성 스님의 전법제자인 봉암 변월주 스님의 사상과 유업을 재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규탁 연세대 교수가 '봉암의 불교사상'을, 팔리문헌연구소 마성 스님이 '봉암의 태고종사론에 대해'를,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가 '용성과 봉암의 금강경 번역에 대한 비교 고찰' 등을 발표한다.

영규대사와 800의승군을 조명하는 세미나도 열린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와 윤상현 국회의원은 11월 4일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영규대사와 800 의승'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가 '임진왜란 시기 의승의 활동과 역할'을,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영규대사와 의승의 청주성·금산전투'를,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임진왜란 참전 의승의 공적과 추념사업' 등을 발표한다.

불교의 대중적 이해를

불교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돕기 위한 강연들도 눈길을 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깨달음의 방편으로서 불교문화와 예술읽기'를 주제로 5기 눈부처 학교를 오는 12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에 진행 중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찰문화 읽기, 불교 미학 이론, 불교 문학 감상과 이해 등이 구성된다.

또한, **재단법인 리앤원**은 '인도 고대불교를 찾아서'를 주제로 오는 10월 21~22일 워크숍 및 국제학술강연회를 연다.

이번 워크숍과 강연회에는 인도 불교사와 종교사, 불교 문헌학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하리 팔크 독일 베를린대학 교수와 리처드 살로몬 미국 워싱턴대학 교수가 참가한다.



국화향기 가득한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 국화꽃이 활짝 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0월 11일 제6회 국화향기 나눔전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의상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허영만 화백의 '날아라 슈퍼보드'를 형상화한 국화조형물, 잉어국화, 국화가 만발한 조계산 등이 선보였다. 조계사를 찾은 젊은 연인들이 슈퍼보드를 형상화한 국화조형물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교, 남북교류 앞장서 통일의식 깨워야"

법타 스님, 10월 12일 민추본 30차 월례강좌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 9주년을 맞아, 경색된 남북관계 속 불교의 역할을 전망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이하 민추본)는 10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남북불교교류의 경과와 전망'을 주제로 30차 월례강좌를 개최했다. 신계사 복원 9주년 기념 토론회로 마련된 이날 민추본 본부장 법타 스님은 직접 기조강연자로 나서 '북한 불교의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법타 스님〈사진〉은 "불교는 남북한의 최대 종교이자, 북에서도 타 종교에 비해 애국종교로 여겨진다. 특히 남북 문화재 중 불교문화재는 80%이상으로, 동질성 유지와 회복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그러므로 불교는 민족교류에 앞장서야 하며,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지향점으로 '개인의 성찰과 변화'를 제시했다.

민 국장은 "많은 참여불교인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개인의 성찰과 변화로부터 출발한다. 문제의 이해당사자들 참여시킴으로써 문제의 진단과 해결방한을 함께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선 정웅기 위원도 같은 의견을 내며 종단의 역할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이 제시한 종단의 과제는 △불교 내 사회교육 대폭 강화 △사회활동 인재 양성 △사찰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사회적 역할 모델 개발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 도출, 탁마의 장 구성 등이다.

정 위원은 "종단은 불교사회활동진흥법을 만들고 불교시민단체 공모사업을 진행했지만, 열악한 불교시민사회를 지원하고 배려하는데 여전히 인색한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아름 기자**

금강산 신계사 복원 9주년을 맞아, 경색된 남북관계 속 불교의 역할을 전망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이하 민추본)는 10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남북불교교류의 경과와 전망'을 주제로 30차 월례강좌를 개최했다. 신계사 복원 9주년 기념 토론회로 마련된 이날 민추본 본부장 법타 스님은 직접 기조강연자로 나서 '북한 불교의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법타 스님〈사진〉은 "불교는 남북한의 최대 종교이자, 북에서도 타 종교에 비해 애국종교로 여겨진다. 특히 남북 문화재 중 불교문화재는 80%이상으로, 동질성 유지와 회복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그러므로 불교는 민족교류에 앞장서야 하며,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일깨워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은 신계사 복원 의미를 조명함으로써 남북불교교류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당국 간 대립과는 별개로 불교계는 신계사 도감의 상주적 파견과 제안 노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선 신계사 최승전의 보수가 시급하다. 서까래가 무너져 재보수 작업을 추진할 것을 양 정부에 거듭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냉전적 국면에서도 문화재 보수와 지원을 제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신계사는 분단국서 남북공조를 통해 공동으로 복원한 절이며, '화합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참여불교, 주체 확보·종단 역할 必要"

불교사회연구소, 10월 12일 '한국 참여불교 과제' 세미나



왼쪽부터 유승무, 정웅기, 민정희

한국사회서 불교의 역할과 그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른바 '참여불교'다. 전문가들은 불교의 사회참여는 마땅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0월 12일 서울 견지동 불교문화사업단 3층 보현실서 '지속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한국 참여불교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론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민정희 기후생태네트워크 사무국장, 정웅기 화쟁위원회 위원이 나섰다.

'참여불교'는 베트남의 틱 낫한 스님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각 사회마다 내재한 현상에 대해 불교가 참여한단 개념이다. 이날 자리는 세계 참여불교의 현황을 통해 한국사회 참여불교 현황과 과제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열렸다.

먼저 유승무 교수는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불교의 노력은 극히 자연스러운 시대적, 문명적 응전"이라며 "그러나 한국불교는 왜 참여불교운동이 좀처럼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국불교는 세계적 문제나 인류 공동선과 관련된 영역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운동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민정희 사무국장은 해외 참여불교인들이 나타내는 공통적 특징으로 △고통을 회피·부정하지 않는 점 △비폭력 태도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 점 △개인의 성찰에 기반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점 등을 소개하며, 한국불교

제13회 불교활동가 지원 접수

설법연구원 10월 31일까지 추천받아

설법연구원(원장 동출)은 10월 31일까지 제13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대상자를 추천 접수 받는다. 설법연구원은 불교 포교 현장에서 일하는 재가불자와 불교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불교활동가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추천대상은 현재 불교활동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재가불자나 불교시민단체로 활동내역서와 계획서를 첨부해 설법연구원에 이메일(sulpub@ nate.com)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지원 행사는 설법연구원 원장 동출스님을 비롯해 민불동지회 서동석 회장, 근본불교연구회 이규옥 회장, 불교정의평화연대 최연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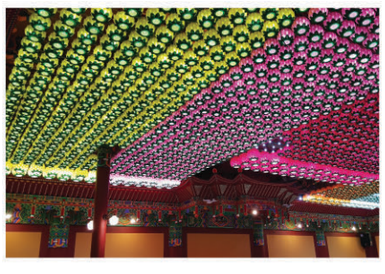
한편, 불교활동가 지원은 동출 스님 주도로 2001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37명이 각각 200여만원 씩의 지원을 받았다. (02)720-0824 **노덕현 기자**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일 주 문



하와이서 보살계 법회

현성 도선사 조실 스님은 10월 9일 하와이 무량사 초청으로 보살계 대법회를 열고, 무량사양로원 불사에 500만원을 지원했다.



총동림동문회 추계워크숍

혜정 동국대 총동림동문회장 스님은 9월 27~29일 제주도서 추계워크숍을 열고, 군종수계법회, 어르신잔치 등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불교활동가 추천 접수

동출 설법연구원장 스님은 10월 31일까지 '제13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대상자' 추천을 접수받는다.



한불연 구도회 창립 기념법회

박정하 한국불교연구원 대구 구도회장은 10월 8일 대구 동촌 퀸벤 호텔서 '창립 4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대학생 포교, 정기 후원금 절실"

부전선원, 10월 7일 대학생불교발전토론회

대학생 불자 양성과 후원 방법을 모색하고, 후원자를 모집하는 자리가 열렸다.

부산 부전선원(선원장 안국)은 10월 7일 부산대학교 성학관서 '새로운 비상 붓다, 그 답을 알고 있다'란 주제로 대학생불교발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부전선원이 천일기도를 회향하며 부산대불교 바라밀회 30주년을 축하하고 향후 발전 모색을 위해 열려 의미가 깊다.

토론회엔 심산 스님(흥법사 주지), 탄현 스님(녹야원 주지), 이진오 부산대 교수, 정태권 부산교수불자연합회장, 현익채 前 금정중 교장, 조진규 부산대 학생 등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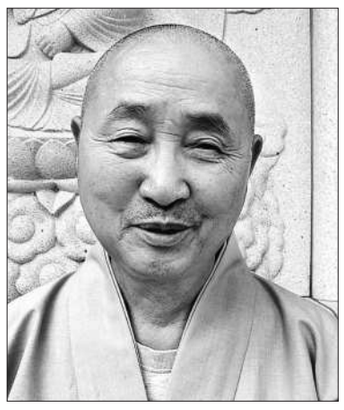
탄현 스님은 "대학생들 스스로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승가와 재가가 합심해 정기 후원금을 조성하고, 지지하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권 교수는 "2015년 7월부터 부산교수불자연합회는 '대학생불자활성화 108후원회'를 조직하고 부산 불자 대학생을 지원한다"며 "대학생 포교를 위해선 불교적 가르침을 상황과 시대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고 교육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하성미 기자

"호박처럼 둥근 佛法 축제로 전하죠"

제 9회 호박축제 여는 양주 지장사 회주 대운 스님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개막 호박죽, 절편 등 20여 가지 선뵈 오후 1시 부터는 산사음악회도

"호박축제에 대한 발상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서 들어온 식품들이 우리밥상을 점령했는데 그러한 식품들엔 농약 성분이 많죠. 그래서 신도들과 함께 국산 웰빙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사찰 뒤켠 6백여평 정도에 호박을 심었습니다. 이 유기농 호박으로 갖가지 웰빙 음식을 개발해서 선보이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또한 호박이 부처님 법처럼 둥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 착안했죠. 처음엔 축제라기 보단 신도들에게 갖가지 호박음식 한끼 대접하잔 의미였습니다."

제 9회 호박나눔 축제를 펼치는 양주 지장사 회주 대운 스님〈사진〉은 기획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축제는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산사음악회와 함께 진행된다. 그렇다면 어떤 호박 음식들이 밥상에 오를까?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준비하는 것은 호박죽입니다. 그리고 호박 국수와 호박 부침개, 호박 절편, 호박 설기, 호박 차, 호박 줄기요리 등 많습니다. 직접 눈으로 와서 보시면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우리 사찰은 도량에 원탁을 놓고 그곳에 다 같이 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방식으로 축제를 진행합니다. 예년에 비춰볼 때 대략 2000명 정도가 방문하죠. 또한 지장사가 위치한 양주시 덕계동에는 노인정이 30곳 넘는데 그 곳에 계신 어르신들도 모두 초청해 음식을 대접합니다. 한마디로 호박 나눔 축제인 셈이죠."

9년째를 맞이 하면서 10월이 되면 행사 날짜를 문의하는 전화가 많다고 스님은 말한다. 대운 스님은 "신도 보살님들의 음식 솜씨가 좋아서 한 번 먹고 간 분들이 호박축제를 기다리죠. 축제 목적엔 웰빙과 더불어 포교의 원력도 있어요. 불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축제 현장이 도량인 만큼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만들어 주는 셈이죠."

지장사는 단순히 축제만 즐기지 않는다. 행사서 나온 수익금을 모두 나눔의 행사 취지에 맞게 소외된 지역 이웃들에게 회향한다. 이번에도 양주지역 중고등학생 30명에게 장학금을 준다. 점심 공양 후 오후 1시부터는 윤시내, 조항조, 김현숙 등 인기 가수들을 초청한 산사음악회도 함께 연다.

마지막으로 대운 스님은 "지역사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특화된 포교방법이 필요 합니다. 우리 절은 산 중에 위치하기 때문에 정기적 교육을 하기에는 교통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죠. 이렇게 특화된 문화 포교를 자주 하다보니 이제는 양주시는 물론 인근의 의정부와 동두천서도 많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산중 불교가 나아갈 길이라 생각됩니다."
(031)863-1888 김주일 기자

"지역사회 '풀뿌리 포교' 전개"

양천불교연합회 초대회장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



7개 사찰 1개 기관 연합 이웃종교 교세 극복하며 힐링·나눔 프로그램 진행

그동안 타종교에 비해 불교세가 약했던 서울 서남권에서 사찰과 불자들의 교류를 책임지는 연합회가 구성됐다. 양천불교연합회가 창립된 것이다.

연합회는 조계종 서남권 거점포교사찰인 서울 국제선센터를 비롯해 법안정사, 향림사, 비로선원, 금강사, 반야사, 보은사, 목동청소년수련관 등 8곳이 참여했다. 향후 종단 구분 없이 다양한 사찰의 가입을 받아 규모를 키워갈 예정이다.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사진〉은 취임식을 앞두고 "항상 낮은 자세로 지역 스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후일 더 큰 역할을 하실 스님들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 주춧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소임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탄웅 스님은 "그동안 양천구내 사찰과 스님들은 각자 취한 여건에 맞게 열심히 수행과 전법활동에 매진해 오고 계셨다"며 "이제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했고, 스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게 됐다"고 연합회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양천불교연합회의 출범 모토는 '함께하는 지역사회 구현'이다. 탄웅 스님은 "양천불교연합회는 사찰 간 네트워크를 위해 가장 먼저 양천지역 사찰 주지스님들의 회의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득격차 등이 있는 양천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천구가 교회만 480여 곳이나 있는 대표적인 개신교 강세 지역인 점을 감안할 때 양천불교연합회의 출범은 불교세 확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이웃종교의 교세가 강하지만 포용하고, 수용하고, 소통하는 불교의 장점을 살린다면 지역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스트레스로 힘겨워 하는 대중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과 힐링프로그램을 결합해 심신을 어루만지는 '풀뿌리 포교'를 진행하면 지역사회서 더욱 튼튼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탄웅 스님은 "지역사회에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포교활동도 함께 진행해 나가겠지만, 소외되고 어려움이 있는 구석구석을 살피고 이들이 함께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 활동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복리 증진 활동의 공동 진행 과정 속에서 화합하며 결속력도 강화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나누고 소통하고 서로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가야 합니다. 갈등구조가 봉합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불교가 중심이 되고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풍사, 신축이전 낙성법회

신풍 스님, "대중불교 홍포에 앞장"



김해 신풍사(주지 신풍)는 10월 8일 '신축 이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과 통도사 향과, 도천 스님을 비롯 성월, 현광, 만오 스님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신풍 스님은 "도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중불교 홍포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45회 일붕문도의 날 대법회

10월 10일, 하남 청운사 대웅전서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회장 만주)는 10월 10일 하남 청운사 대웅전서 '제45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문도중앙회 명예총재 청운 스님, 총재 송산 스님, 이사장 겸 회장 만주 스님, 고문 용담 스님 등 150여명이 동참했다.

청운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회장단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도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은 공론의 장을 열어놓고, 원융회통의 아름다운 전통을 새롭게 펼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법사대 철야 염불정진

10월 8~9일, 동문학인 정진 수복대회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10월 8~9일 포천 천주사서 동문학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야 염불정진 수복대회'를 봉행했다. 사회 속에서 불교발전과 포교활성화가 이뤄지도록 각자의 본분을 돌아보는 이번 행사서 동문들은 학장 지일 스님의 지도 아래 염불을 외며 신심을 다졌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10월 31일까지 수시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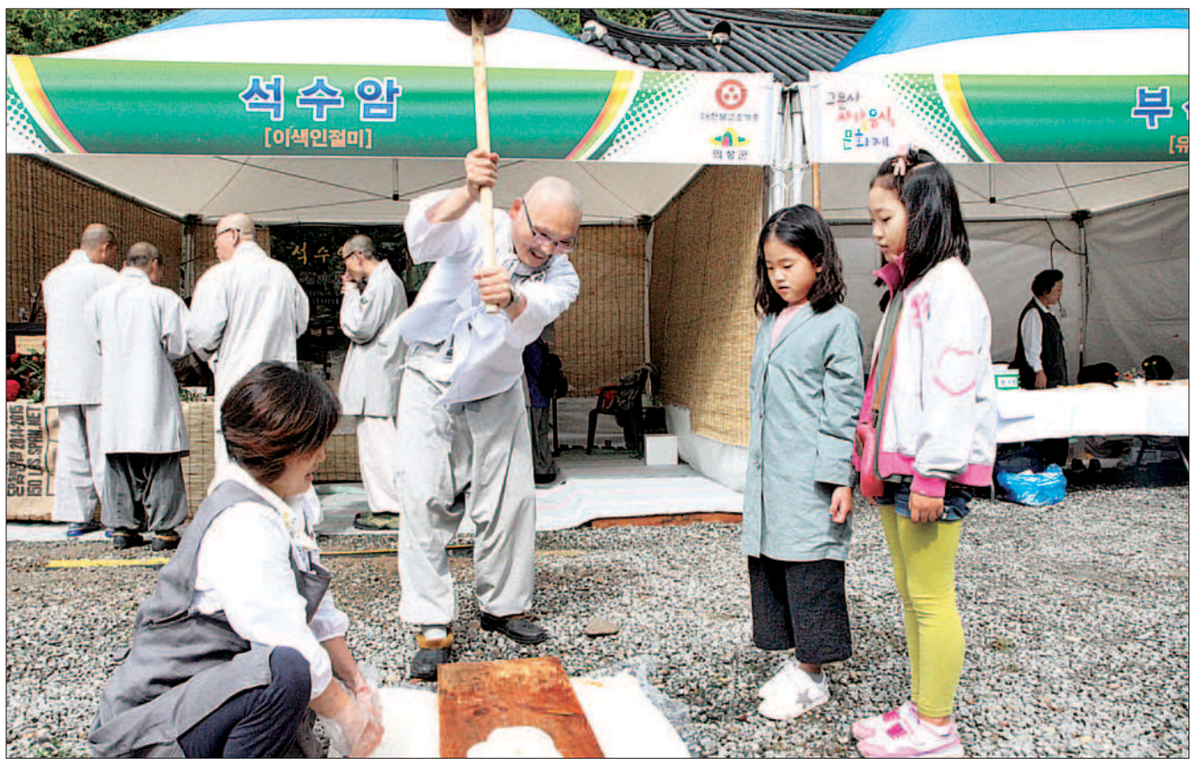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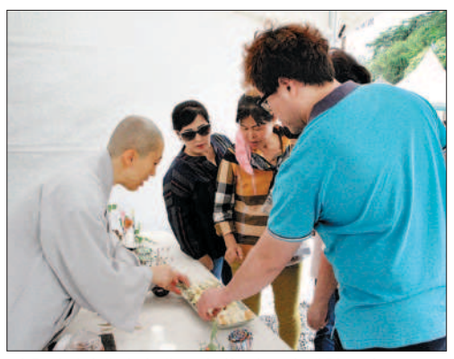




석수암의 이색인절미 만들기 체험부스 앞에서 혜장 스님이 떡 매치기 시범을 어린이들에게 펼쳐보이고 있다.


축서사 신도들이 '장아찌 김밥'을 말고 있다.


선체험관 2층에 마련된 사찰음식 전시전.


관음사의 '캐릭터 샌드위치' 만들기 체험 모습.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이 내빈들과 주먹밥을 시식하고 있다.

"가장 친화적인 자연음식"… 눈도 입도 힐링

단풍이 물드는 가을, 가을향을 머금은 사찰음식축제가 경북 의성 고운사서 열렸다. 풍성한 제철음식과 고운사만의 발효음식 그리고 사찰의 조리비법과 대중들의 열정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 현장으로 초대한다.

〈편집자 주〉

"으랏차차, 아이구 힘드네"

"말랑말랑한 인절미 떡을 만들려면 반죽이 쫄깃해 지도록 힘껏 내리 치셔야 돼요."

석수암 혜장 스님이 웃으며 이색 인절미 체험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한마디 거든다.

"떡만들기가 이렇게 힘든줄 몰랐네요.(웃음)" 안동서 가족들과 함께 축제에 참가한 이성선씨(51)는 나무 망치로 떡판을 내려치는게 마음대로 안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조계종 제 16교구 고운사가 10월 8일 경내에서 제 2회 사찰음식 축제를 열었다.

오전 10시 개막식서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어제 하루종일 비가 내려 행사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 했는데 그쳐서 다행"이라며 "사찰음식은 이 세상 먹거리 중 가장 친환경적인 자연음식이다. 아울러 2천년 동안 전해내려오는 우리 한국불교의 자랑"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호성 스님은 "그동안 고운사는 소박한 자연 밥상인 사찰음식의 메뉴는 물론 발효음식의 개발을 위해 2011년부터 사찰음식 연구소를 만들어 꾸준히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내년 9월쯤 완공되는 최치원 문화관이 완공되면 군과 협의해 세계적인 국제음식축제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개막 행사에는 고운사 부주지 등운 스님과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김종태 · 김현권 지역 국회의원, 최유철 의성군의회 의장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 이어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경내인 연지암 행사장에 마련된 제 16교구 및 말사 사찰음식 13개 부스에서 음식 시식 및 체험 행사가 열렸다.

20여 말사서 참여한 이번 사찰음식 축제에는 먹거리도 다양했다. 그 중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은 곳은 대곡사의 청국장 국수 코너였다. 청국장을 이용해 잔치국수 형태의 '청국장 국수'를 개발해 선보인 것이다. 1천원 보시금을 내고 시식해 보니 담백하고 깔끔했다. 서울 개포동서 왔다는 김종인 거사(64)는 "청국장을 사용해 처음에는 걸쭉하고 냄새가 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개발했는지 시원하고 맛이 좋다"고 신기해 했다.

10월 8일 고운사 사찰음식 축제 열려
20여개 말사서 13개 음식 부스 설치
'청국장 국수' '장아찌 김밥' 등 인기
내년 최치원 문화관서 음식 축제 예정

바로 옆에 위치한 관음사의 '캐릭터 샌드위치' 부스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인파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 살펴보니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시식하고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게 코너를 만들어 놓았다. 이름을 밝히길 꺼리는 비구니 스님은 "샌드위치 빵 사이에 들어가는 잼들은 직접 과일을 재배하고 수확해 사찰서 담근 것들이라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은편 부스에 있는 축서사의 '장아찌 김밥'도 시식하려고 줄을 지었다. 축서사 여신도들로 보이는 보살들이 하얀 조리복을 단체로 입고 열심히 김밥을 말고 있었다.

대구서 친정엄마와 딸들과 함께온 정여심(43) 보살은 "아이들이 장아찌 같은 건강 발효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김밥 안에 고명으로 넣으니 거부감 없이 맛있다며 잘 먹어서 기쁘다"며 "레시피를 열심히 배워 집에 돌아가서도 만들어 줘야 겠다"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축제를 즐기려는 모습에서는 승속이 따로 없이 한마음 이었다. 말사서 온 비구 스님들 5명이 연미사 부스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녹두전과 비지전을 먹으며 즐거워 했다.

이외에도 서악사는 보리빵을, 본사인 고운사는 청국장 간장 된장 고추장인 발효음식을, 유하사는 '차'를, 석수암은 이색인절미를 선보였다.

오전 11시 30분부터는 공양간서 사찰음식 대중공양 체험 행사를 펼쳤고, 선체험관 2층에서는 '고운 소식, 소찬의 향연'을 주제로 사찰음식 전시 시연 행사를 마련했다. 이어 오후 2시 부터는 자리를 화엄문화 템플관으로 옮겨 '사찰음식의 현황과 산업화 방향'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배흥섭 고려 약용식물학 교수는 '사찰발효 음식의 현황과 산업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서 "최근 발효식품은 살아있는 건강식품으로 인식돼 급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전통발효식품은 발효식품의 50% 수준이고, 전체 식품산업 대비 비중은 2%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배 교수는 "사찰전통 발효식품이 발전하고 대중화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품질 향상과 더불어 포장 개선, 안전성 구축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후 4시부터는 산사음악회도 펼쳐졌다.

의성 고운사=김주일 기자

Interview

"청금장 특허 쾌거, 발효음식 연구 매진"

고운사 사찰음식연구소 소장 도륜 스님(서악사 주지)



"고운사는 2011년부터 조계종 사찰음식 특화사찰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고운사는 예로부터 된장 · 간장 등 전통 장들이 맛있기로 유명했지요. 특화사찰이 되면서 교구차원에서 사찰음식을 일반인에 보급하고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2011년에 고운사 내 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소를 만들었죠." 이번 고운사 사찰음식 축제의 기획을 맡은 고운사 사찰음식연구소 소장 도륜 스님(서악사 주지)은 고운사서 사찰음식 축제를 열게된 계기를 이같이 피력했다. 사찰음식연구소에서는 연구보존법은 물론 재가자들이 현대인에 맞는 조리법 및 소스 개발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연구소 개소 이후부터 이 결과물을 담은 안내 책자도 만들고 해마다 세미나도 진행했다. 지금까지는 사찰 발효음식을 상업화 해 지역민들과 함께 고운사가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도륜 스님은 "연구 개발 후 특허를 딴 제품이 '청국장 가루'와 '뜸북장 가루(100일 동안 숙성한 보리가루)'를 섞은 '청금장'이죠. 이 지역서 재배한 콩을 전통 온돌방서 발효해 유명해진 이곳 장을 상업화 하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또한 돼지감자차, 무차, 우엉차 등도 개발 보급하는데 '소화가 잘된다'며 반응이 뜨겁습니다."라고 자신감에 찬 어조로 말한다. 이어 도륜 스님은 "석박사와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음식 전시회도 매년 개최합니다. 사찰음식 축제는 올해가 2회째인데 앞으로는 재가자와 스님 등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운사는 2013년 완공된 사찰음식체험관서 사찰음식교육,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단기교육 및 1일체험 등을 운영해 인기가 좋다. 마지막으로 도륜 스님은 "현재 고운사 본사 내에 말사가 50개 정도 있습니다. 이 중 13개 말사가 오늘 행사에 참여했죠. 특히 20가지 재료로 비빔밥을 만들었는데 다 소진될 만큼 인기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발효음식 개발을 확대해 지역 농가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고, 지역 말사들이 사찰음식 보급에 앞장서 국민들이 웰빙 음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제3차 깨달음 무료공개강좌

역대 조사분들의 어록이나 논서에
답습되지 않은 또 다른 안목의
특별한 강좌가 펼쳐집니다.....



법화경과 깨달음

▶ 일 시 : 2016년 10월 23일 일요일 오후2시
▶ 장 소 : 깨달음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 문 의 : 1899-9532

깨달음 센터
enlightenment center
NAVER 깨달음센터 검색

비로자나국제선원, 10월 30일 창립 10주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기념법회 및 음악회 열어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은 10월 30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및 건립기원 음악회'를 봉행한다.

이번 음악회는 비로자나국제선원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바탕으로 선원 이전 건립을 기원하는 자리다. 음악회에는 LMB싱어즈 중창단과 연합합창단(우빼까 · 국제포교사 · 불교여성개발원 합창단)이 출연하며, 선무도 시연 등 10주년을 빛낼 다채로운 공연이 열린다.

특히 빌보드 클래식차트 1위, 아이튠즈 클래식차트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임현정 피아니스트가 특별출연한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청정한 불성의 회복과 불교의 세계화'를 창건 이념으로 2006년 개원했다. 영어담마스쿨, 영어담마캠프, 일요 참선법회 등 참선과 영어를 통한 전법으로 외국인 및 어린이 · 청소년들의 불교적 인성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02)6012-1731 **윤호섭 기자**

문화사업단, 中에 韓불교 홍보 박차

관음성지 마케팅 · 국제불교박람회 등 교류 확대

불교문화상품 개발과 템플스테이 확산에 주력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중화권에 한국불교문화를 알리는 데 박차를 가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10월 13~23일 중국 항주 · 상해 · 무석, 대만 등을 방문해 각종 문화원 · 여행사 등과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한국전통 · 불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한 성지순례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주제는 '33관음성지 및 중화권 마케팅'이다.

문화사업단은 이 기간 동안 중국국제차문화협회를 방문하고, 서호문화박람회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하며 여행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전통 · 불교문화와 성지순례의 올바른 루트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여행사와 단체 등에게 팸투어 비용을 지급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해에서는 '상해선연문화발전유한공사'와 MOU를 체결해 양국 관광발전을 취지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선다. 아울러 상해한국문화원, 세종학당, 불광산사에도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 성지순례 등을 알릴 예정이다.

20~24일에는 하문국제컨벤션센터서 열리는 제11회 중국하문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한다. 이 박람회는 일평균 5만 명이 다녀가는 대규모 행사로 총 6000여개의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이곳

13~23일 중국 · 대만 방문
문화원 · 여행사 미팅 갖고
양국 관광발전 방안 논의
쇼핑 탈피한 관광에 중점

에서 문화사업단은 '한국전통 · 불교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주제로 불교문화 관광콘텐츠를 홍보한다.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42수 관세음보살'이 지니고 있는 지물을 활용한 디자인 콘텐츠를 부스에 전시하고, 템플스테이 문화적 가치와 사찰음식 정신을 소개한다. 또한 불교문화상품 전문브랜드 본디나 상품을 통해 한국불교문화유산의 아름다움도 전하고, 인경체험, 설문조사 참가자 기념품 제공 등의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해외마케팅은 문화사업단이 지난 7월 대규모 인사단행과 함께 조직을 개편하면서 마케팅팀을 독립시켜 주체적인 사업전략을 마련한 첫 사례다. 지난 2008년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33관음성지순례'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이번 중화권 마케팅은 현지서 일정 수요가 있다는 소식에 관련 연구조사를 실시해 준비했다.

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쇼핑을 탈피해 한국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광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몇몇 중국단체들은 한국에 오면서 임의로 성지순례 코스를 구상해오기도 했다. 관련 패키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져 상품 개발에 힘 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관광객 대상의 저가 패키지 상품과 쇼핑관광을 탈피하고, 성지순례 사업 발전과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잘 녹여내 한 · 중 관광교류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왕실 인연, 도봉산서 재현" 서울 도봉산자락 마지막 무문관 도량인 천축사(주지 함결)가 10월 9일 '천년의 염원'을 주제로 2016행원산신대재를 봉행했다. 석가탑을 ½크기로 축소 제작한 '석담석가탑'을 선보인 산신대재는 왕실행차 재현을 비롯해 어울림마당, 사진촬영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렸다. **윤호섭 기자**

군장병 · 사관생도, 불교교리대회 '만점'

제8회 나란다축제 수상자 발표

제8회 나란다축제서 군장병과 사관생도 부문 만점 수상자가 배출됐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10월 12일 제8회 나란다축제 수상자를 발표했다.

먼저 군장병 부문서는 6군단 불이사 소속 최인혁 상병과 8군단 호국 충용사 소속 안재근 일병이 만점을 받아 공동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관생도 부문서는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노유진 생도가 만점을 받았다.

군장병 대상 수상자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포상휴가, 장학금 각 100만원이 지원되며 해당 부대에 수상 장병 이름으로 포상금이 전달된다. 사관생도 역시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장학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중 · 고등부문은 대구 능인중학교 3학년 안재민 학생과 동국대 사범대학부속 영석고 2학년 김광석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별상의 경우 문화재지킴이 활동, 환경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등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심사기준에 부합한 청담고 3학년 유현정 학생과 하슬라중 2학년 최윤영 학생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22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다. 아울러 제15회 은정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된다. **윤호섭 기자**

'맨발' 탄자니아 아이들에 헌 신발 선물해요

아름다운동행, 10월 8일 '헌 신발 보내기 캠페인'

흙바닥을 맨발로 걸으며 학교를 다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들이 모였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10월 8일 종로 보신각서 '제3회 108 DAY' 행사를 진행하고, 탄자니아 빈곤 아동들을 위한 '초등학생 헌 신발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9월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개교 당시 현지 아동들의 열악한 환경을 목격,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박찬정 사무국장은 "보리가람 학교를 설립하면서 맨발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1년에 단 하루라도 주변 소외된 이웃을 생각해보자는 '108 DAY' 행사 취지에 맞게 탄자니아 아이들을 위해 신발을 모았다. 다음해 4월 30일까지 모은 신발을 '부처님 오신날'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서 신발을 기부한 곽영기(조계사 법우모임 '풍경우' 총무 · 53) 씨는 "신발 보내기 캠페인을 진작 알았다면 신발을 더 모아 왔을텐데 전달이 늦어 아쉽다. 당장은 가족들이 신지 않는 깨끗한 신발들을 가져왔다"며 "특별한 도움을 주겠단 생각보다 먼저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동참했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10월 8일 종로 보신각서 탄자니아 빈곤 아동들을 위한 '초등학생 헌 신발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선 이웃을 향한 나눔의 마음을 다짐하는 '릴레이 108배'도 열렸다. 릴레이 108배 프로그램선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아름다운동행 지원단, 풍경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조계사 청년회, 가족단,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등 150여 명이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했다.

108배 참가자 장현성(57) 씨는 "조계사 다도반서 활동하며 매달 108배와 보시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108 DAY' 행사장서 절하려 한다. 행사전 '헌 신발 보내기 캠페인'에 대해 듣고 주변 아파트 수거함에 전단지를 붙여 신발을 모았다"며 "나눔과 보시행에 거리와 인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시간 동안 맨발로 걸어 학교를 다닌다는 아이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전했다.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오늘 행사에 참여해 기쁘고 동참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서울지역단뿐만 아니라 전국적 규모로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은 시민들에게 해당 캠페인을 홍보하는 전단지와 포춘쿠키를 배포했다. 현장선 대학생 버스킹 공연 및 아름다운동행 사진전도 진행돼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신발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2017년 4월 30일까지 아름다운동행(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1길 22 다연2층) 사무실로 이름, 주소, 연락처, 성별, 신발사이즈(초등학생용 160㎜~260㎜)를 표기해 보내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dreaminus.org/)나 전화(02-737-9595)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희 수습기자**

치료비 없어 간이식 못 받는 공양주 보살

생명나눔 11월 치료비 지원환자 김명심 씨

두 아들이 간이식을 해드리겠다고 나섰음에도 불구, 치료비가 없어 수술 받지 못한 말기 간경화 환자의 소식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 11월 치료비 지원환자로 선정된 김명심(50 · 사진) 씨다.

김명심 씨는 2015년 7월 간경화 판정을 받기 전부터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았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뒤늦게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병환이 깊어 현재는 생체 간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생명나눔은 "김명심 씨는 상원사, 범계사, 보문사, 용궁사 등 여러 사찰서 공양간 보살님으로 4년 가까이 봉사했을 정도로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실천했다. 또한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매우 헌신적이어서 가족과 매우 친밀했다"며 "이러한 김 씨가 말기 간경화 진단을



받자 두 아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간을 이식해드리겠다고 나섰지만, 3000만원이 넘는 수술비에 가족들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또한 생명나눔은 "수술이 잘 돼 건강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처럼 절에서 봉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여생을 감사히 살 것"이란 김 씨의 말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성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부디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후원문의 (02)734-8050/온라인 후원 www.lisa.or.kr/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생명나눔) **박아름 기자**

활안 · 호암스님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강의

경덕전등록은 송나라의 도원(道源)이 1006년에 저술했으며, 총 30권에 이른다.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역대 선종의 조사들, 오가(五家) 52세(世)에 이르기까지 법등(法燈)을 전한 법계(法系)를 차례로 기록한 책이다.

■ 강 사 : 활안스님(금강선원 총재)
호암스님(전 불교통신대학원장 / 내원사 주지)
■ 일 시 : 2016년 10월 17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동참비 : 월 50,000원
■ 장 소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43가길 6(청량리동)

※ 통신반 모집 : 지방에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의를 녹음하여 CD로 제작하여 보내드립니다.

부안,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
'우리 절, 우리 마을, 삶의 고향'
2016년
내소사 산사음악회
출연 정태춘, 박은옥, 빅맨싱어즈(팝페라그룹), 앙상블 92.5Mhz, 음악나무(통키타 연주팀)
2016. 10. 29(토) 오후 2시
능가산 내소사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 후원 | 부안군
TEL | 063)583-3035 www.naesos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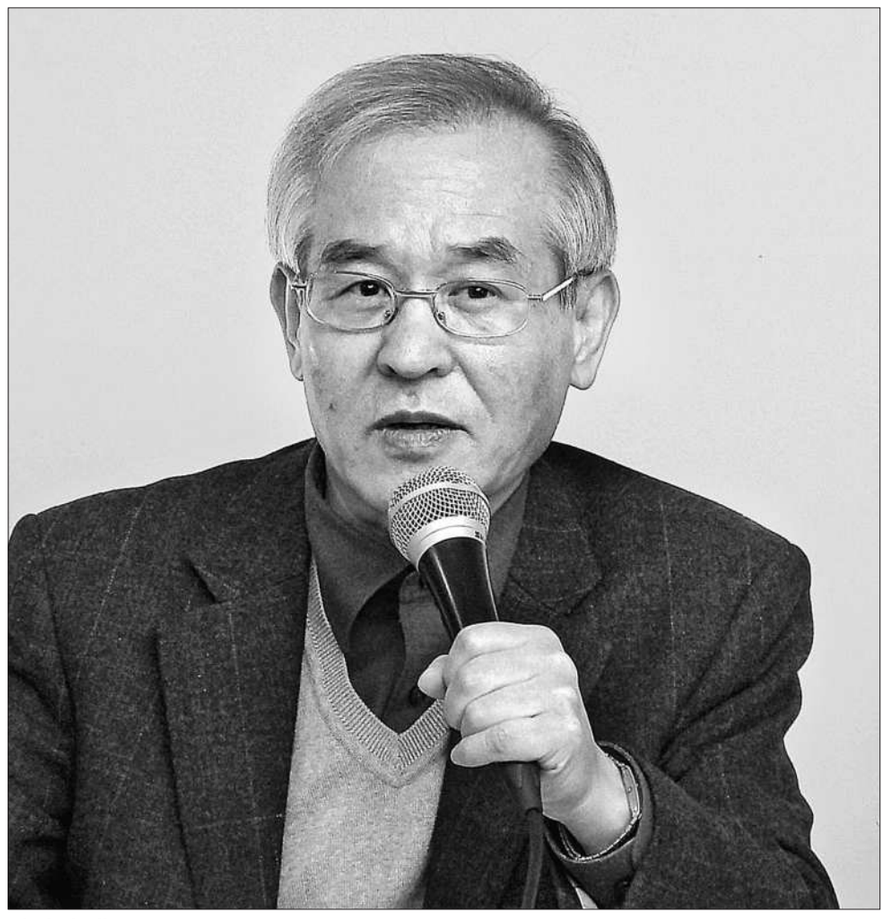
우주적 불교는?… 나눔·재정투명화 필수

참불선원 인문학강좌… 불교, 미래 사회 종교인가?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전 세계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물들며 셀 수 없이 많은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종교의 각축장'이자 급변하는 종교지형의 대표다. 앞으로의 화두는 '어떻게 살아남고,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이다. 오래 전,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미래 종교는 우주적 종교가 돼야 한다." 우주적 종교의 가치를 잘 담고 있는 불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10월 10일 서울 참불선원 인문학강좌에서 "불자들은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교단은 재정투명화에 힘 쏟으며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박광서 대표는… 1949년 태어나 경기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거쳐 미국 Brown Univ. 물리학과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MIT 화학과 연구원을 역임했다. 이후 서강대 자연과학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사, (사)우리는선우 이사장,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백지화 위원회 위원,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만해상(선우단체상), 제16회 불이상, 홍법대상, 제1회 대원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서강대 명예교수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오늘 강의 주제가 '불교, 미래 사회의 종교인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떻고, 그 안의 종교지형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알아본 뒤 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불교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불교를 신앙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불교를 신앙하면서 욕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신행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내가 살아가면서 욕심과 두려움을 없애는 데 불교가 힘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원효 전기를 읽다보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스님이 산중에 들어가 해가 질 무렵 땀을 닦고, 바위에 걸터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귀신과 도깨비가 나와 스님을 희롱했습니다. 독자라면 누구나 '원효 스님은 신통력이 있으니 잘 물리치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귀신과 도깨비를 대하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죽이거나 물리치지 않고 그들의 모습처럼 함께 춤추고 낄낄거립니다. 당시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선도 있고 악도 있을 텐데 저럴 수 있나' 싶었으니까요. 그때가 1960년대였으니 남북대치 등으로 인해 이분법에 절어 생활했기에 더욱 심했습니다. 이때부터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욕심 없는 것은 비렁뱅이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욕심과 두려움 없는 건 당연히 따라올 일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주위 도반은 그런가요? 또 불교지도자들은 어떤가요. 한번 자문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불교는 건강할까요? 이대로도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부터 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 10위쯤 됩니다. 그런데 웰빙지수는 2013년 75위에서 2015년 42단계나 추락해 117위를 했습니다. 총 145개국 중에 말이죠. 자살률은 10여 년간 부동의 1위입니다. 어느 나라에 무슨 사태가 생겨 일시적으로 1위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정치인 책임이 크다고 탓할 수 있을 겁니다. 살만한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결국 불자들의 잘못이고, 우리 국민들의 잘못입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양극화입니다. 1990년 월소득 상위 10%가구와 하위 10%가구의 차이는 8.5배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는 11.9배로 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임금 불평등은 세계 4번째죠.

제가 1970년대 대학 졸업하고 서울 구로동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을 때 3만5천원인가 받았습니다. 당시 적지 않은 임금이었는데요. 대기업들과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들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죠. 출발선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아예 작은 회사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휘말리며 우리나라는 승자독식 사회가 됩니다. 옛날엔 상위 20%와 하위 80%라고 말했지만 요즘은 상위 1%, 하위 99%라고 하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양극화의 선두주자입니다.

부패지수 역시 34개국 중 27위입니다. 관피아,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 금융 및 군납비리 등 수많은 부패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꾸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공공성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말이죠. 공공성은 공익성, 공정성, 공개성, 시민성으로 이뤄집니다. 정상적인 사회는 부정부패가 드러나 해결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잘 숨기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종교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탈종교 현상이죠. 사람들이 예전처럼 종교에 매달려 살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종교가 자본주의적 경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선 실현보다는 권력화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타종교의 이익을 빼앗아오거나 세속권력과 합작해 권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정치가 잘 되도록 나서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절반 정도가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증가세는 주춤한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단일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작은 나라임에도 전혀 다른 전통의 여러 종교들이 균형 있게 공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교의 각축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혈 수준의 종교분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교 각축장' 대한민국
무분별한 종교과잉으로
종교 대한 염세 확대돼
종교계, 공공성 중시해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교의 관용성'입니다. 불교가 조선 500년 동안 핍박을 받아서 그런지 웬만해서는 핍박으로 안 봅니다. 근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해야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데 불이익을 받아도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불교도 불교만의 목소리는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관용성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덕분에 종교 간의 심각한 싸움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아니면 천도교를 믿든 겉으로는 다 이름이 있지만 한 꺼풀 벗겨내면 전부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복에 기대 점집에 가거나 부처님한테 빌어서 안 된다고 다른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죠. 또한 종교싸움 이전에 우리 사회에 갈등 구조가 중층이기에 종교갈등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남녀·남북·빈부·세대·지역갈등 등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죠.

우주적 종교, 불교

인류사회는 과거 '산업·인간'에서 '정보·생명' 중심으로 변했고, 이제는 '감성·공감'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이는 즉 다원화, 생태공동체, 공존·공생, 네트워크, 탈경쟁, 탈물질 등을 포함하죠. 그래서 저는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주장합니다.

동도서기(東道西器)라는 말이 있죠. 저는 동쪽의 '도'를 불교로 표현합니다. '서양의 과학문명에 불교를 담는다'는 뜻이 되겠죠.

인류문명은 채집을 하다 농경사회로, 그리고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변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동양의 불교가 서양으로 건너온 일'을 꼽았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조지 루카스 등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졌고,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 불교의 위상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보르헤스는 불교를 알지 못한 채 '불이(佛二) 세계관'을 확립해 주장했는데 나중에 그가 찾아보니 그것이 불교 가르침이었습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선(禪)은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 가장 세련된 반이데올로기적이고 이성적인 체계"라고 말했고, 프랑수아 슈네는 "불교는 동서융합으로 생성될 세계 문명의 필수요소다. 불교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나 보어 역시 마찬가집니다. 아인슈타인은 "미래 종교는 우주적 종교가 돼야 한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물리학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연기적 세계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절대적인 하나라는 게 없다는 것을 말이죠. 반면 개신교에서는 있다고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주체와 객체,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 몸과 영혼 등으로 분리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상대성, 양자론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불교와의 유사성에 주목했습니다.

과학과 불교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첫째, 자연세계와 인간문제를 통합적으로 관찰하고 존재방식과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습니다. 둘째, 권위에 주눅 들지 않고 직접 보고 확인하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의심합니다. 셋째, 다양한 현상으로부터 설득력 있는 결론에 이르는 귀납적 방법을 택합니다. 넷째, 자비를 떠나지 않는 한, 어떤 방법도 가능하고 합리적 결과는 어떤 도그마(dogma)로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생태·포용·평화의 종교입니다. 부처는 "빛과 그림자, 장(長)과 단(短), 흑과 백 같은 것들이 서로 다르고 구분돼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닌, 같은 것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말이죠. 현실세계를 본연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한 겁니다. 모두 주인공이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우주적 종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는 사회통합 없이 선진국이 되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배타성과 적개심이 개인적 인내 수준을 넘어섰고, 종교과잉을 서슴지 않습니다. 때문에 종교 혐오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광고 강의석 사건을 비롯한 학내 종교강요와 공인들의 종교이념 표출 등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 염세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자들이 진정한 '불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불자의 삶일까요? 짧게 설명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입니다.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 또한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불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만해 스님도 '불교와 사회를 넘나드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맑고 따뜻한 사회'를 위해서 사회참여 의식과 행동이 몸에 밴 불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것과 새로운 기부문화를 정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버는 것의 어느 정도를 기부하십니까? 불교에 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를 위해 가진 것을 환원하자는 겁니다. 이에 맞춰 교단 역시 재정투명화에 힘쓰고 인재를 양성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높이고, 공공성 향상에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봉 행

故 박정희 대통령·육영수 여사 추모제 및 호국영령 영산대재





귀의삼보하옵시고,

청명한 가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국립현충원에서 故 박정희 대통령·육영수 여사님의 뜻을 기리는 추모제 및 역대 대통령 영부인 호국영령 영산대재를 봉행합니다. 개인의 영위보다는 민족과 조국을 위해 몸바치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자리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발원합니다.

■ 일 시 : **불기 2560(2016)년 10월 25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국립현충원 현충관
■ 주 최 : 새마을정신봉찬위원회
■ 문 의 : 010-8930-1578

중앙회장 석 송 산 | 유족대표 박 근 령

정년맞은 본각 스님 평생 연구 정수 전한다

11월 7일 퇴임 강연회 개최 '법계와 보현, 중도' 주제로



비구니계를 대표하는 강백 중 한 명인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사진〉이 정년 퇴임을 맞는다.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 대학원 학생회 · 총학생회는 오는 11월 7일 오후 3시 30분 김포 중앙승가대 강당에서 본각 스님 정년퇴임 기념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본각 스님은 '법계와 보현, 그리고 중도'를 주제로, 화엄학 연구에 대한 정수를 대중에게 전한다.

본각 스님은 1955년 인천 부용암에서 육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77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동국대를 졸업한 스님은 1986년 일본 도쿄 릿쇼(立正)대학원에서 '화엄경의 연구-십회향품을 중심으로'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92년 도쿄 고마자와(駒澤)대학원에서 화엄관법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신성민 기자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등 서울시 유형문화재 등재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중 일부.

서울 소재 사찰의 서적들이 잇달아 시지정 문화재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 법장사(주지 퇴휴)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와 불교 간의사전인 '현수제승법수'가 10월 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서울 운가사(주지 여해)의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도 서울시 문화재자료(67호)로 함께 지정됐다.

법장사의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수륙재 의식절차를 요약한 의례서다.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1470년(성종1)에 광평대군 부인 신 씨가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했으며 보물 제1105호다. 법장사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는 이보다 13년 뒤인 1483년(성종14) 3월 전라도 진안 성수산 중대사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또한 법장사 '현수제승법수'는 당나라 현수 스님이 편찬한 간이 사전으로 중국에서 편찬돼 1572년 용천사에서 간행됐다.

운가사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는 보존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나 임진왜란 중 간행된 판본이라는 점과 용천사 판본으로는 처음 공개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신성민 기자

"흥천사 감로도, 한국 근대기 비추는 거울"

흥천사 · 동양미술사학회, 7일 학술대회 개최

일반적으로 감로탱화는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수 만가지 인간 형상들이 설법을 듣는 형상을 하고 있다. 형식의 차이는 중단에 있지만, 하단부는 내용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하단부에는 당시의 생활상이나 민중의 염원 등이 담겨있는 역사적 자료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 흥천사 감로도는 정말로 많은 특이점을 가진다. 1930년대 전통과 근대가 혼재된 '모던 라이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희 국립전주박물관장은 10월 7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모던 불화의 탄생'을 주제로 열린 흥천사 · 동양미술사학회 학술대회에서 흥천사 감로도에 나타난 모던 라이프의 실상을 조명했다.

김 관장은 흥천사 감로도에 나타나는 중단과 하단의 도상을 분석했다. 김 관장에 따르면 흥천사 감로는 특이하게 중단에 해당되는 천도재의 장면이 확대돼 수많은 구경꾼들이 운집한 가운데 야외공연처럼 진행된다. 재단에 놓인 지화는 전통적인 모란, 작약 등이 아닌 서구에서 사용하는 장미를 그려 넣었다.

김 관장은 "당시 장미는 '미'에 대한 절대적인 관념을 표상하는 것이였다"며 "감로도에 나타난 장미라는 모티프는 성화(聖花)로서 이미지보다는 당시 모던 풍조에 의해 각광받았던 문화적 기호로 새롭게 차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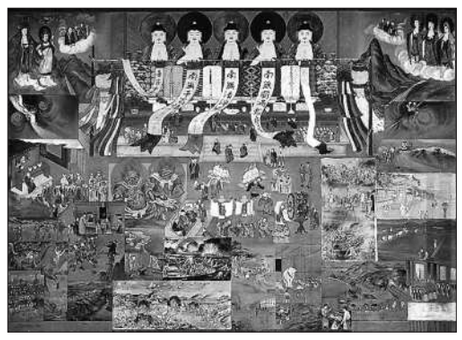
재단 장엄 옆에는 삼신번과 '시방세계 중생이 공양을 받으라'는 내용의 보고번,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천황의 축수를 바라는 상축번이 그려져 있다. 김 관장은 "천황 축수번은 당시 사회상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며, 일제강점기 사찰령에 의해 조선 불교계가 통제됐던 시대의 뼈아픈 소산"이라고 밝혔다.

소위 '모던 라이프'의 모습은 천도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난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재에 참석한 사람들이라면 양식 복장의 사람들은 '구경꾼'처럼 그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관장은 "의식에 집중한 채 숭배의 흔적을 보이는 사람과 구경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풍기는 이질적 요소가 이 불화가 가지는 색다른 점"이라며 "감로도 의식 장면에서 흰

양식 복장 · 전기공사 · 전쟁 등
전통 · 모던 경계 시대상 반영
전통과 신문물 대치 상황을
사진 구도 다큐 장면 표현해
'모던 불화' 탄생, 가치 높아

옷과 양복, 짚신과 구두, 땋은 머리와 단발 머리는 신문물 유입 후 전통과 근대가 하나의 공간에서 뒤엉킨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여과없이 시각화 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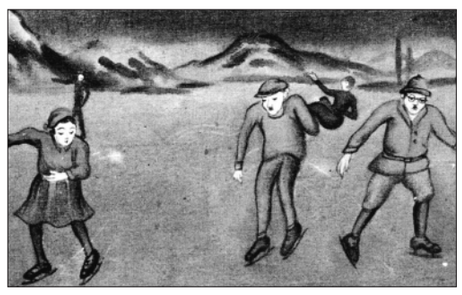
하단 장면에 펼쳐진 다큐멘터리식 편집과 내용도 흥천사 감로도에 나타난 근대적 요소이다. 종래의 불화에는 구름이나 수목 또는 산야 지형을 이용해 공간을 구획했지만, 흥천사 감로도는 사진 프레임을 덧댄 것 같이 나눠 내용을 전달했다. 여기에도 전통과 근대는 혼재되고 있다. 신식 재판과 구식 재판, 대장장이와 전기 수리공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당시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도로공사와 자동차 여행, 서커스와 스케이트 등도 그려



서울 흥천사 감로도. 1939년 화승 문성과 병문에 의해 그려졌다. 현재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위탁 보관 중이다.



재를 구경하는 아이들과 신사, 숙녀. 모두 양식 복장을 하고 있다.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 근대의 유희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져 있다.

김 관장은 "흥천사 감로도는 전통불화의 틀을 깨고 신문물의 상징이었던 사진을 여러 컷으로 화면에 나열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시도했다"며 "이것은 당시 사진이 갖고 있던 명료한 사실성을 적용시킨 참신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관장은 흥천사 감로도가 굴절됐던 근대의 사회상을 전해주는 거울과 같은 기록물이라고 봤다.

그는 "흥천사 감로도를 통해 사라져 가고 잊혀가는 근대의 여러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며 "흥천사 감로도는 다섯 여래의 강림과 천도재를 통한 해탈이라는 종교적 메시지와 함께 당시 시대를 풍미했던 경성의 모던 문화가 어떻게 보수적인 종교화까지 확장됐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사회상을 형성하던 '모던'이미지가 '감로도'의 형식을 빌려 독특한 다큐형식으로 형상화된 작품인 만큼 오늘날의 열린 문화예술적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회에 앞서 흥천사 회주 정념 스님은 인사말에서 "일본의 만행을 그린 장면들과 일제 천황을 적은 번을 통해서 그들이 사후에나마 참회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화승의 발원을 읽을 수 있다"며 "흥천사 감로도는 일제강점기에 조성돼 암울했던 우리의 식민지 시대상을 그림으로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귀중한 근대 역사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정희 원광대 교수가 '감로도 도상의 기원과 전개-연구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를, 前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이 '의례의 관점에서 감로도 고찰'을 각각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日 행기대사 49院 '미륵상생경' 영향"

중앙승가대 교수 오인 스님 〈불교사연구〉서 논문 발표

'49'는 미륵 관련 경전서 기술 행기의 보살행은 유가론 바탕



일본 동대사역 광장 분수에 세워진 행기 대사의 동상.

일본에서 문수보살의 화현으로 추앙받는 백제계 유민의 자손 행기 대사가 건립한 49원(院)이 〈미륵상생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승가대 조교수 오인 스님은 한국불교사학회가 간행하는 〈한국불교사연구〉 9호에 발표한 '백제계 행기의 미륵정토에 대한 고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나라 시대 활동한 행기 스님(668~748)은 백제계 유민의 후손으로 15세에 출가해 민중교화에 뜻을 두고 교량 건설, 보시원 설립 등을 추진해 어려웠던 사람들을 보살폈다. 당시 일본은 세금과 부역으로 민중은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행기 스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를 '행기집단'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당시 조정에서는 행기집단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 717년 '승니령'을 내려 승려의 탁발을 금지시켜 행기 스님을 탄압한다. 하지만 행기 스님은 꺾이지 않았다. 결국 성무천황은 행기 스님을 동대사 건립을 위한 대승정으로 임명하기까지 이른다.

오인 스님은 행기 스님이 전국에 건립했던 49원을 주목했다. 행기의 사료에는 미륵정토와 관련한 기록이 없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그의 생애가 사회사업에 치중돼 도솔왕생신앙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적으로 49원 건립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이하 미륵상생경)에는 "마니 보주의 광명이 공중을 선회하면서 49중의 미묘한 보배 궁전을 변화해 만들었다"고 기술돼 있다. 또한 〈대승본생지관경〉에는 "도솔천의 여의전은 49중으로 이뤄져 있다"고 쓰였다. 〈화엄경〉에도 미륵의 주처가 묘사됐지만, 여기에는 '49'라는 숫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오인 스님은 "행기의 49원은 〈미륵상생경〉의 영향이며, 화엄사상과는 무관하다"며 "790년에 번역된 〈대승본생지관경〉 역시 행기의 입적 후 한역돼 영향을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행기의 보살행의 근원 〈유가사지론〉에 기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인 스님은 "행기집단은 걸식을 기본으로 했는데, 이는 중생의 고난을 해소하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찾아서 구해 줘야 한다는 〈유가사지론〉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굴산사지 조사 성과와 보존 · 정비 방향 모색

중원문화재硏, 13일 학술세미나

한국 구산선문 중 하나인 굴산사지의 발굴 성과와 향후 보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박종익)는 10월 13일 강릉시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강릉 굴산사지 발굴조사와 보존 · 정비'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창석 강원대 교수가 굴산사가 있었던 고대도시 명주(溟州, 현재 강릉)의 역사적 위치를 살펴봤으며,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사굴산문과 굴산사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했다.

또한 문옥현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는 강릉 굴산사지의 조사 성과를 살펴보고, 엄기표 단국대 교수는 굴산사지를 비롯한 강원 영동지역 불교조각의 특징을 검토하는 발표를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0월 31일까지
◆ 강의일시 :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水魔의 고통, 부처님 자비로 품다

〈수마〉

울산 한마음선원, 수해 피해 지역서 '봉사행' 펼쳐



울산 한마음선원은 태풍 차바로 피해입은 지역민들을 위해 10월 9~15일 공양 나눔행을 펼쳤다.

피해 상인 지원 받을 길 없어
신도들 힘 모아 3000만원 후원
봉사자 위한 새벽 공양 나눔도
"지속 관심 · 후원 이어갈 것"



울산 한마음선원은 피해 상인들을 위한 후원금 총3000만원도 전달했다.

태풍으로 인해 가득 찼던 물과 진흙탕은 사라졌다. 하지만 울분과 상처는 여전하다. 수마가 할퀸 상처로 집기류는 물에 잠겼고 소중히 아꼈던 물건은 쓰레기가 됐다. 벽지는 찢어졌고 그 사이로 회색 콘크리트가 보였다.

울산 중구청에 따르면 태풍 차바로 인한 울산지역 피해액이 총 495억 원이다. 지난 10월 10일 국민안전처는 울산 침수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울산 중구에 위치한 태화시장은 재난지역서 제외돼 상인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게다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해도 침수된 기기 및 보수 공사를 대부분 상인이 부담해야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러한 울산 상인들과 주민들의 고된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나누기 위해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 이하 울산 한마음선원)이 나섰다.

태풍 직후 10월 6~8일 울산 한마음선원 신도 50여명은 수해 피해 가정을 방문해 정리 및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9~15일은 매일 새벽 공양을 준비했다. 수해복구를 돕기 위해 현장에 방문 했을 때 봉사자들이 김밥으로 배를 채우는 것을 보고, 좀 더 나은 음식으로 봉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울산 한마음선원은 10월 13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울산 북구청에 1500만원, 중구청에 1500만원 총 30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울산 한마음선원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았으며, 울산 한마음선원서 힘을 보탰다. 전달식서 지원장 혜안 스님은 "피해에 비하면 적은 액수로 생각된다. 하지만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여러 봉사자들 가운데서도 진심을 다해 신경 써주심이 느껴졌다"며 "피해 지역 상인과 주민을 위해 이 성금을 잘 사용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봉사자들은 수해가 복구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했다. 특히 봉사자 가운데는 직접 수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봉사에 합류해 감동을 준 사례도 있다.

이경희(57 · 북구 원지동) 씨는 "집에 물이 갑자기 차올랐다. 지붕만 남겨두고 물로 가득차 중요한 물건을 챙길 수도 없었다"며 "그런데 바로 다음날 한마음선원 신도님들이 와주셔서 말끔히 정리해주고 위로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렸다. 한탄하고 원망하기 보단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화(61 · 청곡동) 씨는 "직접 현장에 가보니 말문이 막혔다"며 "마치 진흙 개펄처럼 지나가기도 힘든 곳을 스님들이 먼저 앞서 가며 도와주는 것을 보고 마음을 더 낼 수 있었다. 봉사의 손길이 아무쪼록 그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랄 뿐"이라고 바람을 전했다.

울산 한마음선원은 피해지역 복구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모두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울산 한마음선원 총무 혜자 스님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자들을 지켜보고 후원하며 피해지역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봉사행에 함께해 준 신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피해 입은 많은 분들이 어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기도하겠다"고 응원했다. 하성미 기자

"천일동안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할래요"

황룡사 어린이들, 10월 9일 천일관음기도 입재



황룡사는 10월 9일 경내 법당에서 '천일관음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울산 황룡사(주지 황산)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1000일동안 관세음보살님께 마음 모아 기도할 것을 서원했다.

황룡사는 10월 9일 경내 법당서 '천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에는 주지 황산 스님, 학부모, 포교사단 등 100여명과 어린이와 청소년 60여명이 참여했다. 천일기도는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수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각 가정에 수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아이들은 먼저 자신들이 작성한 '매일 매일 천일기도 수첩'을 부처님 전에 올리며 수행을 다짐했다.

주지 황산 스님은 "사랑한단 것은 '생각해 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기도해 주는 것"이라며 "매일 누군가가 잘되길 기도하면 그 마음을 관세음보살님이 보시고 10배의 복을 돌려주실 것"이라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번 입재식에 참여한 학부모와 자녀는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시간으로 기대했다.

이명숙(46 · 울산 복산동) 씨는 "부모들은 아이들보다 일주일 전 입재했다. 집에서 먼저 하고 있어서 아이들도 잘 따라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도 시간에 아이들이 도반으로 함께 할 것을 생각하니 기쁘다"고 말했다.

이지영(19 · 학성여고) 학생은 "고3이라 머릿속은 대입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하다. 관세음보살님께 좋은 결과를 얻도록 기도하면 쉽도 찾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

낯설지만 새로운 시도를 통해 불심을 다지겠단 가족도 있었다.

이혜빈(13 · 울산 복산동)과 이연주(9) 자매는 "집에서 엄마가 기도하는 것을 봤는데 나도 한다고 생각하니, 사실 어려울 것 같고 걱정도 약간은 앞선다"며 "하지만 해내고 나면 뿌듯하고 기쁠 것 같다. 부모님과 함께 절하고 수행하며 건강과 지혜를 발원하는 부처님 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황룡사 어린이들은 2016년 10월 9일~2019년 10월 17일 관세음보살기도를 이어간다. 참여하는 아이들은 매일 집에서 삼귀의 후 108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발원문을 낭독한다. 이후 부모님께 삼배를 올리면 황룡사서 나눠 준 '매일매일 천일기도 스탬프 수첩'에 도장을 찍고 수행확인을 받는다. 이 수첩을 가지고 황룡사에 오면 템플머니를 받는다. 어린이들은 템플머니로 어린이회가 마련한 장터서 다양한 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황룡사는 천일을 마무리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은 어린이를 위해서 노트북 혹은 스마트 폰 등 고가의 선물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황룡사는 현재 울산에서 도심 포교 전법도량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문화활동과 교육 시스템을 적용해 매주 100여명의 학생들이 법당을 찾고 있다. 하성미 기자

"국민화합 · 재난소멸 기원합니다"

경주 분황사 · 불국사, 재난소멸 기원제 잇달아 봉행



경주 분황사는 10월 8일 경내서 '제20회 원효예술제 및 재난소멸 기원제'를 봉행했다.

국민화합과 자연재난 소멸을 기원하는 자리가 경주 지역서 연이어 펼쳐졌다.

경주 분황사는 10월 8일 경내서 '제20회 원효예술제 및 재난소멸 기원제'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주지 종우 스님, 최양식 경주시장, 박승직 경주시의회 의장, 이진락 배진석 도의원 등 500여명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관장 종상 스님은 '자연재난 소멸 기원문'을 통해 "저희 중생들이 지은 죄업과 번뇌장 · 업장 · 보장 등 일체 마장장애가 영원히 소멸되고, 묘법륜이 무진찰토에 상전해 불법이 더욱 융창해지길 바란다"면서 "또한 이 땅에 앞으로 지진해일 등 모든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중생들이 불안과 공포서 벗어나 안온함을 얻게 되길 바란다. 이번 지진 피해를 입은 곳은 하루속히 회복돼 평화와 안정을 되찾고, 더욱 발전하고 번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경주 불국사도 7일 경내 범영루 광장 앞서 '제44회 영산대재 및 재난소멸 기원대재'를 개최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정오 스님, 한글날 경축식서 시장 표창

한글 널리 알린 공로 인정



'부산시 한글날 경축식'서 기장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이 부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부산 시청 대강당서 열린 '부산시 한글날 경축식'서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이 부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정오 스님은 해외교류를 통해 중국인 유명 서예가에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국 문화를 소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은 "한글을 생각하면 많은 이들이 세종대왕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신미 스님이 한글 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한글 제작으로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펼치신 것이다. 이 뜻을 기억하고 앞으로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는 일에 지속적인 노력과 후원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한글학회는 10월 16일까지 부산시청 전시실서 '제14회 한글서예 한마당 및 부산 · 상해 문자예술교류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는 천년고찰 장안사와 문화사찰 청량사의 협찬으로 열렸다. 하성미 기자

"생명 희망 안고 함께 걸어요"

제8회 생명나눔 걷기대회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10월 9일 '희망세상 만들기 제8회 생명나눔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이하 부산 생명나눔)는 10월 9일 부산시민공원서 '희망세상 만들기 제8회 생명나눔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걷기대회는 오랜 투병생활에 지친 환우를 돕고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부산 생명나눔이 매년 개최하는 캠페인이다. 올해 행사엔 불자 및 시민 2000여명이 참여했다.

본부장 원범 스님은 "오늘 참가한 분들은 자신이 스스로 서고 걸을 수 있는 일상을 감사히 여기길 바란다"며 "오늘 우리의 걸음이 사회를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 믿는다"며 찾아준 모든 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산 생명나눔은 환우에게 휠체어를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풍선아트 · 무료차 시음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해 즐거움을 더했다. 걷기대회 후엔 음악세상과 동아대 A.LES 응원단과 추첨행사 등이 진행됐다. 하성미 기자

2017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12절 258㎜×265㎜
100부 이상 @ 1,000원
3천부 이상 @ 8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H.P 010-3554-2988, 070-7425-051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농협 : 121068-56-042256 ◆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한국말, 어렵지만 배우니까 즐거워요!”

광주외국인복지센터, 한국어 자랑대회 열어
네팔 · 베트남 등 8개국 근로자들 다수 참가

한글날을 기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특별한 한국어 자랑대회가 열렸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10월 9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제3회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혜공 스님(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서영애 교수(광주대학교)를 비롯해 3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열띤 경연을 펼쳤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대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생활 정착과 사업장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불교계가 마련한 대회다. 대회에서는 네팔 · 베트남 · 동티모르 · 인도네시아 · 방글라데시 · 파키스탄 · 캄보디아 · 미얀마 등 8개국 참가자 수십 명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총 15명이 진출했다.

경연은 ‘한국 여행이야기’ ‘한국에서 알게 된 일’ ‘한국음식’ ‘나의 한국생활’을 주제로 직접 겪은 일화를 3분 동안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치열한 경연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온 30세 위보워(Sukaryono Wibowo) 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보워 씨는 자신의 무대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말도 모르고, 음식도 날씨도 달라 많이 힘들었다”면서 “보통 우리 친구들은 주말마다 일 안하면 어디 놀러 가거나 친구 만나러 간다.

국내 정착 돕는 한국어경연
여행 · 음식 · 한국생활 주제로
본인 적응기 차분히 풀어낸
인도네시아 위보워 씨 대상

하지는 저는 주말마다 무조건 한국어 수업에 들어가서 공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어 잘하고 싶으면 한국 직원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많이 보면 좋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고, 한국 음악도 많이 들으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보워 씨는 대상 수상과 함께 부상으로 노트북을 품에 안았다. 위보워 씨 외에도 최우수상에 놉 스레렉(캄보디아), 우수상에 어드가닉(몽골), 씨뚜서원(미얀마), 수띠부따(캄보디아), 가스토요(인도네시아), 써저툰라임(미얀마) 씨 등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부상으로 캠코더, 자전거 등이 전달됐다. 아울러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캄보디아 전통춤, 인도네시아 · 네팔 · 통티모르 · 미얀마 노래공연이 이어져 더욱 흥을 돋웠다.



10월 9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서 열린 ‘제3회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대회’. 행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통춤을 선보이고 있다.

행사를 준비한 이주성 센터장은 “언어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통의 길이기 때문에 삶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언어 소통이 이뤄지면서부터였다”며 “이번 행사는 외국인들이 그간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통해 한국사회의 규범과 규칙 등을 이해하고, 건강한 한국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행사 의의를 설명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혜공 스님은 축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을 알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국어에 대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옴천사, 호남 최대 약사여래불 점안

10월 8일, 선각종도 700여 명 동참

선각총림 강진 옴천사(총무원장 정암)는 10월 8일 경내 약사여래대불전 앞에서 ‘호남 최대의 약사여래대불 점안 및 국민화합을 위한 효사랑 큰잔치’를 열었다.〈사진〉

가을비가 내린 이날 행사는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을 비롯한 종단스님들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강진원 강진군수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옴천사가 조성한 약사여래대불은 높이 17미터의 호남 최대 규모 청동불로, 2년간의 불사로 완성됐다.

행사는 약사여래대불 점안을 기념하는 도량게, 육법공양(선각종문화예술단), 개회, 내빈소개, 봉행사, 축사, 장학금 전달식 등 1부에 이어 가수 송춘희, 이애란, 이명주, 현진우 등 20여 명의 가수들이 참여하는 효사랑 큰잔치가 열려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정암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행사에 참여해주신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봉안한 약사여래대불로 부처님의 참 뜻이 온 세상에 두루 퍼져 고통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축사에서 “부처님께서 사시던 때에 비하면 지금 세상은 훨씬 편리해지고 넉넉해졌다.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 세상은 훨씬 불공평하고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이 더 깊고 커졌다. 부처님의 자비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며 “약사여래대불 점안을 통해 더욱 평화롭고 인정이 넘치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돌탑으로 유명한 옴천사는 이날 점안식과 함께 경내 3000기 돌탑 완성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았다.

사찰 창건 후 20여 년 동안 3000기의 돌탑을 완성한 정암 스님은 “모든 국민들의 희망과 안녕을 바라는 돌탑을 더욱 정진해 5000기까지 쌓아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모두 행복해집시다”

신광사, 월호 스님 초청 특별법회

비구니 수행도량 광주 신광사(주지 일명)는 10월 8일 대웅전에서 ‘월호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회주 경주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 원로스님들과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월호 스님은 강연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바로 지금 여기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선물을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그 선물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신광사 주지 일명 스님은 “힐링 강연을 통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불교적 지혜로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좋은 불교지침을 얻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성보문화유산 가치 재조명

10월 7일, ‘성보문화유산 역사와 가치’ 세미나

금산사의 성보문화재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10월 7일 금산사 보제루에서 ‘금산사 성보문화유산의 역사와 가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세미나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 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장 정인 스님, 세미나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관련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1부에서 ‘금산사 방등계단의 가치와 위상’에 대해 최태선 중앙승가대 교수가 발표하고, 교토불교대 혜담 스님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 ‘금산사 오층석탑 사리장엄 연구’를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학예팀장이 발표하고, 강삼혜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가 토론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금산사 대적광전 연원과 전통- 회통불교의 도상학(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 △금산사 미륵전 벽화연구(김창균 동국대 교수) △동경 국립박물관 소장 금산사 은입사 향완의 특징과 중요성(최응천 동국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토론자로는 각각 한정호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고승희 동국대 교수, 이요진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나섰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금산사 성보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보다 널리 확산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 스님은 축사를 통해 “금산사 도량이 전란과 뜻하지 않은 화마를 겪으면서도 많은 성보문화유산을 잘 보존 ·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불보살의 가피”라고 강조했다.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장 정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발표된 주제와 토론들이 향후 금산사 성보문화유산의 가치를 보다 선양하는데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국의 등불 장병들이 밝혀주길”

군산지역 공군부대 호국 충렬사 10월 13일 개원

군산지역 공군부대 불자장병의 신심을 증장시킬 군법당이 문을 열었다.

공군 8325부대(부대장 정지웅 소령)는 10월 13일 군산 영병산 호국 충렬사 개원 및 비로자나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개원한 호국 충렬사는 우리나라 서해안 영공을 책임지고 있는 부대 군법당이다. 그동안 법당이 없어 매주 불자장병들이 신행활동을 위해 멀리 떨어진 공군38전대 호국 군성사 법당을 이용해왔다.

증명법사로 참석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장병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감 있는 병사가 돼 호국의 등불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봉 법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비록 작은 법당으로 불자장병들의 쉼터와 신행공간으로 출발하지만 앞으로 전 부대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대법당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국 충렬사는 과거 봉수대가 있었던 요충지로 선운사와 참당암 등 지역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 아래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했다. 특히 축서사 무여 스님은 충렬사의 법당 이름을 직접 지었으며,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현판 글씨를 직접 써주며 법당 개원에 힘을 보탰다.


호국 충렬사 개원법회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비로자나불을 점안하고 있다.

법회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순창 장덕사 주지 청암 스님,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관음사 주지 도천 스님, 공군본부 군종실장 각원 스님, 공군작전사령부 군종실장 상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윤봉 법사, 이선복 공군38전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10월 6일에는 공군부대 호국 의상암에서 부대 장병들을 위문하는 위문법회 및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위문법회는 아리랑 문화예술단이 출연해 각설이 품바공연을 비롯한 위문공연이 펼쳐졌다. 또 여산 법사는 장병들을 위해 색소폰 연주를 선보여 장병들을 놀라게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행은 세상 풍파 이겨내는 힘의 근원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㊽ 화염산에서의 일화에 대한 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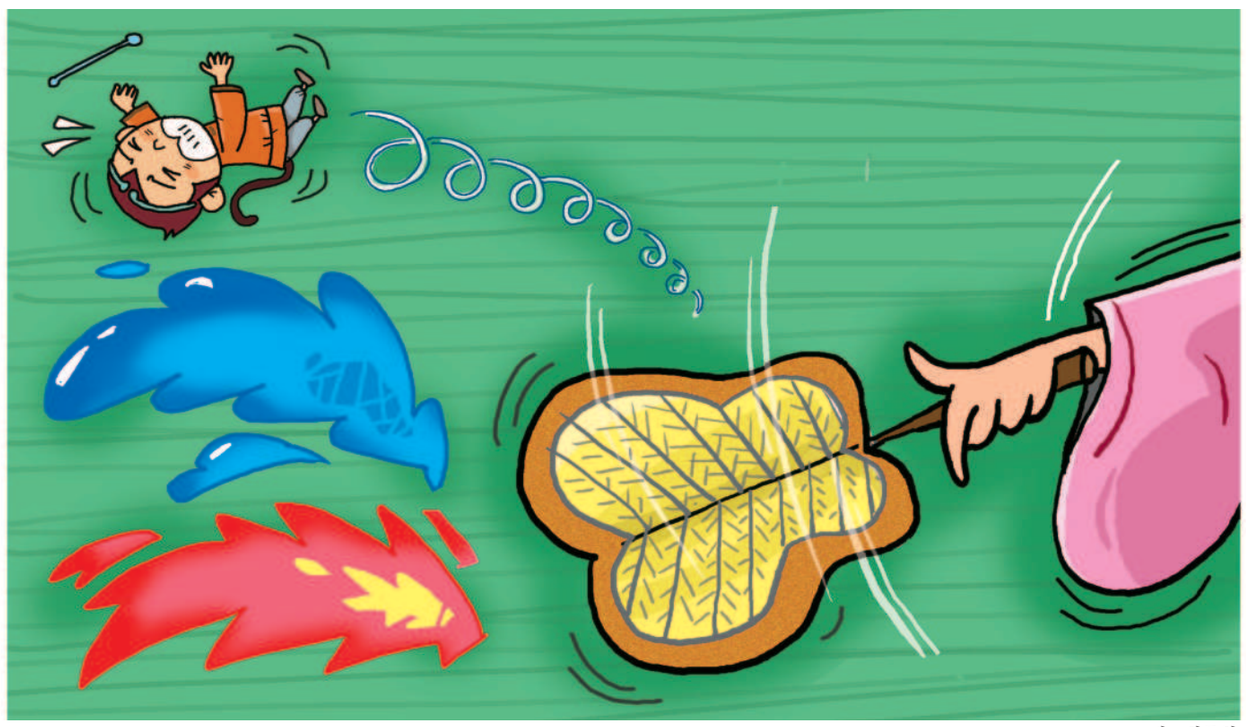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손오공 일행이 마주친 뜨거운 화염산! 그런데 이것이 손오공이 저지른 업보였다네요. 천상세계를 한바탕 소란케 할 때 손오공이 태상노군의 단로를 둘러엎었던 일이 있었지요. 그 때 불기 머금은 벽돌 조각 하나가 하계로 떨어진 것이 바로 화염산이라구요. 올바른 수행에 들기 전에, 바른 길로 들어서기 전의 삿된 길에서 저질렀던 일의 업보가 이제 큰 장애로 등장하는 군요. 업이라는 것은 털끝만큼도 속일 수가 없는 것이러니……. 그러나 업보를 받는 태도에 따라 그 업보가 나쁜 업으로 증폭이 되느냐 아니면 선업으로 전환을 하느냐가 정해지겠지요? 지금 손오공이 마주한 난관도 적당히 피해가려고 하면 또 다시 삿된 길로 접어들 위험성이 있지요. 정면승부! 올바른 길로의 물러서지 않는 꿋꿋한 정진만이 답입니다. 서유기는 분명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 계책을 써도 자꾸 실패하여 화염산 불을 끄기가 어려워졌을 때 저팔계가 힘이 빠지고 짜증이 나서 말하지요. "그냥 돌아서 갑시다. 딴 길로 돌아서 가자구요!" 그 때 토지신이 나서서 말하지요.

"딴 길로 돌아가면 바로 이단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이가 취할 길이 아니지요. 옛말에도 '샛길로 다니지 않는다' 고 하지 않았나요? 당신들의 사부는 올바른 길(正路)에서 여러분이 난관을 돌파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데 편법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힘들더라도 정면으로 난관을 돌파할 때 힘이 생기고, 그 힘이 다시 앞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한번 꾀를 내어 편법을 찾게 되면 그것이 다시 업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샛길 찾는 업이 생기고 차츰 올바른 길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로에 들지 못하고 삿된 길에 머물 때 지었던 업이 장애가 되면 더더욱 그 업을 바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삿된 길의 업을 다시 삿된 방법으로 해결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삿됨이 더욱 증폭되겠지요.

아무튼 지금 손오공이 마주친 난관은 불의 난관입니다. 지리적 험난함을 바탕으로 설정한 난관이지만, 그런 요소를 제외하고도 이 불의 난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도교 수행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수행의 중요한 요건이 바로 물기운과 불기운을 제대로 다스리는 곳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염산은 불기운과 물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장애를 겪는 것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물기운을 북돋아야 하는데 바로 그 물기운을 북돋는 도구가 나찰녀의 파초선이지요. 이단의 수행, 삿된 수행을 할 때의 업이 불기운을 기승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난관을 돌파하는 길이 바로 그 삿된 길에서 사귀었던 우마왕과 그 아내 나찰녀에 있다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이군요. 한쪽에 치우쳤던 삿된 수행을 바로잡는 길이 바로 삿된 길에 있네요. 한쪽에 치우쳐 있었으니, 다른 치우친 쪽을 보강하는 방식인가요? 아무튼 이 물기운을 돋우는 파초선을 얻는 길이 그리 만만치가 않아서 문제로군요.

그렇게 어려운 도교 수행의 이론을 빌릴 것 없이, 일반적으로 선 수행을 하거나 단학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일어나는 장애를 예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선수행하는 과정에 흔히 겪는 장애가 뭔지 아시죠? 상기병이라는 것입니다. 화두를 든다든가 하는 수행을 할 때 지나치게 억지로 용을 쓰면 열기가 머리로 치밀어 오르지요. 이것이 바로 상기인데, 이 증세가 심해지면 정말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 정말 그런 분을 봤거든요. 그게 바로 불기운이 머리로 치민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을 물과 불로 설명하자면 보통 수승화강(水昇火降), 즉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는 물기운이 자리하여 맑고 시원해야 하고, 배는 불기운이 자리 잡아 따뜻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되면 큰 난리지요. 머리는 뜨끈뜨끈하고 배는 차디차고. 그래서 머리는 뜨끈뜨끈, 어지럽고 아프고, 배는 싸늘하여 설사를 찍찍 해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물기운과 불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겪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상의 장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급한 마음에 서두르고 너무 무리해서 용을 쓰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게 한걸음 한걸음 나가려는 자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도가 아닌 수행에서는 빠른 효과가 나는 수행방법을 흔히 택하는데, 어떤 술수를 배워 쉽게 힘을 쓰고자 할 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에 이런 방식이 사용되면 오히려 큰 장애를 불러일으키지요.

편법없는 정도 수행 강조
8가지 풍파 이겨냄 상징
수행 공덕 인한 '조화 회복' 의미

손오공이 술법을 배우고, 여러 요괴들과 사귀던 당시에는 아마도 술수, 술법을 중심으로 했을 것이고, 그러한 수행법이 통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아~ 이 길은 끝이 없는 길~~♪♬"하는 노래가 생각나는, 지고의 목적을 향해 묵묵히 나가야 하는 길이지요. 그러한 길에 속성을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장애입니다. 그 속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용을 쓰면 기운이 몰리고, 그것이 불기운이 되어 위로 쏠리는 것이지요. 불기운이 위로 치밀면 자연 물기운은 아래로 쏠리구요. 수승화강(水昇火降)이 아니라 화승수강(火昇水降)이 되는 것이네요. 이게 바로 수행 과정에서 가장 흔하고도 쉽게 걸리는 장애입니다. 그리고 수행의 끝까지도 조심해야 할 장애이지요. 지금 현장법사 일행이 만난 화염산의 불도 아마 그런 물과 불의 조화가 깨져서 불기운이 앞길을 막아서는 이런 장애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물기운과 불기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지금 이 드센 불기운을 잠재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나찰녀가 가진 파초선입니다. 바람기운을 통해 물기운을 돋우는 신묘한 보배지요. 그런데 참으로 악연인지 이 파초선의 주인 나찰녀는 손오공이 요괴놀음시절 의형으로 삼았던 우마왕의 아내요, 앞에서 손오공을 꽤 괴롭히다 결국 보살가문으로 들어가 선재동자가 된 홍해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요괴 문중에 몸을 두고 있는 나찰녀나 우마왕은 손오공이 곱게 보일 리가 없어요. 잘 지내는 내 아들 별로 생기는 것은 없고 고생스럽기만 한 것 같은 보살문중으로 빼앗기게 만든 고약한 놈이 바로 손오공이거든요. 모든 존재는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나찰녀와, 다음으론 우마왕과 한판의 드잡이질이 있을 수밖에요.

그런데 물기운을 일으키는 파초선의 첫 번째 무시무시한 힘은 바로 바람을 일으키는 데 있어요. 바람기운을 먼저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 물기운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 바람이 어찌나 대단한지 손오공이 한번에 5만 리를 날아가 버리지요. 다행이 날아가 떨어진 곳이 바로 전에 도움 받았던 영길보살의 거처였고, 마침 영길보살이 부처님에게서 받았던 보배로운 약이 있었네요, 정풍단(定風丹), 즉 바람을 저항하는 단약이지요. 이 단약 덕분에 파초선 바람을 저항하고, 꾀를 써서 나찰녀 뱃속으로 들어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일단 파초선을 갈취하지요.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것, 이 대목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수행을 해나갈 때 참으로 어려운 관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팔풍(八風), 즉 여덟 가지 바람의 관문이죠. 팔풍이 뭐냐구요? 이쇠(利衰), 훼예(毁譽), 칭기(稱譏), 고락(苦樂)의 8가지 바람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지요. 이익과 손해, 명예를 얻음과 손상당함, 남의 칭찬과 비난, 괴로움과 즐거움이 바로 여덟 바람이고, 이 여덟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모든 수행의 기초요 참된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덟 가지의 바람에 날리게 되면 시비판단이 흐려지고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손오공이 바람에 날려갔다?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인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여덟 가지 바람의 갈래가 아닐까요? 이 여덟 가지의 바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데, 아직 손오공은 그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도 보통 사람이면 8만 리 이상을 날아가는데 5만 리에 그친 것은 그 동안 수행한 공덕이 있어서라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정풍단입니다. 부처님이 하사하신 정풍단, 바로 부처님의 지혜로 삿된 바람을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틀지지 않을 것이라는, 삼쾌선생의 자신 있는…. 애고 아닙니다. 조심스런 생각입니다. 하하.

정풍단을 먹어 팔풍부동, 즉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지니게 된 손오공이 벌레로 변해 나찰녀 뱃속으로 들어가 난리를 피워서 결국 파초선을 얻어냈지요? 그런데 그 파초선이 가짜 파초선이었지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부쳐댔다가 오히려 불길이 거세게 일어나는 바람에 털만 홀랑 태워먹은 손오공…. 결국 의형이었던 우마왕을 찾아갑니다. 우마왕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앞의 요약 글에서 말씀드렸지요? 나찰녀 버리고 새장가 들어서 알콩달콩, 새 요괴 마누라 옥면공주와 재미있게 살고 있지요. 손오공이 우마왕 찾아 간데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상황을 이용하여 파초선을 빌릴 궁리가 이미 서 있었던 것이지요. 나찰녀는 우마왕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지만, 우마왕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그럴 때 우마왕을 잘 설득하여 나찰녀한테 데려다 주면 나찰녀가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래서 우마왕을 어떻게든 달래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갔는데, 일이 꼬이느라 그랬던지 우마왕이 새살림 차리고 있다는 적뇌산(積雷山) 마운동(摩雲洞)에 도착해서 우연히도 문제의 옥면공주를 만나버립니다. 그 옥면공주 — 나중에 알고보니 줄머리 사향 살쾡이란 이상한 이름을 지닌 짐승의 요정이었지요 — 는 참으로 미인이었어요. 서유기에 나오는 그 형용을 한번 옮겨 볼까요?

나라를 망칠만 한 아리따운 여인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네.
외모는 왕소군(王昭君) 같고
얼굴은 초나라 여인
말할 줄 아는 꽃이런가?
옥돌이 향기를 토하는 듯
굳이 무산(巫山)의 운우(雲雨)를 말할 필요가 있을까?
탁문군(卓文君)보다 설도(薛濤)보다 아름답구나.

여기 미인을 찬탄하는 대목, 이 대목에 미인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 또 대표적인 미인들이 많이 등장하는군요. 경국지색(傾國之色), 왕소군, 무산신녀(巫山神女), 탁문군, 설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딱딱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좀 쉬어도 갈겸, 미인에 대한 삼쾌선생의 해박한 지식도 좀 펼쳐볼 겸, 잠시 미인 이야기 좀 해볼까 하네요. 오호? 오랫동안 조용하시던 나칠계님이 눈을 반짝이시네요?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잠깐 미인 이야기하고 나면 또 나칠계님 졸리는 이야기 나올 테니까요. 하하, 그래도 좋다구요? 나칠계님 좋아하시니 저도 기분 좋군요. 다음 시간에 뵈어요.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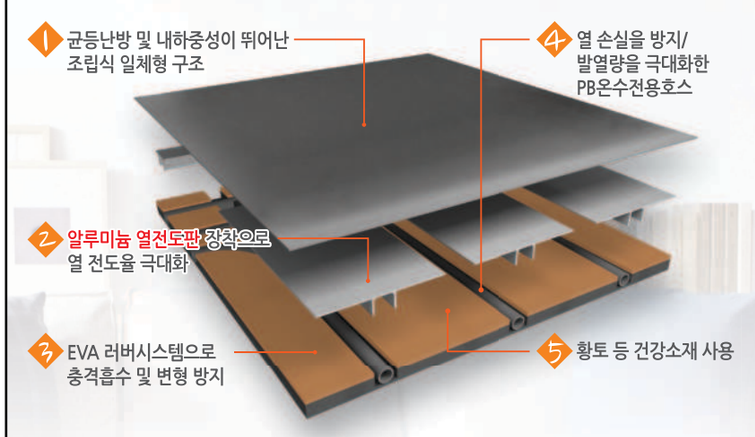
뜨시고 따시고
스님, 불자님
이제 연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조달청등록기업
MBC, KBS 방송광고제품

난방비 50% 이상 절감 / 반영구적 수명
내하중성 최고 / 전자파 Z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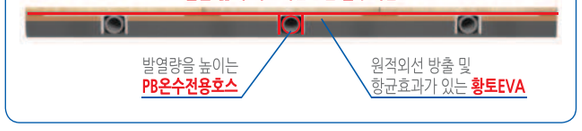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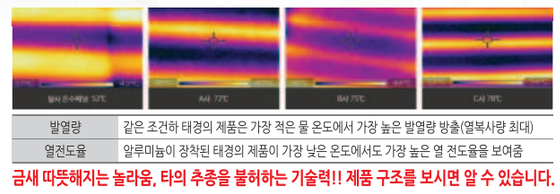
태경에너지 홍보이사 / 배우 이동준



01 황토발포단열 EVA 사용
02 업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56%,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03 알루미늄을 이용한 방열식 온수난방패널 (특허 10-1386923호)
04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제품
05 난방비 50% 이상 절감 (45℃ 이하의 저온수 난방 제품)

열과 하중에 강한 태경에너지 온수난방패널 핵심기술





발열량	같은 조건하 태경의 제품은 가장 적은 물 온도에서 가장 높은 발열량 방출(열복사량 최대)
열전도율	알루미늄이 장착된 태경의 제품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가장 높은 열 전도율을 보여줌

금새 따뜻해지는 놀라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 제품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태경에너지 TAEKYUNG 온수온돌판넬 전문기업
대리점 및 제품구입문의 1833-8404 www.태경에너지.kr
가스, 전기, 기름보일러 등 어디든 사용 가능합니다

禪·武 시작된 본향… 전통·현대의 갈림길에

중국 선종사찰 순례
② 소림사下

굳이 불자가 아니더라도 소림사를 모르는 사람은 현대사회에 없다. 아마 한국인에게도 가장 유명한 중국 사찰을 묻는다면 주저없이 '소림사'를 말할 것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소림사만의 '무술' 때문이다. 소림사 입구에도 강인한 인상의 포권을 한 무승(武僧) 동상이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다. 소림 무술을 배우기 위해 중국인은 물론 전 세계에서 수련생들이 몰려들고 있고, 소림사 주변에만 무술학교 40곳이 성업 중이다. 사설 학원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소림사 소실산 발우봉 능선에 자리한 이조암의 입구. 최근 복원이 새롭게 이뤄졌다. 이곳에서 중국 선종 2조 혜가는 달마에 이어받은 선법을 펼쳤다.



소림사 본찰의 입구.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1년에 7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간다.

선종 역사 담아낸 法의 전당들

불교의 순례자에게는 이렇게 관광화된 소림사보다는 달마대사 9년 면벽굴과 초조암·이조암·탑림·입설정 등이 더욱 눈에 들어왔다. 중국 선종의 근원이 된 수행처를 만날 수 있던 것은 소림사 순례에서 가장 큰 위안이었다.

중국 선종 2조 혜가(慧可, 487~593) 스님은 초조 달마에게서 법을 이은 제자다. 그가 주석한 곳은 스승의 면벽 수행굴, 초조암과 맞은 편 봉우리에 있다. 이조암은 소림사에서 도보로 2시간 걸리는 발우봉의 능선에 있다. 지금은 케이블카를 타고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현재 이조암은 복원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중이다.

혜가가 달마의 선법을 전수받게 되는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하다. 혜가는 본래 신광(神光)이라는 법명을 가진 수행자였고, 일설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유교의 모든 경전에 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마음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해 방황했다.

달마 스님의 명성을 듣게 된 혜가는 법을 얻기 위해 그를 찾았다. 때는 눈이 오던 겨울, 달마에게 전법을 청한 혜가는 서서 움직이지 않고 허락을 기다렸다. 한참 후 달마 스님은 "정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명을 내던지는 각오가 있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자 혜가 스님은 자신의 한쪽 팔을 끊어 눈 위에 던지고 다시 법을 구했다. "제 마음이 아직 편안하지 못합니다. 제발 이 마음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달마 스님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마음을 내게 가져와라. 너의 마음을 안심케 하리라."

여기에서 혜가 스님은 달마 스님의 안심법문을 듣고 안심을 얻게 된다.

이후 법을 전수받은 혜가는 북조시대 무제의 불교 탄압에 맞서 이조암에서 법을 펼쳤고, 3조 승찬에게 법을 전해 법맥을 잇게 했다.


소림사 입구의 무승 동상. 소림사는 중국 무학의 상징이기도 하다.

495년 공사 시작돼 소림사 창건
서역승 불타 주석하며 불법 전해
달마·혜가 머물며 선종 역사 열어
260여 탑이 숲을 이룬 '탑림' 장관

수행 일환으로 파생된 무술 유명
이제는 '사찰 비즈니스'에 활용돼
중뤼그룹과 합작 '주식회사' 변모
관광상품 개발로 세속화 진행


소림사 입설정에 있는 달마 스님과 제자들의 상(像).



이조암 가는 길은 최근 케이블카가 설치돼 쉽게 이동 가능하다.

달마와 혜가 스님의 만남을 기리는 곳은 소림사 본찰 안에 있다. '입설정(立雪亭)'이라고 명명된 이곳은 달마 스님을 중심으로 혜가, 승찬, 도신, 홍인 등 4명의 조사 입상이 양 옆으로 봉안돼 있다. 청나라 강희제의 작품이라는 '설인심주(雪印心珠)' 편액도 눈길을 끈다. '눈 속에 새긴 마음 구슬'이라는 편액에서 자신의 팔을 끊어내서라도 법을 구했던 혜가 스님의 구도심을 상찬했던 강희제의 불심이 느껴진다.

중국 건축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탑림(塔林)도 소림사를 대표하는 유적들이다. 소림사 개산 이후 시대별로 다양한 형태의 탑들이 246개가 조성돼 있다. 달마의 법을 이어낸 고승들의 탑은 선종의 효시가 되는 곳이 소림사임을 말해주고 있다.

중원 武學은 소림서 나왔다

소림사는 불타선사(佛陀禪師)라는 서역 승려가 북위의 효문제의 명으로 495년 공사를 시작하며 창건됐다. 소림사라는 사명(寺名)은 숭산 소실봉(少室峰)의 숲(林)에 자리잡았다고 해서 붙여졌다. 창건 직후 소림사는 인도의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역경처 역할을 했다.

원래 사찰의 구조는 단순했다고 한다. 하지만 왕조가 바뀔 때마다 더욱 웅대해졌다. 현재 구조는 주로 명·청대의 것이 대부분이다.

지금은 패방(牌坊, 일종의 중국 사찰 일주문)인근 주차장에서 내려 소림사 본찰까지 가려면 별도의 버스를 타고 10분 가량 들어가야 한다. 본래의 소림사는 증축이 수차례 이뤄졌지만, 사격이 잘 보존돼 있다. 종루·고루·본전·승방·대웅전·장경각 등이 전 세계에서 온 참배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정교한 벽화로 장엄된 천불전은 눈여겨 볼만 하다.

그렇다면 선종 사찰인 소림사는 왜 무술로 유명해졌을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소림사를 창건한 불타선사는 참선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무술을 도입했고, 이것이 소림 특유의 무술로 발전했다.

이후 무술을 익힌 소림 무승들은 역사적으로 활약하기도 한다. 수나라 문제 시절 극성을 부리던 도적떼를 소림사 무승들이 제압하고, 당나라 초기에는 13명의 무승이 태종 이세민을 도와 수나라 복건 세력인 왕세충을 토벌했다.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진다. 원나라 말기 홍건적이 소림사에 침입했는데, 공양주 소임을 보던 무승이 오로지 곤(棍) 하나로 제압했다. 그는 스스로를 '긴나라왕(緊那羅王)'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긴나라왕의 곤법은 제자 편둔에게 전해지고 편둔은 묘족 땅으로 가서 곤경에 처한 묘족들을 구하고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또한 명나라 시기의 각운이라는 무승은 나한 18수를 응용해 유명한 '소림 72절예'를 완성했고, 제자인 일관은 금나술(擒拿術, 일종의 관절기)과 소림 검술의 대가로 중원에 이름을 알렸다.

이런 역사로 '중국공부경천하(中國功夫驚天下) 천하공부출소림(天下功夫出少林)'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 이는 '중국의 무술은 천하를 놀라게 하고, 천하의 무술은 모두 소림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참선과 함께 무술을 익히도록 한 불타선사는 후대 수행자들의 몸과 마음이 바로 서길 바랐을 것이다. 몸이 바르지 않으면 바른 정신을 유지하기 힘들고, 정신이 바르지 않으면 몸의 행실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禪·武 본향인가 테마파크인가

입구부터 강인한 무승의 동상이 서 있는 소림사는 최근에는 공격적인 쿵푸 마케팅으로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근자 소림사를 향해 '염불보다 잿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1년에 약 7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녀가며, 주위에 성행하고 있는 무술학교 수련생도 2만 명이 넘는다. 입구에는 병장기들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고, 시간에 잘 맞추면 무승들의 무술 시연을 관람할 수 있다. 본찰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관광 지역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소림사의 이런 변화는 현 주지인 스융신 방장의 아이디어다. 그는 경영학 석사(MBA) 출신이기도 하다. 스융신 방장은 홍콩 중뤼그룹·덩평시와 합작해 '강중뤼숭산소림문화관광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쉽게 말하면, 소림사가 '주식회사'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강중뤼'는 관광객을 모집하고 소림사의 각종 수익 사업을 진행하며 벌어들인 수익금 중 30%는 소림사에 환원된다. 소림사는 30%의 수익금과 시정부의 지원금 등을 문화유산 보호와 대외교류, 승려생활 등 사찰 운영의 기본 재원으로 사용한다. 승려와 일부 인원을 제외한 소림사 내 1300명의 인력은 모두 강중뤼 직원이다. 문제는 전체 수익금은 공개되지 않아 얼마만큼의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에는 수익금을 두고 소림사와 '강중뤼' 사이에 마찰도 있었다. 동행한 현지 가이드는 "소림사 승려들이 수익금이 환원되지 않자 시와 홍콩그룹을 상대로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어쩌면 중국 소림사는 자본주의 시대 상업화된 종교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의 대형교회가 영성 비즈니스로 재물을 취한다면, 중국 소림사는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상품화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통과 현대의 갈림길에 서 있는 소림사의 단면 같이 느껴졌다.

중국 숭산=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수행 정진중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흰 구름처럼 무애한 '동방의 大시인'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⑦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이규보(李奎報)는 한글 이전의 시대에 태어나 한문으로 시를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문학사에서 널리 각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일찍이 서거정(徐居正)은 그를 가리켜 '동방의 시호(詩豪)는 오직 이규보 한 사람 뿐'이라고 말했다. 이규보는 1168년 12월 16일, 호부낭중 이윤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초명(初名)은 인저(仁低)였다. 아홉 살에 이미 글짓기를 잘해서 11살 때 숙부가 이를 자랑하며 낭관(郎官)들에게 시험해 볼 것을 권하자 그에게 '지(紙)' 자를 운(韻)으로 주어 연구(聯句)를 짓게 하였다.

紙路長行毛學士 지로장행모학사
종이 길에는 줄곧 모학사(붓)가 지나가고
盃心常在鞠先生 배심상재국선생
술잔 속에는 늘 국선생(누룩)이 들어 있네.

'지(紙)' 자에 맞춰 붓을 연상한 것인데, 이 대구(對句)로 술잔을 이은 것은 11살의 어린 나이로는 사뭇 엉뚱하기조차 하다. 후에 시와 술, 거문고를 좋아하여 삼혹호(三酷好) 선생이라 불렸던 것도 우연만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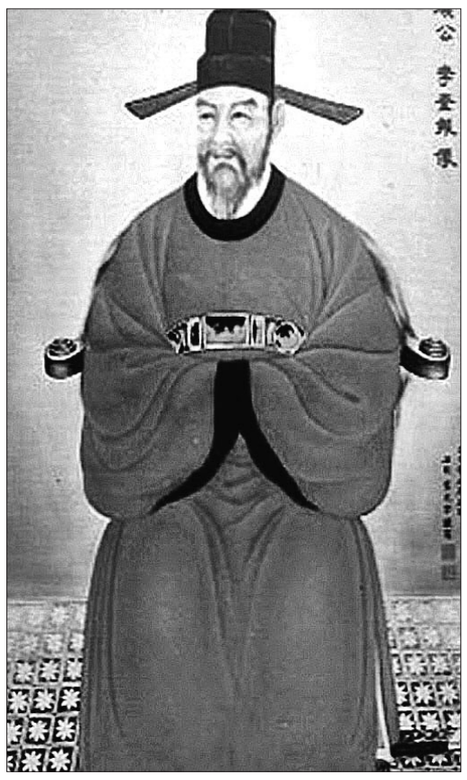
그는 벼슬을 얻기 위해 문학을 이용하였으며 감사의 표시로 또 문학을 앞세웠으니 한림이란 벼슬을 얻은 것은 최충헌의 '모정기(茅亭記)'를 써서였고, 최충헌의 앞에서 '공작(孔雀)'을 써서 사재승(司宰丞)이란 벼슬을 받기도 했다. 이후 계속하여 벼슬이 올라 그의 만년에는 최고의 지위인 상국(相國)에까지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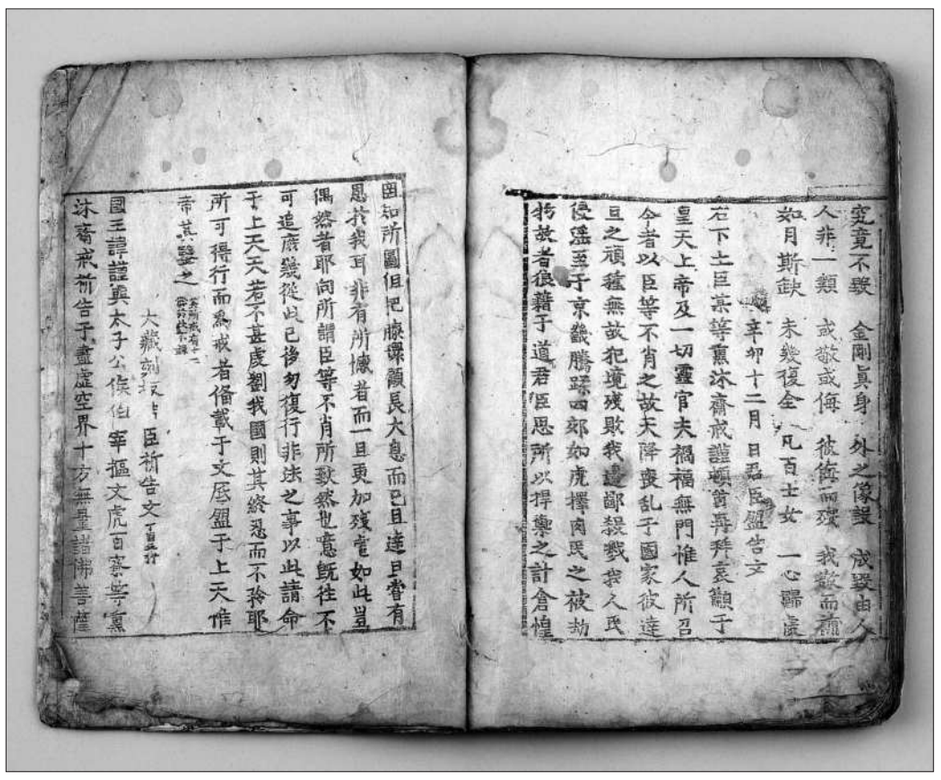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은 그가 쓴 일생 일대의 역작이다. 이 책에 수록된 '동명왕편(東明王篇)'은 고구려 건국신화로 웅대한 민족서사시다. 우리나라는 성인(聖人)이 창시한 나라임을 알림과 동시에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는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하였다. 또한 몽고군이 침입해왔을 때는 '진정표(陳情表)'를 써서 몽고의 대군을 물러나게 한 명문장가이기도 하다. 그가 몽고에 보내는 외교문서 등을 전담한 것은 문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며, 그의 문학적 재능은 언제 어디서든 나라를 위한 쓰임을 받았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이문화국(以文華國)'의 뜻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국이상국집〉은 전집 41권인데, 1권부터 18권까지는 시집이고 19권부터는 잡저(雜著), 설(說), 기(記), 서(序) 등의 수필들이 수록돼 있다.

고려조 가전체(假傳體) 문학으로, 술을 의인화하여 정사를 돌보지 않는 군주를 비판하면서 술로 인한 폐해를 고발한 〈국선생전(麴先生傳)〉이라든지, 거북이를 의인화한 〈청강사자현부전(淸江使者玄夫傳)〉은 속된 무리와 아첨배를 꾸짖고 있다.

특히 이규보의 '설'은 모두 예리한 비판과 심오한 철학을 지니고 있어 수필로서 격조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주뢰설(舟賂說)', '경설(鏡說)', '슬견설(蝨犬說)' 등은 좋은 예이다. '주뢰설'은 뇌물과 청탁으로 얼룩진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며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동방의 시호'라고 불리었던 이규보의 진영(사진 왼쪽)과 그의 평생 역작인 〈동국이상국집(사진 오른쪽)〉.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을 통해 역사 기술부터 시, 수필 등 명문장을 전하고 있다.

한참 가다 보니 옆에서 떠난 배는 나는 듯이 달아나서 벌써 저쪽 기슭에 닿았는데, 내가 탄 배는 오히려 머뭇거리며 시원스럽게 달리지 않고 있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까닭을 물었더니, "저 배에 탄 손님은 사공에게 술을 먹여서 사공이 있는 힘을 다하여 저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조그마한 갈댓잎 같은 배가 가는 데에도 뇌물이 있고 없는 데 따라 빠르고 느리고, 앞서고 뒤서는데, 하물며 벼슬길에서 경쟁하는 마당에 내 손에 돈이 없었으니 오늘날까지 하급 관리 하나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구나." - '주뢰설' 중에서

어느 날 그는 큰 몽둥이로 개를 때려죽이는 것에 경악한 젊은이에게 불꽃 이글거리는 화로를 끼고 앉아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에 비교하며 생명의 차등 없음을 설파한다.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말·돼지·양·벌레·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찌 큰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중략〉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大鵬)과 동일시하도록 해보십시오.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道)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슬견설' 중에서

시·술·거문고 좋아했던 시대의 문호
저서 〈동국이상국집〉 필생의 역작
1~18권 時, 19~41권 수필 등 수록
기술한 수필·시 심오한 사유를 담아
연기설 근거한 '空' 사상 작품 곳곳에

달팽이의 뿔과 소의 뿔을 대소(大小)에 상관없이 같이 보고 메추리나 대붕을 동일하게 보며 개의 죽음이나 이의 죽음을 같이 보라는 평등사상과 생명의 존엄성은 불교의 자비사상에 원천한다.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이에 견주어 개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고 깨우친다.

그의 작품 중 불교사상이 비교적 잘 드러난 작품은 '슬견설', '조물주에게 묻는다(問造物)'라는 수필을 꼽을 수 있다. '조물주에게 묻는다'에서 작가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미워한 나머지 인간을 없애기 위해서 호랑이, 곰, 늑대,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냐고 그에게 따져 묻는다. 조물주는 이렇게 답한다.

"그대가 묻는 바, 사람과 물건이 나는 것은 모두 아득한 태초부터 미리 정해진 질서에 따라 자연히 생기는 것이니 하늘이 알지 못하고 조물주도 역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릇 사람이란 제 스스로가 태어날 뿐이지 하늘이 냄이 아니며, 오곡과 뽕나무, 삼들도 제 스스로 난 것이요 하늘이 낸 것이 아니로다. 하물며 어찌 이로운 것과 독한 것을 분별하여 일부러 사람을 이롭게 또는 괴롭게 하겠는가. 오직 도(道)가 있는 사람은 이로움이 온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독이 온다고 해서 구태여 꺼리지 않는 법이다. 그는 공허한 자세로 물건을 대하기 때문에 물건이 또한 그를 해치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 만물은 스스로 나서 스스로 변하는 것이라 그것은 조물주도 하늘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롭다 해롭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일 뿐 우주자연은 무위자연, 즉,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매사를 인간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득실의 공리로 자연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이는 인간을 위해 모든 자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해충일지라도 인간과 공존할 자격이 있다는 즉 불교의 '만물은 여아동근(汝我同根), 너와 나는 한 뿌리'라는 평등사상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다.

퇴임 후에 그는 "가야금을 타고 두강주를 마시며 백락천(白樂天)의 시를 음미하는 것으로써 속진을 씻어내고 〈능엄경〉을 외워 정업(淨業)을 닦으리라"고 하였다.

수필뿐 아니라 그의 시(詩)에서도 불교와 연관된 작품이 상당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진영은 그의 저서 〈이규보 문학연구(집문당, 1984)〉에서 승려들과의 교유관계로 산출된 시를 비롯하여 불교와 관련된 시가 250여 수나 된다고 밝혔다.

이규보가 접한 불교는 물론 대승불교이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사상은 연기설에 근거한 '공사상(空思想)'이다. 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그 정서를 문학적으로 표출하는 시(詩)라고 불교시의 개념을 정의할 때, 불교적 사유의 핵심에는 대승불교의 공사상이 있다. 다음 시에서 그러한 인식론적 사유를 읽을 수 있다.

이끼 덮인 바위틈 맑은 우물에
방금 떠오른 예쁜 달이 또렷이 비쳐 있네.
물 길은 항아리에도 떠 있는 반쪽그림자는
둥근달을 반쪽만 건져 가는 건 아닌지
'저녁나절 산사의 우물에 비친 달을 노래하다
(山夕詠井中月 二首)'

저녁나절, 산사 앞산에 막 달이 떠올랐는데, 마침 반달이었던 모양이다. 달은 절에서 물을 길어다 쓰는 맑은 우물에도 비쳐서 바람을 따라 잔물결 지는 물결 위에 예쁜 자태를 하늘거린다. 시인은 그로부터 달의 원래 모습인 둥근 달을 떠올린다. 달은 모습을 바꾸어 초승달로 떠오르든 반달로 떠오르든 본 모양은 둥근 모양이 아니던가? 그것을 잠시 잊고 눈에 보이는 형상에만 매달려 반쪽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해 보는 것이다.

다음 시에서는 물 긷는 산승을 통해 공적(空的) 사유를 전개한다.

산승이 달빛을 탐내어
물 한 동이에 달을 함께 길었네.
절에 가서야 알게 되겠지
물 쏟아내면 달도 따라서 없어지는 줄을.

시인은 달빛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실체가 아니고 물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거듭 환기시키기 위해 우물물뿐 아니라 물동이에 비친 달까지 동원한 것이지 싶다. 하늘의 달과 우물에 비친 달에서 보이는 달과 우물물과의 관계는 물동이에 길은 물에 비친 달과 물동이 속 물과의 관계에서와 같이 서로를 의지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불교의 연기론(緣起論)에 닿아 있기도 하다.

대승불교의 중심사상인 공(空)과 연기(緣起)를 그는 이 시로써 간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24세 때 부친상을 당하자 천마산에 우거하며 백운거사(白雲居士)라 자호하고 구름처럼 얽매이지 않고, 오고 가는 데 미련이 없으니 그 또한 통달이 아니겠는가고 걸림 없는 무애의 정신을 표방하며 〈백운거사어록〉 등의 작품을 지었다.

또한 자신의 집을 남헌(南軒)이라 칭하고 〈능가경〉, 〈능엄경〉 등을 읽으며 백낙천(白樂天)의 시를 즐겨 읽고, 시·술·거문고에 의탁하여 육신의 노쇠를 잊고 도의 세계에서 노닐고자 하였다. 1241년 9월 2일, 천도지인 강화에서 하세(下世)하니 나라에서는 문순공(文順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는 붓 하나로 나라의 위기에 보답하고 백운(白雲)처럼 무애(無碍)의 삶을 실천하였으며, 〈동국이상국집〉 외에 〈백운소설〉과 문집에 2천여 수의 시를 남겼다. 과연 서거정의 말대로 '동방의 시호'라고 칭할 만 하다.



김대원 시인, 수필가

봉 (사)범불교조계종 창종 수계 대법회 및 종도 모집 축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등록번호 : 191321-0001925

불기 2560(2016)년 10월 29일 (음, 9월 29일) 토요일

총본산 : 금오산 해인사 (경남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577번지 / 055-351-3689)

총무원장 범성 대명 010-3193-3689

종도 모집 안내

❶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전법사 등록신청서 -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 1부
- 법당사진(내, 외) - 1부 / 사찰 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 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반 명함판 사진 4매
- 계좌번호 : 농협 351-0902-3064-63 / (사)범불교조계종

❷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전법사,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사)범불교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 관리 감독은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일체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사)범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범성 대명

전통유과 팔아 어려운 이웃 도와…

道伴의 향기

(주)공덕 마을기업 도반들

(주)공덕은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서 수탁 운영중인 공창종합사회복지관서 만든 마을기업이다. 전통유과와 쌀조청, 무조청 등 다양한 식제품을 생산하며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된 부산 금곡동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공덕'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은 전통 식품 만드는 일 뿐 아니라 아파트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과 도시락 만들기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수행에 임하고 있다.

부산=하성미 기자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자 중 매월 2명이 바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나온다고 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대부분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 주민, 장애인 등 소외계층. 이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로 희망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공덕 마을기업에서 활동하는 도반들이다. 10월 6일 부산 금곡동에 위치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나눔에 앞장서는 공덕의 주인공들을 만났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원칙

아파트에는 외로움과 절망의 분위기가 흘렀다. 1100세대 중 독거어르신이 600세대에 달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장애인 가정으로 이뤄져 있었다. 아파트 중간에 위치한 상가에는 벌써 술판이다. 낮부터 술을 마시고 앉은 그들에게는 무기력함이 전달됐다.

"알콜중독자입니다. 그래도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싸우는 일이 대다수인데 많이 사라진 편이죠. 여기 상가도 많이 밝아지고 정리 됐어요. 그 전에는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어둡고 정리가 안 되서 찾는 이가 없었죠."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상가 2층에 위치한 '(주)공덕'을 향해 들어갔다. 밖에 무기력한 모습과는 달리 열심히 전통식품 유과를 만드는 손길로 분주하다. 일에 집중하는 모습에 말을 걸기도 쉽지 않다.

'공덕'은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이 운영하는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태동 된 마을기업이다. 매일 쌀과 엿기름으로 쌀조청을 만들어 유과와 강정, 견과류 영양바, 무조청 등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다.

부산 금곡동 영구임대아파트 한 가운데 위치한 '공덕'에서 바삐 손을 움직이던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 살짝 웃는다. 바쁜 손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담았고 눈빛은 자비로 가득 차 있다.

어르신들은 웃음을 담아 기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부처님 말씀 전하는 기자냐?"며 반갑게 손을 잡아 준다. 절망감과 무기력함이 느껴졌던 영구임대아파트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어떻게 조청을 만드냐'는 질문에 그들은 '원칙'을 내세웠다. 이익보다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바른 먹거리에 정직함을 더한다는 묵직한 원칙은 2013년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

"엿기름을 40% 정도를 넣어요. 그 수치가 가장 맛있기 때문이죠. 전혀 설탕도 안 넣고 제작하니 사실 기업적 이익으론 크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40%에서 조금만 줄이자면 사실 보살님들이 펄펄 뛰어요"라고 박신자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설명을 이어갔다.

"방부제도 일체 넣지 않아 관리도 쉽지 않아요. 이 원칙은 이사장이신 명현 스님과 이곳에 문을 열 때 함께 시작하신 분들의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하시는 이분들이 더 힘드실 텐데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조청에 들어간 엿기름의 양이 타사는 5% 혹은 많으면 10%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 원칙을 고수하고 정성을 다하기에 성장도 느렸다.

마을 기업 '공덕' 신화

유과 등 판매해 수익 창출

저소득층 일거리 제공

원리원칙 고수해 맞춤 생산

수행=생산 함께하는 공동체

"처음에는 만들어 수좌 스님들과 여러 사찰에 공양을 많이 올렸어요. 그 때는 이익 창출보다는 이곳에 일자리를 만들고 좀 더 활기차게 활동하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이었어요. 당시 공창복지관에 쌀도 많고 급식 후 밥도 있어서 이것을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구요. 그 때 봉사자로 활동하시던 이분들이 적극 아이디어를 제안하셨어요."

박신자 관장은 시작 당시 취지를 설명하며 희망을 위한 마을기업이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녹록지 않았다고 했다.

"어르신들이 어릴 적 경험들은 있으셨지만 이것을 정확한 수치로 계산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 착오를 거쳐야 했어요. 전문교육까지 따로 받고 오셔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공덕'에서 만든 제품들은 롯데 동부산점을 비롯해 하나로마트, 하회마을 등 유통업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입소문이 나 수요가 늘어 매년마다 명절에는 300여명의 일손이 붙어 작업을 거들어야 할 정도다.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기에 밤잠을 줄여야 하지만 작업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은 원칙을 놓지 않는다.

책임을 맡고 있는 하성례(69) 보살은 "명절에는 쌀 20kg 50개를 사용해요. 1000kg을 사용하니 엄청난 양이죠. 고아서 강정과 유과에 바르고 하루 종일 튀기고 바르는 일을 반복해요. 일이 고되서 쉬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하루를 마무리 할 때 떳떳하고 싶어요. 매일 밤 스스로 부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 볼 때 바르게 살았는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고 싶은거죠. 그 원칙은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작은 원칙이라고 해도 정직하게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담금질하는 조청, 세상 밝게

조청을 만드는 일이 쉬워 보이지 않았다. 찐득해진 엿기름을 뜨거운 불 위에서 큰 주걱으로 젓는 건 힘이 넘치는 청년들이 붙어 해도 어깨가 떨어 질 듯 아플 듯 하다.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하성례 불자는 "일을 하지만 일이 아니죠. 일과 수행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힘이 든다고 수행을 안 할 건가요? 절을 할 때 올라올 때 숨을 마시고 내려갈 때 숨을 내쉬듯 일이란 당연한 거죠. 단지 육체적으론 힘이 들지는 모르지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할 뿐이죠. 저희에겐 수행이 됩니다"라고 답했다.

장재필(79) 불자도 힘들기보단 오히려 힘을 얻는다고 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이곳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져서인지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아픈 곳도 사라졌어요. 시간도 잘 가고 하루하루 힘이 넘칩니다."

'공덕'은 단순한 마을 기업을 넘어 사랑방이 되고 있었다. 부산 금곡동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 된 곳으로 유명하다.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곳에는 1100세대 가운데 독거노인이 600명 그리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 하고

잘하는 명상은 나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병이나, 괴로움, 번민 등은 모두 자연법칙을 위배하는데서 일어납니다.
명상을 통하여 모든 자연법칙들의 근원인 순수의식을 확립하면
마음과 몸은 자동적으로 단단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여 생리계통이 바뀌게 되며, 그후 문제 없고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빠르게 발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 첫째주 (토요일) : 나를 귀하게 하는 명상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 둘째주 (토요일) : 자기 능력을 일깨우는 창조명상〈취업준비 직장인 및 상업인, 사업인 등〉
◆ 셋째주 (토요일) : 사랑을 얻는 행복명상 〈결혼, 이혼, 재혼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 넷째주 (토요일) : 귀한 자녀를 얻는 태교명상
〈뇌세포의 70%는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 지며, 스트레스는 태아의 뇌 크기를 줄인다〉

◆ 문 의 : 작은 마음선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
◆ 전 화 : 010-8673-7558 / 010-5658-2657 / 031-335-2568
◆ 매주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삶에 대하여 …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자신을 키우고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보세요.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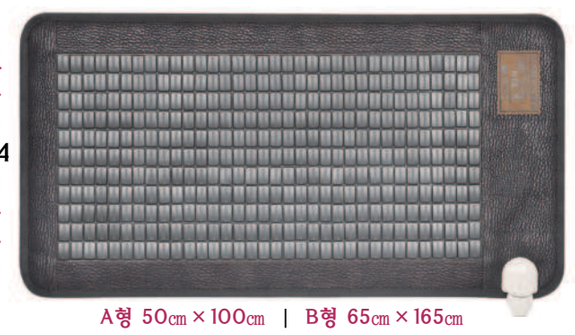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좋은 음식 만드는 것이 ‘공덕’”



공덕 도반들이 복지관에서 몸이 편치 않은 어르신을 위한 위로와 격려 봉사활동을 펼치는 모습. 이들은 물품 생산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덕 소속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전 부처님께 기도하는 모습.



공덕 도반들이 제품 포장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수익금은 복지관 무료급식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쓰인다.

있다. 그곳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폐지를 줍고 미용실에서 머리에 감는 종이를 펴며 일당으로 2000원, 3000원 등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공덕’에 들러 일을 돕고 행복해한다.

“사랑방이 되는 거죠. 그냥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야기를 풀어내며 함께 웃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공간이 이 아파트 가운데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된다는 어르신들이 있을 정도예요.”

박신자 관장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그곳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했다. 희망을 주는 거점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공덕’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불심으로 모여 봉사로 회향

‘공덕’에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은 모두 불자로 지금 이사장인 명현 스님과 초대 이사장 심산 스님과의 인연으로 이곳을 찾았다. 특히 하성례 불자는 ‘공덕’ 뿐 아니라 1994년 12월 공창사회종합복지관이 문을 열 때부터 함께 활동했다.

“처음에 부산 부전동에 있는 불지사 포교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주지 스님이 지금 홍법사의 심산 스님이셨는데 개관을 하신다는 소식과 함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발을 들였죠.”

처음 개관할 때부터 하성례 불자는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일 300여명의 독거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을 도왔다.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설 지혜어린이 집에 이어 무료급식까지 소외 받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22년간 묵묵히 봉사하고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공덕도반들은 매일 복지관에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 직원을 불러 예불을 집전한다. 간단히 삼귀의와 반야심경으로 문을 연 하루는 직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보람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박선희 공창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하루에 한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제가 하는 일이 어떤 보람이 있는지 되새기는 것은 큰 힘이 된다. 희망이 없고 암울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목탁을 들고 조례를 하는 모습을 뵈면 정말 감사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신자 관장은 “아침 조회를 예불로 드린다.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며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신 어르신들과 식구들이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한다. 업무 때문에 하루 빠지면 제 스스로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 조심스럽다. 여기 보살님들은 예불에 빠짐이 없다. 이분들은 봉사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저희에게는 언제나 스승처럼 느껴진다”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수행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밑받침이 된다는 것이다.

하성례 불자는 매일 새벽 늦어도 3시에는 일어난다고 했다. 일이 고되어 고단한 하루에도 변함이 없다. 혼자 수행을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지관에 나온다. 하루 일과를 그 누구보다 일찍 시작하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을 켜두고 일을 마무리한다.

소외계층돕기 ‘앞장’

300여 어르신 복지관서 무료급식

22년간 지역 봉사 꾸준히 진행

“부처님 가르침 실천이 곧 불교”

“처음 이곳에 오기 전에는 출가를 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온 후 승속이 따로 없다는 생각과 함께 일에 매진하고 집중했습니다. 힘들다 고되다 그런 생각조차도 별로 들지 않았죠. 그냥 할 뿐입니다.”

하성례 불자의 3천배 수행은 이미 복지관 내에서 유명하다. 3천배를 범어사 대웅전과 백련암 등에서 하루 만에 마치고 돌아와 다시 일에 매진했던 것이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복지관 직원이 “하성례 보살님이 안 계시면 안 될 정도다”고 한마디 더 거든다.

양념통이 어디 있는지 숟가락통 위치까지 그리고 다음 날 반찬까지 소소한 것도 다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문 영양사와 요리사가 있지만 오래 봉사 활동한 하성례 보살의 진두지휘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순남(74) 불자도 지금 이사장인 명현 스님과의 인연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명현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양산 천성산 가사암에서 공부를 했어요. 스님께서 어느 날 복지관에 조리사가 있지만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매일 독거 어르신 300분이 와서 식사를 하신다는데 당연히 일손이 부족할 거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할 것도 없이 이곳에 와서 일을 돕고 있죠.”

매일 300명의 무료급식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이상이다. 도시락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락 배달을 위해 아파트 곳곳에 다니며 문을 두드리는 것도 이분들은 함께 한다. 하순남 불자는 설명을 이어가며 함박웃음 지었다.

“이 나이에 보람된 일을 한다는 것은 저 자신을 가치 있게 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계신 곳에서 함께 머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기쁘지 않다면 그게 불자이겠습니까?”라며 웃음 가득한 얼굴로 다시 반문했다.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은 공창사회종합복지관을 운영 수탁하고 있다. 법인 공덕향은 ‘자비와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공덕이 내리는 마을, 곧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설립되었다’ 고 스스로를 정의했다.

보살님들에게 이 취지를 알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알지요”라며 짧게 답한다. “그래서 이렇게 살죠”라고 답하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직 인터뷰가 안 끝났다고 붙들자 “미안하다. 복지관에 열무김치를 담아야 해서”라며 급히 자리를 뜬다. 유과 만드는 일을 마치자 마자 그들은 다시 복지관 부엌으로 향했다.

“공덕은 실천하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그 말 외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라며 손을 흔드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실천을 통한 공덕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발원해 본다.

전법일기

“미안하다 사랑한다”

지난여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인연들을 위해 배를 타고 사고해역 근처로 나가 법회를 본 날이다. 지금껏 기억에 또 기억을 더했지만, 지금부터는 하나씩 덜어내 본다. ‘기억의 무게로 인해 물속에 잠긴 배가 뜨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이후, 수많은 이들의 무지와 탐욕으로 가라앉은 배이기에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도 혹시나 욕심으로 바뀌어 무게를 더하지는 않을까 염려됐다. 사실 이런 마음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실이 물위로 떠오를 것이다.

사고해역에서 열리는 해상법회는 처음이다. 인양작업에 관심과 힘이 되기 위해 팽목항에서 스무 명 정도 탈 수 있는 배를 빌렸다. 처음엔 더 많은 이들이 타려했지만, “규정입니다”라는 해경의 말을 듣고 나머지 인원은 마음만 싣기로 했다. ‘그래, 세월호도 그렇게 규정대로 했으면 좋았으련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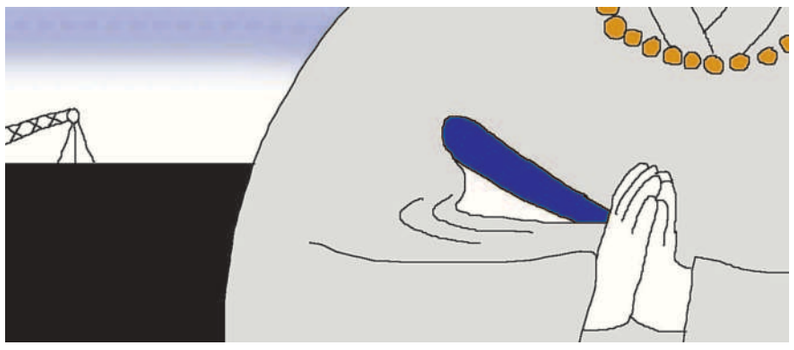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뱃고동소리와 함께 수많은 물음을 싣고, 깊은 침묵으로 잠자고 있는 세월호의 대답을 들으러 일렁이는 파도를 넘었다. 배 한편에 실린 그물코에는 아직 수습되지 못한 얼굴들이 밟힌다.

1시간쯤 달려왔을까? 드디어 저만치 세월호를 인양하려는 바지선이 보였다. 기도소리가 파도소리보다 커지기 시작했다. 가까이 가서 물이 맑으면 뭐라도 보이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물빛은 뿌옇기만 하다. ‘여기 이쯤이겠지….’

선장님은 더 이상 갈 수 없단다. 배가 멈추자 세상이 고요해졌다. 두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멈춘 상태에서 눈만 깜빡이고 있기에 주변에 가득한 슬픔이 눈에 닿아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다들 숙연해졌다. 눈을 감아 조속하고 원만한 인양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바다가 쓰레기와 죽은 것들을 육지로 보내는 것처럼 거짓과 위선들도 이제 돌려보낼 때가 왔다. 썩고 부패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월호는 아직 죽지 않았기에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았는가보다. 2년이 넘게 그 차갑고 거친 물속에서도 탐욕의 불이 식지 않았다. 거대한 욕망은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북소리에 맞춰 부르기만 하면 대답할 것 같았고 해결해주실 거라 믿었다. 파도가 거칠수록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세월호까지 닿을 기세로 힘차게! 하지만 대답이 없다. 망망대해에 오직 부르는 이만 있을 뿐!

각자 부르는 이와 한참을 마주하니 파도가 잔잔해진다. 이렇게 파도가 잦아지고 맑아져서 인양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간절히 두 손 모아 기원했다. 그러려면 우리 먼저 물을 흐리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바람이 분다. ‘그래 이제 나가자.’

검은 바다는 우리들을 먼저 육지로 돌려보내려 하는 것 같았다. 세월호 인양선 주위를 감싸며 뱃머리를 돌린다. 기도 내내 대답하시느라 지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희망을 맞을 준비하러 팽목항으로 돌아갔다.

“만일 큰 물속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느니라.”(관세음보살보문품 中)

2014년 4월 16일은 수요일이었다. 그 이후 나는 수요일이 될 때마다 ‘오늘은 욕심의 불을 지혜의 물로 끄기 위한 날’이라고 스스로 정해두었다. 이제는 진짜 愁了日(수요일: 근심을 마치는 날)을 맞고 싶다. 서둘러 준비하자. 우리는 세월호의 민낯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 사실 그 욕망들도 우리들이 만든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기억하자. 잊지 말자” 대신 오늘은 욕망과 진실사이에서 이렇게 외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금 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대북



◀ 태징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한불교 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원 문재현 선사님 82권째 서적 출간!



화엄경6권
화엄경 전자책 1권부터 5권까지 무료 공개!!
신간!
www.zenparadise.com 에 다운로드 방법 공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고,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을 완역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 하신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법성게 3개국어판
신간!
법성게는 한마디로 화엄경의 핵심부를 훤출히 드러내놓은 게송으로 짧은 글 속에 일체 법을 고스란히 담아 놓았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통쾌한 법성게 법문이 한영중 3개국어로 출간되었다.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선지식들 주석, 기신론 더욱 풍부해져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고래(古來)로 기신론에 대한 주석서가 많이 나왔다. 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한 · 중 · 일 동양 삼국에서 간행된 기신론 주석서가 200여 종에 달하고 특히 불교학이 발달된 일본에서 간행된 기신론 연구서만 하여도 최근까지 200여 종이 넘는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는 것은 바로 기신론이 대승불교의 중요한 텍스트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최초의 기신론 주석서는 중국의 수(隋)나라 때 담연(曇延, 516~588)이 지은 〈대승기신론의소(大乘起信論義疏)〉이다. 그는 처음 〈열반경〉 연구에 몰두하여 〈열반경소〉를 짓기도 하였는데, 잠을 자다 꿈에서 마명을 만났다는 설화가 있다. 꿈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 그에게 〈열반경〉의 근본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을 담연은 마명보살이라 생각하여 그가 〈기신론〉의 저자임을 믿고서, 〈열반경〉의 대의와 〈기신론〉의 대의가 서로 상통함을 발견하고 기신론의 소를 짓는 실마리를 찾아냈다고 한다.

〈열반경〉의 중요한 대의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일체중생실유불성설(一切衆生悉有佛性說)'이다. 이는 기신론의 진여설과 그대로 상통하는 내용이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열반경과 기신론을 통하여 당시 중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소개된 것이다. 담연에 의하여 기신론의 가르침이 당시 중국 사회에 많이 퍼지게 되었다.

담연은 북주(北周) 문제(文帝)의 귀의를 받아 한 때 국통(國統)으로 있었던 스님이다. 그러나 후에 무제(武帝)의 폐불사태(廢佛事態)가 일어나 태행산(太行山)에 숨어 지내기도 한다. 이때 그는 기신론의 서문인 귀명게를 읽으며, 불교가 쇠망할까 안타까워하여 불교 중흥의 의지를 다지며, 불교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구하면서 법을 펴고자 하는 서원을 세웠다.

그러다가 수나라 문제 때 황제를 만나 불교를 부흥시켜 주기를 청하였는데, 황제가 그를 신임하여 불교의 승려들을 지도하게 하게 한 적이 있다. 그가 지은 〈열반경소〉는 일부분만 전해지고 〈기신론소〉는 상 · 하 2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권이 없어지고 현재 상권만 전해지고 있다.

담연과 같은 시대의 지개(智愷, 518~568)도 〈기신론소〉를 지었다. 그는

6~20세기 기신론 주석 200종
대승불교 중요 論書임을 입증

기신론의 주(註)와 소(疏), 그리고 〈일심이문대의(一心二門大義)〉, 〈소주본교합(疏註本校合)〉 등 4개의 저술을 했다고 하지만 대각국사 의천이 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목록〉에 이름만 남아 전할 뿐이다.

혜원(慧遠, 523~592)이 지은 〈대승기신론의소〉는 예로부터 여러 소들 가운데 '삼대소(三大疏)'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소로 알려져 왔다.

똑같은 이름의 〈대승기신론의소〉를 당(唐)의 화엄 2조 지엄(智儼, 602~668)이 지은 것도 있었지만 남아 전하지 않는다. 세 사람의 소(疏) 이름이 같았다는 것이다. 혜원은 원래 선법(禪法)을 열심히 닦아 이름이 알려진 승조(僧稠, 480~560)의 제자였다. 승조는 달마가 중국에 오기 이전의 선법인 선관(禪觀)을 닦아 선승으로 이름나 있던 스님이었다. 이 승조에게 와서 법을 구한 혜원이 선관을 닦다가 기신론의 '심진여(心眞如)'라는 말에 매료되어, 관법 중에 진여의 의미를 깊이 음미하고 일체 망념이 없어지면 그것이 바로 진여라는 것을 터득하였다 한다. 그의 〈기신론소〉에는 "심법 가운데 망(妄)이 없어진 것을 진(眞)이라 한다"는 구절이 있다.

혜원은 한때 경전을 열심히 독송하였는데, 〈법화경〉과 〈유마경〉을 1000번씩 읽었다 한다. 그렇게 경을 열심히 수지독송하고 호법의 서원을 크게 세워, 북제(北齊)를 멸망시킨 북주(北周)의 무제(武帝)가 폐불정책을 펴 불교를 탄압할 때 무제에게 불교를 탄압하지 말 것을 충고하였다. 어느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하던 불교 탄압 중지를 결연히 요청해 주위를 감동케 했다는 것이다.

재물이 있어도 자비심이 없다면…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㊶ 재물 보시에 대한 설법

財物施品第九(재물시품제구)

如有二人。一則大富。一則貧窮。有乞者來。如是二人俱懷苦惱。有財物者懼其求索。無財物者我當云何得少財物與之。如是二人憂苦雖同果報各異。悲惱念者生天人中受無量樂。慳貪者生餓鬼中受無量苦。若菩薩有悲愍心於前眾生便為具足。況復與少物。如人大富多有財寶。隨意而用心生歡樂。菩薩悲心念施憂惱過於是人百千萬倍。有悲心者無有財物。見人乞時不忍言無悲苦墮淚。見苦惱者不能墮淚。何得名為修行悲者。勝者設聞他苦尚不能堪忍。況復眼見他苦惱而不救濟者。無有是處。(여유이인。일즉대부。일즉빈궁。유걸자래。여시이인구회고뇌。유재물자구기구색。무재물자아당운하득소재물여지。여시이인우고수동과보각이。비뇌념자생천인중수무량락。간탐자생아귀중수무량고。약보살유비민심어전중생변위구족。황부여소물。여인대부다유재보。수의이용심생환락。보살비심념시우뇌과어시인백천만배。유비심자무유재물。견인걸시불인언무비고타루。견고뇌자불능타루。하득명위수행비자。승자설문타고상불능감인。황부안견타고뇌이불구제자。무유시처。)

번역

재물 보시에 대한 품 제9

가령,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부자고 한 명은 가난하였습니다. 구걸하는 이가 왔는데 이 두 사람은 마음에 괴로움과 번뇌가 생겼습니다. 재물이 있는 이는 구하고 찾을까봐 두려워하고, 재물이 없는 이는 내가 마땅히 어떻게 적은 재물이라도 줄 수 있을까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 근심과 괴로움은 비록 같지만 과보는 각기 다릅니다. 자비심으로 괴로워하는 이는 하늘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량없는 즐거움을 받게 됩니다. 아끼고 탐욕스런 이는 아귀로 태어나서 무량한 고통을 받습니다. 만약 보살이 중생 앞에서 자비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췄다면 하물며 적은 재물을 주었어도 큰 부자가 많은 재물과 보화를 가진 것과 같아서 뜻에 따라 쓰고,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보시하려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 사람보다 백천만 배나 뛰어납니다. 자비심이 있는 이는 재물이 없어도 구걸하는 이를 봤을 때 자비심으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며, 고통과 괴로운 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물며 자비심을 수행한다고 부르는 이와 수승한 이가 가령 타인의 고통을 들으면 어찌 감내하며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다시 눈으로 타인의 고뇌를 보고 구제하지 않는 일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해설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인가? 법성이라는 것이 세상의 근본을 이르는 말이니, 근본이야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래서 법성은 원융하여 다른 모습이 없다고 하는 것이리라. 내 마음 따라 구분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의 세상에 살고 있다. 먹을 것도 분별해서 먹고, 입을 것도 분별해서 입고, 잠자리도 분별해서 거처한다.

그런데 법성의 자리와 현상의 자리를 혼동하면 이사무애(理事無碍)가 아니라 법성의 이치와 현상의 이치에 장애가 생긴다.

선악 구분을 안 하면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요, 선악에만 치우치면 법성을 부인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이사무애가 될까. 그 악한 현상도 어떤 선연에 변화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믿는 게 중요하다. 제바라보살은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악과 선을 구분하길 바라고 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出家에 대해

출가(出家)란 선택의 과정이고 결심의 문제이다. 출가란 누구에게나 쉽지 않는 결단일 터이다. 누구에게나 풀어야할 걱정과 고민이 빛과 어둠으로 생각의 윤회를 거듭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석가모니의 사문유관(四門遊觀)처럼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어둠의 그림자는 숱하게 널려있다. 그 생명의 굴레 같은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사문(沙門)의 길로 접어드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긴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는 색깔 진한 아픔이 깃들어 있기 마련이다. 하던 일을 접고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가(出家)는 커다란 포기를 의미한다. 출가는 또 다른 출발, 또 다른 생명의 또 다른 세계로 접어드는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길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가는 패자(敗者)의 은신처이거나 피난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출가는 포기 아닌 새로운 선택
敗者들의 은신처 · 피난처 아니다

여래십호(如來十號)중 하나인 조어장부(調御丈夫)의 의미처럼 승리자의 길이 출가요,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해탈자(解脫者)의 삶이 출가자에겐 열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가 집단인 승가(僧伽)의 세계도 또 하나의 공동체이다. 다수가 모여 사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와 생활의 갖가지 매뉴얼이 널려있기 마련이다.

계으름을 병으로 알아 열심히 간절심으로 정진하는 기본자세로부터 지키고 엄수해야 할 생활 규범도 계(戒)와 율(律)이라는 무게감으로 등장한다.

공동체에서는 화합(和合)이 첫째 지켜야 할 덕목이므로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여 궤도이탈이 없어야 한다. 새벽예불, 발우공양, 대중운력 등에는 선택이 아닌 참가 의무를 지니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강요로 치닫지는 않는다.

승가 공동체에서는 개인 의견이 존중되나 대중의 뜻은 부처님 뜻으로 받드는 풍토일 뿐이다.

대중스님들이 모여 정진(精進)하는 큰방 옆에는 어느 사찰이나 지대방이 있기 마련인데 지대방은 누구나 평등하게 휴식을 취하며 잡담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열려있다. 승가공동체에는 대중공사라는 이름으로 개인 의견을 펼 수 있는 민주적 절차의 열린 마당이 자유롭게 열려있다.

사찰은 열려있다. 승려의 세계도 열려있다. 단기출가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사찰규범이 엄격해 군대규율처럼 자율이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후일담을 늘어놓지만 승가공동체는 개인 의견이 존중되는 자율의 열린 세계이다.

첫째, 출가이전의 사생활은 묻지 않는다. 둘째, 승려 생활은 개인의 선택일 뿐 오고감이 자유롭다. 셋째,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머물고 떠날 수 있는 여행의 자유 · 수행의 선택이 자유롭다. 넷째, 타고난 재능 발휘도 인정되고 활동도 자유롭다. 노래 잘 부르면 가수로, 글짓기 잘하면 작가로, 그림그리길 좋아하면 화가나 단청장으로, 춤추길 좋아하면 범패음악의 승무의 주인공으로 활동하게 된다. 행정 쪽이면 주지로, 수행 쪽이면 수좌로 언어의 표현 능력이 좋으면 포교사로, 글로벌 활동도 자유롭다.

출가는 무거운 포기이지만 또 다른 선택의 즐거운 생활이 열려오는 것이다. 부처님의 경전(經典)을 밑줄쳐가며 공부해가는 학문 수행과 간절심으로 마음모아 정진하는 심성수행의 삼매경(三昧境)은 또 하나의 기쁨이자 텅 빈 충만을 누리는 행복과 자유인 것이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꾸밈과 조작도 없이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얽매임 없이 소유욕 없이 자연인의 삶, 자유인의 해탈은 출가자의 주변에 널려있는 것이다.

마음만 열고 보면 이르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요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이다. 움직이는 것은 아름다운 진리 아닌 게 없는 것이다. 진리는 물처럼 공기처럼 자갈처럼 빨래처럼 널려있는 것이다. 아웃사이더의 삶이 인사이드의 밝은 빛으로 충만한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출가(出家)는 포기가 아닌 새로운 선택이다. 출가의 완성은 해탈자의 자연인에 이르는 것이다. 텅 빈 충만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완전한 지혜의 세계,

화제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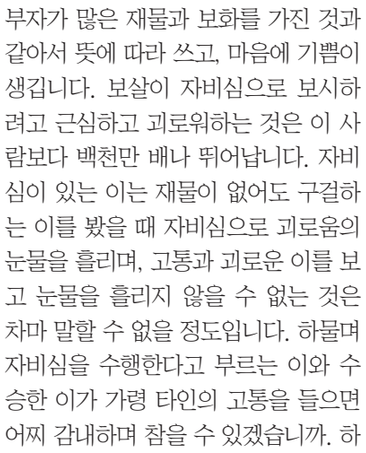
密 밀이 세상에 나왔다 !!

최상 깨달음 지혜 과정이
이보다 더 상세할 수는 없다.

5, 6, 7, 8, 9식(識) 전변 깨달음세계와
완전한 깨달음 6종각(六種覺)인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十覺) 성불
과정의 경계와 지혜의 길을 상세히 완전히 밝혔다.

밀법 태장계와 금강계, 옴마니반메훔, 광명진언 등의
실상세계를 자세히 밝혔다.



전국 서점 판매중!

박명숙(德慧林)저
밀1권 500쪽 / 밀2권 584쪽 / 정가 각: 35,000원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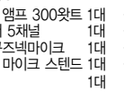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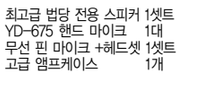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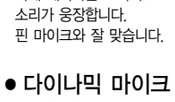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사대부·내시 왕생 발원, 불상에 담다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⑲ 초안(草安) 스님

17세기 중반에 불상을 만든 조각승 가운데 스님 몇 명은 보조화승으로 활동하다가 수화승(首畵僧)이 되어 여러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1-2점 밖에 조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불상의 제작은 상당히 고도화 된 기술이 결합된 것이라 어느 날 갑자기 불상조성을 주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와 같이 적은 수량의 불상이 조사된 조각승들은 당시의 활동내용과 불상 양식을 접근할 수 없기에 현재 상황에서 스님들이 남긴 흔적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조각승 가운데 초안 스님은 왕을 시중하는 내시의 아내가 발원한 불상을 만든 작가다. 초안 스님은 17세기 전반 대표적인 조각승 인균(印均, 仁均)이나 응원(應元, 應圓) 스님의 계보를 잇는 작가로 보인다. 이는 초안 스님이 삼인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든 불상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한데 기인한다. 삼인 스님은 응원 스님과 인균 스님 두 조각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다. 초안 스님이 1650년대를 전후하여 여러 불상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수화승으로 참여한 작품은 1점이 조사되었을 뿐이다.

초안 스님의 생애와 조각승이 된 배경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문헌을 통하여 스님의 활동 시기와 내용, 조각승 계보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초안은 현재 속초 보광사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좌상을 1654년에 단독으로 조성한 것으로 미루어 이전부터 불상 제작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1659년에 삼인 스님이 수화승이 되어 제작한 전남 고흥 금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에 참여하였는데, 이때 참여한 조각승 8명 가운데 초안 스님은 3번째로 언급되어있기에 불상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중반부터 사찰의 부속 전각이나 암자에 불상이 봉안되면서 불상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불상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제작에 참여한 조각승의 숫자도 적어지는데, 속초 보광사 봉안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암자에 봉안한 50㎝ 정도의 크기로, 목재의 가공, 옻칠, 금을 칠하고 붙이는 전 과정을 초안 스님이 주도한 것이 특징이다.

이제까지 밝혀진 초안의 활동 시기는 1654년부터 1659년까지이다. 초안이 1650년대 수화승으로 활동할 정도라면 1620년대 태어나 1630-40년대 보조화승으로 불상 제작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그가 1650년대 강원 고성과 전남 고흥에서 불상 제작에 수화승(首畵僧)과 차화승(次畵僧)으로 활동한 것을 보면, 이후에 기년명 불상이 조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초안 스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년명 불상은 1659년에 제작된 전남 고흥 금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이다. 이 가운데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 내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순치14년 6월에 전남 고흥 천등산(天燈山) 금탑사(金塔寺)에 지장삼존과 시왕상을 조성하였는데, 증명(證明)은 성일(性一) 스님이 맡고, 화공(畵工) 삼인(三忍) 스님, 묘관(妙寬) 스님, 초안(楚安) 스님, 하륵(何勒) 스님, 약육(若六) 스님, 덕민(德敏) 스님, 미찬(未讚) 스님, 도잠(道岑) 스님, 도헌(道軒) 스님이 만들었다. 수화승으로 참여한 삼인 스님은 1628년에 전남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을 수화승 응원(應圓) 스님과 제작할 때 14명 중에 11번째 언급될 정도로 나이가 어리고 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30여

조각승 인균 · 응원 계보 조각승
금강산 안양암에 지장보살상 조성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상 유일
장성 백양사 불상 만든 것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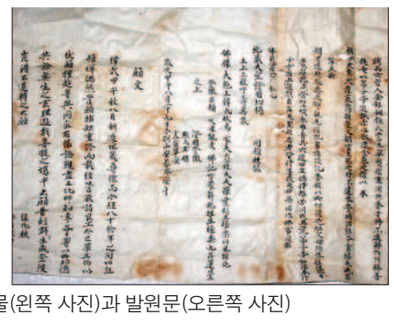


1654년에 조성된 금강산 안양암 목조지장보살좌상. 속초 보광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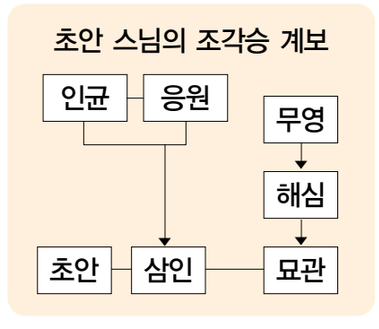


17세기 중반에 조성된 장성 백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에서 나온 견직물(왼쪽 사진)과 발원문(오른쪽 사진)



년이 지나 1655년에 전남 여수 흥국사 응진당 목조석가여래좌상과 나한상을 수화승 인균(印均) 스님과 제작할 때 부화승으로 참여하고, 같은 연도에 경북 구미 자운사 석비를 임의강(林儀江)과 건립하였다.

금탑사 불상 제작에 부화승으로 참여한 묘관(妙寬) 스님은 1653년에 전북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목조지장보살좌상 등을 수화승 해심(海心) 스님과 제작할 때 16명 중에 6번째로 언급되고, 1654년에 전남 영광 불갑사 명부전 불상을 무염(無染) 스님, 정현(正玄) 스님, 해심(海心) 스님과 조성하였다. 이들은 17세기 중반에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들로, 대부분 1650-70년대에 불상 제작을 주도한 수화승들이다.

또한 도잠(道岑)은 1651년에 서울 봉은사 대웅전 내 본존 옆에 위치한 목조여래좌상과 1657년에 전북 무주 북고사 극락전 목조아미타불좌상을 수화승 승일(勝一) 스님과 조성하고, 1674년에 경북 청도 용천사 불연(佛輦)을 제작하였다.

마지막 도헌 스님은 1659년에 금탑사 명부전 불상을 제작할 때에는 맨 끝에 언급되었지만, 1680년에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광주 덕림사 소장), 1684년에 전남 강진 정수사 나한전 목조석가불좌상과 16나한상(강진 옥련사 본존, 정수사 나한상), 1685년에 전남 고흥 능가사 응진전 불상을 수화승 색난이 제작할 때 부화승으로 참여한 스님으로 17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초안 스님의 계보는 인균(-1615-1655-), 응원(-1600-1636-) →삼인(-1628-1659-)→초안(-1654-1659-) 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삼인 스님과 초안 스님의 활동 시기가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 선후배보다 사제지간(師弟之間)일 가능성이 높다. 조각승 초안이 불상을 만든 지역은 전남 1곳, 강원 1곳 밖에 없어 거주 지역이나 사찰을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 조각승 초안은 임진왜란 이후에 태어나 1654년에 수화승으로 강원 금강산 화엄사 안양암 목조지장보살좌상(속초 보광사 봉안)을 단독으로 조성하여 최소한 30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1659년 수화승 삼인과 전남 고흥 금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목조시왕상 등을 만들 때 9명 가운데 3번째 언급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연배였을 것이다. 이 불사를 진행할 때 부화승으로 참여한 묘관은 무염, 해심과 공동으로 작업을 한 조각승이지만, 아직까지 수화승으로 제작한 기년명 불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초안 스님이 만든 대표적인 불상은 강원도 속초시 위치한 보광사 주지실에 봉안된 지장보살좌상이다. 보광사는 1938년 1월 19일에 정화담(鄭華潭) 스님이 건봉사(乾鳳寺) 속초포교당(束草布敎堂)으로 창건하였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은 하나의 나무로 만들어진 일목식(一木式) 불상으로, 높이가 46㎝, 무릎 너비가 30.5㎝로, 높이와 폭이 1:0.6의 신체비례를 가져 17세기 중반에 제작된 기년명 보살상에 비하여 옆으로 퍼진 느낌이 든다. 지장보살상은 민머리의 성문비구형(聲聞比丘形)으로, 머리를 약간 앞으로 내밀고 있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커다란 손은 불신(佛身)과 따로 만들어 끼우는 구조이다. 이러한 수인(手印)은 조선후기 제작된 석가불(釋迦佛)을 제외한 여래상과 보살상이 공통으로 취하고 있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방형의 얼굴에 눈 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원통형으로 짧으며, 인중이 다른 불상에 비하여 넓은 편이다. 몸에 걸친 대의는 변형편단우견(變形偏袒右肩)으로, 두꺼운 대의 안쪽에 편삼(扁衫)을 입었다. 오른쪽 어깨에는 한 가닥의 대의자락을 비스듬히 걸치고,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며, 왼쪽 어깨의 대의자락은 수직으로 내려와 반대쪽 대의자락과 겹쳐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이 완만하게 흘러내린 표현은 17세기 중반부터 나타나는 대의처리이다. 대의 안쪽에 가슴을 가린 승각기(僧脚崎)는 수평으로 묶어 상단에 연판형의 주름이 접혀있다. 보살상 뒷면에는 대의(大衣) 자락이 목에 둘러있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지장보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은 한 장의 백지(白紙)에 조성과 중수 · 개금에 관련된 내용이 묵서(墨書)로 쓰여 있다. 조성발원문은 크기가 89㎝×44㎝로, 전반부에 지장보살을 조성한 내용이, 후반부에 지장보살이 조성된 후 80년이 지나 중수한 내용이다. 전반부에 지장보살의 조성 시기는 "갑오팔월이십구일(甲午八月二十九日)"로 간지와 일월만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 "갑오년팔월신조지장존상이금경팔십여년지간(甲午年八月新造地藏尊像而今經八十餘年之間)"이라는 문구를 통하여 조성된 지 80년이 지난 "건륭오년경신(乾隆五年庚申)"인 1740년에 중수되었다면 역으로 환산하여 조성된 갑오년은 1654년에 해당한다. 이 지장보살이 봉안되었던 강원도 금강산 안양암은 「금강산화엄사안양암중건기(金剛山華嚴寺安養庵重建記)」와 「화엄사안양암중수기(華嚴寺安養庵重修記)」를 통하여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안양암은 인조가 즉위한 1623년에 광명등휘 스님이 창건한 후, 해성후정(海城厚鼎) 스님이 중수하였으며, 1860년에 천재지변으로 파괴된 것을 춘담법함(春潭法咸) 스님이 중창하였다.

불상 제작을 발원한 한씨는 죽은 남편인 숭록대부(崇祿大夫, 조선시대 종일품 상 문무관의 품계에 해당하는 관직)인 라업(羅業)의 극락왕생을 축원하였다. 그의 부인이 1654년에 지장보살상 제작을 발원한 것을 보면 1651년에서 1654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명(證明)으로 참여한 등휘(謄輝) 스님는 광명당(廣明堂)으로, 「금강산화엄사안양암중건기」와 「화엄사안양암중수기」에 화엄사를 창건하였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화엄사 사적에는 광명승휘(廣明勝輝) 스님으로 나와 있으나, 지장보살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하여 등휘가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조각승 초안이 단독으로 제작하였다. 이는 다른 사찰의 명부전 존상이 30여 점이 되는 것에 비하여 암자에 단독으로 봉안하였기 때문에 소형보살상이라 단독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불상은 80년이 지난 1740년에 초흠(楚欽) 스님과 풍택(豊擇) 스님이 중수 · 개금하였다. 수화승으로 참여한 초흠은 1739년에 서울 학림사 괘불도 조성을 주도한 불화승이다.

조각승 초안이 만든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얼굴의 인상과 대의 처리가 동일한 작품은 전남 장성 백양사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좌상으로, 초안이나 그 계보의 조각승에 의하여 165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그동안 아껴주신 마음에 성우상사에서 국내 처음으로 거위털 두루마기와 동방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가볍고 따뜻하며 세탁시 물빨래 가능합니다. 구겨지지 않고 흡습, 발산 공기층의 형성으로 땀이 증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증가시켜 줍니다.(전제품 거위솜털 800FP) (비구니, 비구스님 공용)


잔누비두루마기 88만원


반동방 68만원, 잔누비 73만원


땀이 차지 않습니다.
물수건으로 닦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람막이겸 비옷
바람막이 상의 18만원
바람막이 하의 11만원


사폭바지
굵은누비 80만원
잔누비 55만원


보살님용
3계절용
조끼 18만원
바지 36만원
색상선택 M/L/XL

불교 박람회 참여 업체
전국 방문 상담 가능

전제품 거위털
사이즈 M,L,XL,2XL

- 누비적삼 50만원
- 실내 저고리 23만원
- 속조끼 14만원
- 속바지 38만원
- 겉조끼 18만원
- 중량점퍼 35만원
- 복대 5만원
- 버선 8만원
- 공양앞치마 2만원
- 모자 9만 5천원
- 목도리 대 5만 5천원
- 목도리 중 2만 8천원
- 목워머 1만 6천원
- 휴대용 이불 M2 (105/148) 14만원
- 휴대용 싱글이불 겸 배낭 M3 (150/200) 28만원
- 사계절 이불 600g 55만원 420g 42만원

(이불 그랜수 조절 가능)

성우상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19번지 로타리상가 B1층
대표번호 : 02-2679-2848
남성우 : 010-3707-7016

단추와 옷고름(선택) 맞춤도 가능하며 맞춤시 방문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namsungwoo.co.kr

어린이 마음으로 천진불 그려보아요

여진미술관, 천진불 그리기 대회

어린이들이 그리는 불교미술은 어떨까. 여진불교미술관(관장 이진형)은 오는 10월 22일 미술관 야외전시장에서 제5회 어린이 천진불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매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동심을 도화지에 그려냄과 동시에 불교미술에 대한 창의적 기량을 뽐내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에는 대전시교육감상과 장학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유성구청장상 등 총 6개 분야의 51명 참가자들을 선정해 시상과 함께 장학금을 수여한다.

이진형 관장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게 해주기 위해 대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여진불교미술관에서는 2016미술주간인 10월 23일까지 관내 포토존 이벤트를 26일에는 문화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미술관 야외전시장에서 '퓨전 국악 연주회'를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불심으로 피운 꽃 마음으로 머물다

보림꽃예술회 19일까지 전시회

(사)한국꽃꽂이협회 산하 보림꽃예술중앙회(회장 보림 지연)는 10월 18~19일 현대백화점 서울 미아점 10층 사파이어홀서 제6회 보림회 꽃꽂이 전시회를 개최한다.

보림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 주제는 '마음 머물다 花·畵·話'다. 전시회에는 1972년부터 시작된 꽃길 역사와 1992년 보림꽃예술중앙회 창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장 지연 스님 문하서 불교꽃꽂이를 계승해온 회원들 작품 9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회는 △회장 지연 스님의 여정(8부) △제자들의 선화 △불교의식 장엄화 △기초부터 창작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전시회는 '함께하는 문화마당'도 진행된다. 문화마당은 △남성 4중창 육화림 솔리스트 앙상블 △황명주 피아노 독주 △현악4중주 플러스 앙상블 △기원사합창단 찬조출연 △명원문화재단 궁중 전통다례 시연 △꽃다발 만들기 체험 등으로 꾸며진다. (02)997-4560

윤호섭 기자

'일상 속 성찰' 담아낸 시 같은 그림들

오원배 등 중견작가 18명 한 자리서 전시

필갤러리 개관展, 10월 18일부터
동·서양화 30점 1·2부 나눠 전시
사유·감성 작품 만나는 기회 '기대'

현대의 과다한 정보에 오래 머무를수록 회상과 기억, 느린 사유, 한가로운 생각의 시간은 줄어든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유와 성찰하는 '느린 시간'이다. 완연한 가을, 시 한편을 접하며 행간을 읽어가듯 그림을 통해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서울 용산 필 갤러리는 개관을 기념하는 전시회인 '연(聯)과 연(聯) 사이'를 10월 18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가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 동·서양화단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견 작가 18명이 참여한다는 점이다.

전시 기간도 1부 서양화(10월 18일~11월 17일)와 2부 한국화(11월 22일~12월 21일)로 나눠 진행된다. 작가로는 오원배 동국대 부총장을 비롯해 권여현, 김태호, 윤동천, 이석주, 이종구, 정용일, 주태석, 황주리, 김선두, 문봉선, 신하순, 유근택, 이인, 이종목, 이주원, 정종미, 조환 등이 참여하며, 30여 점의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참여 작가들의 면면을 보면 누구나 한번쯤 시간을 내어 가봄직한 전시다.

이들 작가들은 '일상에서의 성찰'이라는 일련의 주제로 이야기를 던진다. 작가들은 서양화, 한국화 등 자신만의 매체를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고유한 방식으로 전시 공간에 감각적으로 녹여낸다.

이 같은 중견 작가들의 합동전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다양한 미술운동과 경향이 유행처럼 빠르게 바뀌면서 반복적인 작품을 양산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원숙한 중견 작가들이 관조적 시선으로 일구어낸 작품들로 꾸려진 이번 전시는 매우 반갑다.


서양화가 오원배 동국대 부총장의 작품 '무제'. 종이에 꼴라주로 만들어졌다.


이종구 중앙대 교수의 '달마산'. 캔버스에 아크릴릭으로 표현됐다.

이번 전시 작가들의 작품 수준과 예술가적 가능성은 충분하며, 작가적 정체성과 고유한 미의식, 사유의 세계도 엿볼 수 있다. 일상에서의 성찰이 담겨있으면서도 작가들의 감성의 폭이 한층 더 깊이 담긴 '진짜 그림'들을 마주할 수 있는 경험은 관람객들에게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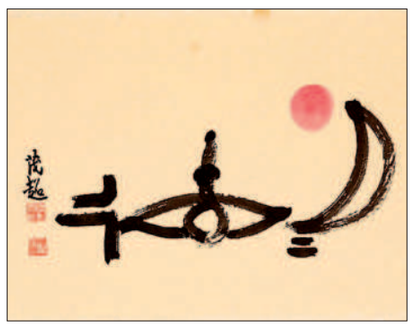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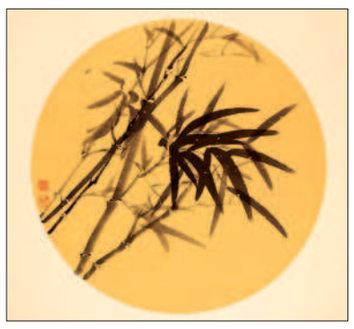
필갤러리는 "짧지만 함축적으로 표현한 시(詩)의 행(行)과 연(聯) 사이에 무형의 간격처럼 '연과 연 사이'에서 사유로 되살아난 작품들로 전시를 기획했다"면서 "전시된 30여 점의 평면 작업들에는 작가와 그려지는 대상이 서로 담박하게 만나는 시도가 담겨있으며, 자신의 사유를 시각화한 작품들은 잔잔하고 깊은 여운을 줄 수 있다"고 전시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과 연 사이'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2)795-0046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붓과 먹으로 표현된 '마음의 소리'

한민정 작가, 초대 개인전
29일까지 서울시의회 중앙홀
마음담은 이모그래피 선보여
허회태 문하서 수학한 재원



한민정 작가의 작품 '明明德 – 밝은 덕을 밝히다(사진 왼쪽)'와 '달 안에 비쳐진 나의 마음(사진 오른쪽)'

붓과 먹은 힘의 강약에 따라 선의 굵기가 정해지고, 선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낸다. 어쩌면 자신의 감정과 사유를 오롯이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일 수 있다. 한민정 작가의 서화도 자신이 가진 마음의 소리를 붓을 통해 풀어낸다.

한민정 작가는 오는 10월 29일까지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초대 개인전 '마음의 소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이모그래피 서화들이 전시된다.

한민정 작가는 이모그래피(Emotion과 Graphy의 합성어)창시자로 알려진 무산 허회태 선생의 제자로 붓과 먹을 통해 세상과 소통을 추구하는 이념이 스승과 닮아 있다. 그는 유학준비를 하던 중 잠시 서예를 배우기 위해 무산 서예연구원을 찾았다가 먹색만으로 삼라만상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이모그래피의 매력에 빠져 유학을 포기하고 문인화에 심취하게 됐다.

일반적 서예가 아닌 상형적 문자의 표현을 회화적 감성으로 이끌어낸 이모그래피에 매료 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민정 작가만의 독특한 문인화가 만들어졌다.

전시작품 중에 '心中 - 마음속의 소리', '明明德 - 밝은 덕을 밝히다', '달 안에 비쳐진 나의 마음' 등은 인간 본연의 심성을 함께 이야기 하고자 작가의 순수성을 바탕으로 완성됐다. 감정 속에서도 인간이 항상 가져야 할 덕의 마음을 심의 소리로 좋은 글과 그림으로 설레는 마음을 표현했다.

고전적이고 딱딱한 느낌으로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서예, 문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시회를 통해 조금이라도 깨고 싶은 것이 작가의 바람이다.

한민정 작가는 "상형문자로 더 그림화 시켜 다양한 기법을 이용한 좋은 글과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아이들에게 서예와 문인화로도 현대적인 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꿈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02)3702-1400

신성민 기자

올해 불교음악 발전 공로자는 누구?

조계종 불교음악원, 제3회 불교음악상 공모

21일까지 후보자 접수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음악원은 오는 10월 21일까지 불교음악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상자는 △조계종 신도로 불교음악 발전에 공로가 큰 자 △전통 및 현대 불교음악 위상 제고에 공로가 큰 자 △기타 불교음악 발전과 홍포에 공로가 큰 자 등이며 외국인 및 단체도 포함한다.

지원 분야는 불교음악 개발(작사·작곡·편곡), 보급(연주·가창), 연구(학술·이론), 기타 불교음악 발전 등이다.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게재된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공적사항 증빙서류, 후보자 이력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총무원장상인 대상은 상금 500만원, 신인상은 상금 300만원이 시상된다. 후보 접수 후 심사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하며 11월초 개별통보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7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다. (02)3218-4866

신성민 기자

사찰서 한국 전통무예를 만나다

골굴사, 11월 5~6일 무예대회

선무도 총본사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에서 한국 전통무예를 만날 수 있는 무예대회가 열린다.

골굴사는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제14회 화랑과 승군의 후예 전통무예대회를 개최한다. 무예대회에 앞서 승군과 호국영령들의 고혼을 기리기 위한 위령 수륙재도 열린다.

6일 오후 1시부터 본행사로 열리는 무예대회에서는 한국불교 승가의 비전 무술인 선무도를 비롯해 태원 스님의 풍류도, 무의단공, 영가무도 등의 시연이 이뤄진다. 3시부터는 평양민속예술단 등을 특별초청해 산사예술제를 진행한다. (054)744-1689

신성민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0.5~2016.10.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샘앤파커스
2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3	참선이란무엇인가	진제대선사	매일경제신문사
4	돌이키는힘(치유하는금강경읽기)	서광	모과나무
5	날마다 새날-불교 명절에 담긴 수행이야기	법륜	정토
6	부처님말씀 따라쓰기	불교방송	비단길
7	깨달음과역사(개정증보판)	현응	불광출판사
8	나를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만공법어)	만공	비움과소통
9	그녀는다시태어나지않기로 했다	조민기	㈜조계종출판사
10	어느수학자가본기이한 세상-조합	강병균	살림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행복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다… “붙들려 말고 지금 바로 누리길”

긍정의 DNA 비결은 욕심 아닌 만족하는 것
“한 번인 인생, 마음먹기 따라 즐겁게 살 수 있어”



소풍가듯 가볍게
월도 스님
황주리 그림
샘앤파커스 펴냄
1만 4천원

“누군가를 미워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감정을 소진시키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에게 해가 되는지 말입니다. 우울해하고 원망하고 화내는 시간들이 따지고 보면 아깝기 그지없는 시간들입니다. 슬퍼하고 미워한대서 뾰족하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버리고, 마음 상하고, 관계는 더욱 나빠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부처님 마음이 자라날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불자들의 따뜻한 인생 멘토로 알려진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의 신간이 나왔다. 불교TV ‘월도 스님의 생활법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불자들의 공감을 이끌며 여러 가지 인생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온 스님의 법문집이다. 월도 스님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앗아가는 게 무엇이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씨앗은 무엇인지 밝힌다. 책 제목처럼 소풍 가듯 가볍게 인생을 행복히 살아가는 바른 길을 안내한다. 우리가 일상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문제에서 예화를 이끌어내 그 조언이 더욱 현실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다.

월도 스님은 “불교하면 일반인들이 무조건 어렵고 무겁게 생각하죠. 개신교의 교세가 확장되는 이유중 하나도 목사님들이 대중들에게 친밀하고 쉽게 설교하며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형이상학적인 것에 치중해 신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법회 시간에 졸게 만드는 법문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일상적 고민거리를 주제로 어렵지 않게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라고 출간 취지를 밝힌다.

이 책은 마음의 속성과 행복의 조건을 들여다보고, 불교적 관점서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 불교 수행의 원리와 방법, 바른 신행생활에 관한 조언 등을 담고 있다. 기존 불자는 물론, 이제 막 불교에 첫걸음을 떼고자 하는 입문자에게도 친절하고 편안하게 다가간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 쩔쩔매며 힘겹게 살아갈까?” “우리에게서 행복을 앗아가는 게 무엇이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씨앗은 무엇일까?” 등등. 저자인 월도 스님은 불자들의 다양한 인생 고민에 명쾌하고 따뜻한 조언과 답을 내놓는다. 스님에 따르면, 불교는 원리를 존중하고 법칙을 실천하는 종교다. 따라서 원리와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 월도 스님은 소풍 가듯 가볍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 석가모니 부처가 미물도 감동하는 언어로 진리를 설파했듯이,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불교의 가르침, 행복으로 이끄는 삶의 지혜를 전한다.

책은 마음, 변화, 인연, 지혜, 믿음, 진리, 정진을 주제로 전체 7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삶의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왜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에 휘둘리게 되는지 마음의 속성과 행복의 조건을 들여다본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을 사랑과 이해로 전환하는 법,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 수행의 원리와 방법, 연기법과 사성제 등 불교의 진리, 올바른 신행생활에 관한 조언 등을 담았다.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괴로움을 안고 사는 이들에게, 인생이 마냥 버겁다는 이들에게 냉정하고도 따듯한 조언을 건넨다.

이 책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 책을 읽는 동안 끄덕끄덕 공감만 하고 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수행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복신앙을 탈피해 실질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줄 마음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꼭 알맞은 책이다. 신앙생활을 오래했지만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불자에게는 초심을 떠올리며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제 막 불교에 첫걸음을 떼고자 하는 입문자에게는 친절한 수행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삽화로 서양화가인 황주리 작가의 ‘돌에 관한 명상’ 연작을 실었다. 강가에서 주워온 돌에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풍경을 그린 작품들이다. 기발한 상상력과 눈부신 색채로 가득 찬 그림이 지혜가 담긴 경구와 함께 강렬한 기억을 남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100일 후에 일어날 마음 기적 꿈꾸자”



나를 바꾸는 100일
마가 지음 | 휴 펴냄 | 1만 4천원

일찍이 자비명상을 개발해 불교적 힐링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마가 스님.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얻는 자비명상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왔다. 스님은 2000년대 초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개최하면서 국적 및 종교를 초월한 템플스테이 대중화에 힘써왔으며, 9년간 중앙대서 〈내 마음 바로 보기〉라는 수업을 맡아 1초 만에 수강신청이 마감되는 강의로 20대들에게도 자비명상을 널리 알려왔다.

따스한 성찰의 언어로 우리 내면에 자리한 슬픔의 뿌리를 찾아가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살아가는 것과 ‘자비로워지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치유임을 이야기해온 마가 스님이 최근 자기 변화를 꿈꾸는 사람을 위한 ‘100일 기도’ 수행서 〈나를 바꾸는 100일〉을 출간했다.

이 책은 불교계의 힐링 멘토이자 자비명상 이사장인 마가 스님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100일 기도 수행법을 집대성한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기도법을 찾아 100일 동안 정성을 다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나에게 맞는 기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소원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스님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다. 스님은 기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 각자의 체질이나 성격 그리고 환경에 맞게 기도법을 찾으라 말한다. 그런 후에 진정한 참회의 시간 ‘100일’ 동안 참회할 대상을 알고,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선행공덕을 지어야 참된 기도가 되며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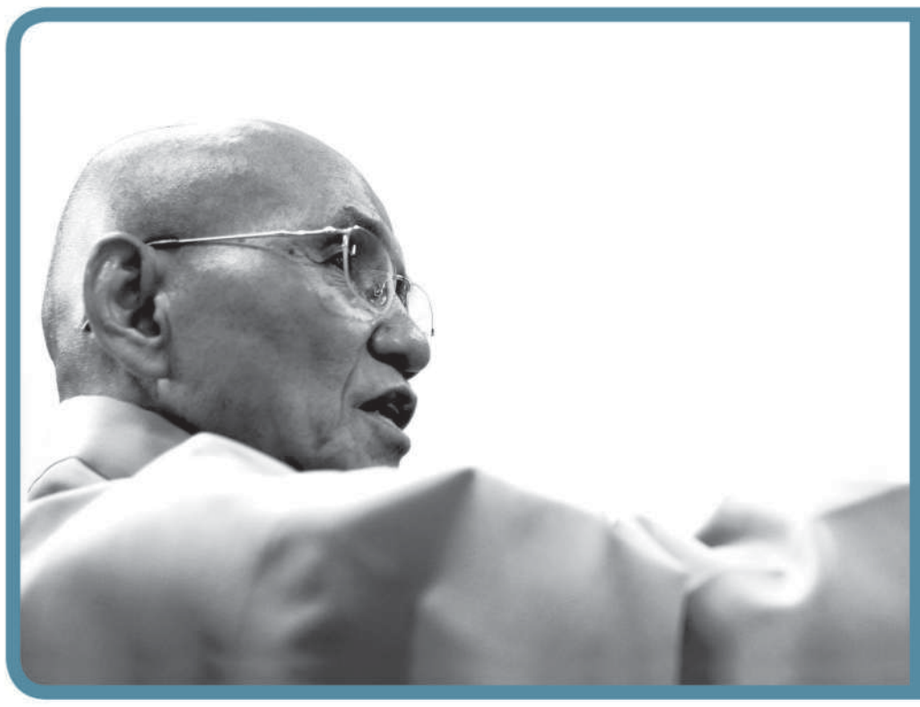
이 책은 10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100가지의 마음 씨앗(긍정단어)을 마음에 되새기며 오늘 잘한 일, 후회되는 일, 고마운 사람, 내일 할 일, 오늘의 마음 이야기 등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참회함으로써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하루하루 마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삶의 진정한 행복과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장 빛나는 순간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마가 스님은 먼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행 10단계를 소개한다. 하루 30분이면 충분하다. 매일 자신이 정한 시간에 기상하여 삼귀의와 오계로 정념수행을 하고(1단계), 자비명상을 독송하고 명상을 한다(2단계). 정성을 다해 108배를 하고(3단계),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면서 〈자비경〉을 독송한다(4단계). 자비의 씨앗을 심기 위해 100 긍정단어를 독송하고(5단계), ‘내 인생의 주인공 되기’ 기도 발원문을 독송한다(6단계). 나눔을 통해 나를 비우는 행복을 실천하고자 매일 천 원 이상 보시하고(7단계), 나와 남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하루 한 가지 선행공덕을 쌓는다(8단계). 나에게 맞는 맞춤수행을 정진하고(9단계), 매주 주어지는 생활명상 과제를 정성을 다해 실천한다(10단계).

“나의 행동, 말, 생각은 곧 미래”
나 바꾸는 수행법과 100가지 씨앗

그중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 즐겁게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스님은 말한다. 탐욕을 다스리는 부정관, 분노를 다스리는 자비관, 수를 세어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수식관, 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계분별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연관, 부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염불수행, 경전을 독송하는 간경수행, 경전을 옮겨 쓰는 사경수행, 말 그대로 걷기명상,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는 봉사수행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반드시 개인의 체질과 성격, 환경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수행 단계를 숙지하고 나만의 수행법을 선택했다면, 이제 100일 후를 생각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100일 14주, 매 주마다 깨달음의 글로 마음을 깨운 후 100일 동안 매일매일 ‘오늘의 긍정단어’를 가슴 깊이 새기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 잘한 일, 후회되는 일, 고마운 사람, 내일 할 일, 오늘의 마음 이야기를 정성껏 기록하고 만족도를 체크해봄으로써 마음의 정원에 자비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말, 생각은 곧 미래가 되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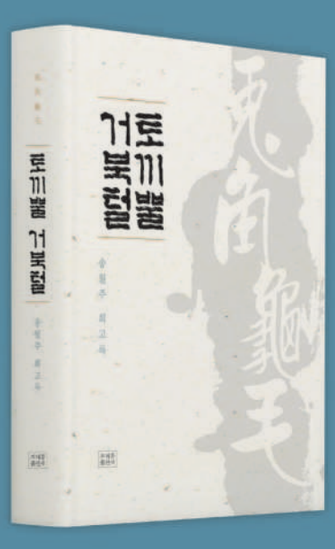
불교 정화 / 10·27 법난 / 개혁종단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현장에서
IMF 구제 금융사태 / 위안부 할머니 문제 / 세계 반곤 한국사와 세계사의 현장에서
온몸 부딪혀 실천해온 송월주 대종사의 보현행원의 길

/송월주 회고록/

토끼뿔 거북털

| 글 · 월주 스님 | 46배판 변형(175X230) | 724쪽 | 양장 및 케이스 | 가격 30,000원 | 조계종출판사 |

“이 책은 송월주 스님이 출가 이후 절차탁마하며 보낸 시간에 대한 기록이자 수십 년 시민사회운동에 발 딛고 사회봉사를 실천하며 느낀 소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유했던 여러 인물 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워낙 광범위한 활동을 펼쳐왔던 스님이기에 책 속에 살린 이야기는 때론 조계종의 근현대사이며 또 때론 질곡과 영광을 함께했던 한국사이기도 하다.”



월주 스님과 〈토끼뿔 거북털〉에 보낸 언론의 찬사!

- 회고록은 한국 현대 불교의 역사와 불교계 사회복지 역사와 다름없다. * 조선일보
- 월주 스님의 개인사는 조계종단의 개혁사와 맥을 같이 한다. * 중앙일보
- “이판이 아니면 사판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사판을 하지 않으면 이판도 의미 없다.” * 동아일보
- 월주 스님의 보리심은 국경을 넘었다. * 한겨레
- 월주 스님은 자신의 수행과 자비행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형행’이라고 표현한다. * 한국일보
- 불교가 세상을 등진 채 산중에만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 연합뉴스

조계종 출판사 (주)조계종출판사 문의
02-720-6107~9 www.jogyebook.com

말레이女, "불자로 살겠다" 이슬람에 도전장

무슬림 부계혈통주의 거부… 고등법원에 항소

생부 무슬림이란 이유로
이슬람 율법 적용 받아
종교·혼인 자유 등 박탈
"생모 따라 평생 불자로 살아"
권리 찾기 위해 법정 소송



생부의 종교가 이슬람이란 이유로 무슬림이길 강요받은 여성이 법정 소송을 통해 불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 사진은 그의 변호사 애쉬튼 파이바(맨 오른쪽).
사진출처=Free Malaysia Today

얼굴도 모르는 생부의 종교가 이슬람이란 이유로 무슬림이길 강요받은 여성이 불자로 살 권리를 찾아 나섰다.

말레이시아 언론 'malaymail online'은 10월 11일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에 사는 로즐리자 이브라힘(Rosliza Ibrahim · 35)은 평생 불자로 살아왔지만 생부가 무슬림이란 이유로 자신에게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려는 무슬림공동체에 반대, 최고법정에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로즐리자 이브라힘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현재 민주적 관습법과 이슬람 실체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부당한 경우에 처했다"며 "사생아로 자라 생부는 나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다. 키워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불자로 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즐리자의 본거지인 셀랑고르주 당국은 그를 무슬림으로 등록하고 샤리아법(Shariah law; 이슬람 성법)을 적용받게 조치했다. 로즐리자가 사생아지만 무슬림 생부를 뒀단 것이 유일한 근거였다.

이에 로즐리자는 지난 3월 셀랑고르주 고등법원과 연방직할구종교당국에 생부와 생모는 정식으로 결혼한 적도 없으며, 생모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적도 없단 사실을 증명하는 법정문서를 제출했다. 생모도 생부와 결혼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더욱이 생부의 거처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부부가 말레이시아 내 다른 도시 혹은 외국서 무슬림 결혼식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로즐리자의 변호사 애쉬튼 파이바(Aston Paiva)는 'malaymail online'과 인터뷰서 "재판 내내 판사들은 증거제출 요구는 물론 증언 채택도 하지 않았다. 당국은 불자 생모에게서 태어난 사생아에 이슬람 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러하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애쉬튼 변호사에 따르면 이슬람 샤리아법선 로즐리자가 헌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와 합법적 재산 양도권이 무시될 뿐 아니라, 혼인의 자유도 박탈된다. 태생적으로 무슬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원에도 가지 못하는 처지다.

애쉬튼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들만으로도 로즐리자가 이슬람을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에게 무슬림으로 살라는 것은 이슬람 율법원의 억지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로즐리자는 항소심을 통해 고등법원에 제출한 증거 채택 및 신분증서서 종교를 불교로 기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애쉬튼 변호사는 "말레이시아 법원이 이번 사건에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슬람의 대(對)불자 억지력에 동조한단 뜻과 다르지 않다. 이는 헌법으로 보호받는 민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최근 말레이시아선 일방적·강제적 이슬람 개종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툭 세리 하밀 키르 바하롬 이슬람위원회 대표는 지난 5월 "종교가 혈통계승되는 것은 내각 관료들이 합법성을 인정하는 만큼 연방헌법에 따른 합법적 조항"이라 해명한 바 있다.

한편 2010년 말레이시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슬람 신자가 61.3%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두 번째로 불교도가 19.3%를 기록했다.

박아름 기자 · 이승희 수습기자

미모의 비구니, '아이돌' 되다

日 나카무라 유카 스님, 음악 포교로 '인기'



일본의 불교잡지 〈프리스타일한 승려들(フリースタイルな僧侶たち)〉 43호에 실린 나카무라 유카 스님의 모습.

미모의 비구니 아이돌 스님이 세간의 화제다. 나라현(奈良縣)에 있는 어느 작은 사찰의 부주지를 맡고 있는 나카무라 유카(中村祐華) 비구니 스님이 그 주인공. 스님이라는 신분에 어울리게 아이돌 명도 이른바 '아이돌 보살'이라고 한다.

'재팬 매거진' 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나카무라 스님은 불교계에선 나름 인기 있는 유명인사라고 한다. 이미 9년 전부터 라이브 하우스 등서 찬불가를 부르며 아이돌 스님으로서 포교활동에 전념해 왔고 열성팬들도 존재한다.

절에서 태어난 스님은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절을 계승하기 위해 승려가 될 필요는 없었다고 한다. 학창시절에는 정말로 아이돌이 되고 싶어 노래연습 학원까지 다니며 자신의 끼를 갈고닦는데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점차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도 불교학과에 진학해 전문지식을 쌓았다. 그러던 중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고민 끝에 스님은 25세 때 '아이돌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불교포교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그동안의 노래 연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젊은이들에게 불교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던 나카무라 스님은 "절에서 가만히 젊은이들을 기다리기보다 제가 그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라며 라이브 하우스에서 아이돌 활동을 시작한 계기를 이야기 했다.

스님의 노래엔 불교적인 내용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 〈불설무량수경(佛說無量壽經)〉의 사서계(四誓偈)를 음악에 맞춰 독송하는가 하면, 불교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노래를 스님이 직접 작사하기도 한다. 스님은 이미 '보살 Revolution'이라는 타이틀의 1집 앨범과 올해 6월 2집 앨범 '보살 Calling'도 발매했다.

스님이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보러 온 관객과 팬들에게 불교에 대해 설명해주고 서로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스님의 공연 자체가 하나의 큰 법회인 것이다.

주성원 객원기자

인도, 대규모 불교 개종 행사 진행

달리트 등 200여명 개종
"신분증, 서약서만 있으면 OK"



'타임스오브인디아'는 10월 11일(현지시간) 인도 아흐메다바드시서 불가촉천민인 달리트를 비롯해 다른 카스트 신분제도에 있는 사람들도 불교에 귀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인디안익스프레스

인도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비쟈다샤미(Vijayadashami)'를 기념하는 날 다수의 힌두교 인들이 불교로 개종하는 행사를 가졌다.

인도 언론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10월 11일(현지시간) 인도 아흐메다바드시에서 불교로 많이 개종하는 인도 불가촉천민인 달리트를 비롯해 다른 카스트 신분제도에 있는 사람 등 200여명이 불교에 귀의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구자라트 불교아카데미'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다니림다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불교 개종행사를 열 것이며, 프로그램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행사는 지난해 두세라 지역서도 열렸다. 불교로 개종을 원하는 사람들은 신분증과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힌두교, 시크교, 자이나교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데는 어떤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무슬림과 기독교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불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슬람교와 기독교로 개종 시 법적 절차가 복잡한 것에 비해 불교는 단순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바라트 바우다 마하사다의 책임자인 PG 요티카르는 "간디나가르 지역의 암베드카르홀서 대규모 불교 개종 행사를 열 것"이라며 "메사나, 바나스칸사, 사바르칸사, 아흐메다바드 등 지역민들이 불교 개종을 기대하며, 다른 지역서도 25명이 불교로 개종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6일 암베드카르 사망일에 개종을 돕기 위한 대규모 모금 행사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부처님 나라이자 불교의 발상지이다. 따라서 지금도 불교가 인도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리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인도의 불교인구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인도서 완전히 잊혔던 종교인 불교가 다시 주목받게 되고 거의 찾아볼 수 없던 불자의 수가 그나마 인구전체의 1%에 가깝게 된 데에는 1956년 불가촉천민들의 집단개종행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1956년 10월 14일과 15일, 인도 나그푸르의 딕샤 부미서 50만 명이 일시에 불교로 개종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일찍이 세계에 유래가 없었던 가장 큰 규모의 개종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불교 집단 개종식을 주도한 인물은 암베드카르 박사다. 이는 인도에서 고적으로만 남아있던 불교가 살아있는 종교로 다시 부활하는 계기이자 '신불교'로 표현되는 현대인도불교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집단 개종을 이끌어낸 암베드카르 박사는 현대 인도에서의 불교부흥의 선구자다.

이보형 객원기자

"卍 나치 문양 아냐… 심각한 오용"

호주 탑모델 콜린, '만(卍)자 다시보기 운동' 주창



콜린 매튜라 제프리. 사진출처=stuff

호주의 탑모델 콜린 매튜라 제프리가 '만(卍)'자를 나치 문양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卍자 다시보기 운동'을 주창하고 나서 화제다.

인도계 호주인 모델 콜린은 10월 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Twitter) 계정에 "난 만(卍)자 문양을 보면서 나치의 악독함이 훔친 우리 선조의 아름다운 문화를 떠올린다. 이제 만자 다시보기 운동을 펼칠 때"란 글을 게시했다.

콜린은 뉴질랜드에 사는 그의 친구들이 만자 문양을 '역겹다'고 표현한 데 발끈해 이 글을 썼다고 설명했다.

콜린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행동"이라며 "사람들은 진실을 알기보단 논쟁만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콜린은 부처님의 성덕(聖德)과 길상(吉祥)을 상징하는 '만(卍)'자를 나치가 이용한 점에 대해 "심각한 문화오용의 예"라며 "파시스트 정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콜린은 앞서 10월 11일 '헤럴드'와 인터뷰서도 만자 역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콜린은 "스와스티카(卍) 문양은 아리안 전통에 속한다. 산스크리트어로 '선한 존재'란 뜻으로, 인도인 중에는 스와스티카란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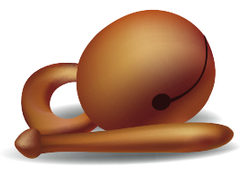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작은 죄라고 해서 막아서 지키지 않으면 모두 지옥의 원인이 되나니 비유하자면 작은 불씨가 산과 숲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과 같도다.

– 제법집요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비구니스님, 수계보살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정신분열,정신이상,
빙의,환청,환시,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배우자 관상을 보면 몇 살 때 어디 질병이 있는지, 죽음까지 알 수 있다
– 암, 질병, 묘터, 교통사고, 이혼을 얼굴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관상과 손금 비밀이야기 (판매중)
010-4014-8822

평생교육원 등록안내

(불교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파동명상요법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오는 분. 빙의,
영가장애로 고통받는 분,
우울증 등 심인성 질환자
041-555-0374
주지스님 찾으세요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 퇴마. 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연화사)
010-5269-4168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5960-4984
지리산 현담

25년 전통 국내산 떡갈비 도매

- 양념이 완료된 성형제품 100g 1장 900원 (1팩 2.5kg)
- 양념이 완료된 성형제품 58g 1장 295원 (1팩 17개)
- 육가공 10종 최고의 맛 보유

010-2264-1919. 053-583-1918
국내산 현미 부드러운 누룽지
–당뇨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 누룽지는 쌀눈(현미과 미강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만들었음. – 졸음운전 방지, 귀한손님 방문, 주전부리 간식 / 현미누룽지 270g, 150g / 보리와 현미 누룽지 / 병아리콩 현미누룽지

태극 기문 명리

(기문둔갑 명리비법 작명 영가작법 계의신결 팔괘법)
실전통변 완전정복
부경대학교교육원 전임
태극기문학회
051-949-1234

사주학 제10기 모집

- 교육과목 : 사주학, 매화역수, 성명학
- 초급반 : 사주명리 왕초보자,
- 실전반 (통변반) : 질의 / 응답식 강의
- 강사 : 정인스님

010-4047-0134
(서울 광진구 구의동)

특허기술로 탄생한 다이어트 돈까스 도매

- 9가지 자연 곡물 + 5가지 건강야채 (양파,당근,마늘,부추,연근) + 블루베리
- 뱃살 찌지 않는 야식 돈까스 (1봉 150g×7개) 16,000원
- 사찰 스님 드시는 돈까스 (연근 20%, 야채,버섯,대추 / 1봉 15,000원)
- 유치원 납품, 식당업소용, 창업,지역취급 상담

제조원:(주)효경식품 / 판매원:신푸드
010-2264-1919
053-583-1918

?고민 해결의 지침서

당신의 어떠한
고민도 해결 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010-7732-3267
농협 302-1030-1238-01 배종영

출가 1~2년차 비구니 부전스님 모심

(의식, 집전 공부하면서)
지역 : 울산, 안동 (지장정사)
울산 010-3858-0306
안동 010-6475-3439
※출가를 원하는 비구니 행자도 모심

문두루 기도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

공간내 행동이 자유롭고 흡입력이 좋은 마이크를 만들겠습니다. 이정도면 잘 나온다며 종교인의 심리를 이용하지 않고 재공사로 마음에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제10-1317539호)
010-4440-8687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근무지역 : 부산
급여 및 근무조건: 면접시 협의
연락처 : 051-742-7610(종무소)
조건 : 불교신도, 유경험자
나이 : 40~60대
좋은인연으로 신심있고 성실하게 임하실 수 있는 분 환영합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0-3746-888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걸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영남 범음 범패 학인모집

대상 : 비구 · 비구니 스님
현, 무형 문화재스님 직접지도
교육원 위치 : 부산 중구 보수동
문의처 (수시로 접수함)
김해지역 010-5687-9089 제주지역 010-4136-8734
양산지역 010-9340-9674 창원지역 010-4547-111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남구 장기면 산서리. 안향사)
054-232-9988
010-2771-379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보살님 모심

신병으로 고통받는분
무료로 낫게 해드리고
기공,수련하며 오래 같이 할분
(50대 초반이면 더 좋겠음)
소유권 일부 인계 할 수 있음
055-585-804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31-641-6311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소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영남 범음범패(통범소리) 제주도 교육원

- 실전위주 단기교육 특강 -

❶ 불교의식 각종 사물 단기교육
❷ 범음범패 실전위주 단기교육
❸ 각종(불공) 1인 진행법 단기교육 (전체교육 3개월)

현 시대에 맞는 실전위주의 톡톡튀는
불교의식 교육을 강의합니다.
제주도에서 홀로 포교당 운영 및 수행하시는
주지스님, 법사님 환영합니다.

■ 인터넷 유투브. 다음 (월오스님을 클릭 하세요!)
■ 영남 천수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극락무, 승무, 연화무, 지전무 등 배우실 스님, 법사님, 보살님 개인특강
■ 범음범패 문의 : 010-3189-0602 월오 합장
■ 불교무용 문의 : 010-3844-9565 하늘소리예술단장 (서련)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 서길 92

염불공덕 성취도량 문수암
전화 064-799-1559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어떤 사람을 친근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과 같아져서 혹은 착해지기도 하고 착해지지 않기도 한다.

- 제경요집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탁트인 바다 전망과 전통목조 사찰◀
- 위 치 : 진해구 용원동
- 총부지 : 240여평. 1만여세대 대단지 아파트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목조산신각(7여평)
- 가액 : 6억 5천만원

▶ 백두대간 격조높은 사찰◀
- 위치 : 강릉
- 총부지 : 2000여평(100%가용), 버스 진입 가능
- 건물 : 목조건물 5동(대웅전 25평) 산좋고, 물좋은 고장(계곡물 철철)
- 양도가액 : 5억 3천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경기도 안성 사찰 추천 급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요사채 등, 토지 1000㎡
- 법당 뒷편이 산이며 조용하고 아늑함 스님 건강상 부득히 양도하심
- 양도가액 : 2억 5천만원, 조정가능(융자있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북
◎ 부지 : 80평 ◎ 부지 : 2000평
◎ 법당 : 40평 ◎ 인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요사 : 60평
◎ 양도 : 8억2천 ◎ 양도 : 2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 총부지 : 183평
- 건물 : 60평
- 법당,요사채(방4개),화장실2개
- 정원,주차장 위치 좋은 암자
- 매도액 : 몽땅 2억 2천

직통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예천사찰(급)안내

- 법당, 요사채 94㎡
- 토지 440㎡, 주차가능
- 위치좋음, 마을에 위치
- 깨끗하며 조용함. 안정된 마을 사찰
- 가액 : 1억 2천만원(융자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서울연락처: 010-7347-1010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서울 포교원 안내

- 위치: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 지하철역5분거리/버스정류장앞
- 총 236.29 ㎡ (약70평/도시가스/상업용전기)
- 신중, 산신, 영가단, 법당
- 주방, 방5, 화장실2
- 가액 보3000만/월170/시설비없음

070-8154-9393(포교원전문)
010-3426-9393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청평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개, 욕실2개, 거실, 주방 (큰방 1개, 작은방 2개중 1개는 구들방)
- 난방 : 석유 보일러
- 실내에 패치카 있음(화목보일러 사용가)
- 가액 : 2억 4천만원

010-9411-5302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3길 42-9
- 대지 100평
- 대웅전 25평
- 요사채 48평
- 가액 : 1억 3천만원

010-5405-0752
043-733-2794

다용도 주택안내

- 위치 : 경기 양평 신복리 뒤는 산, 앞은 옥천시내 아신역에서 차로 5분거리
- 정남향(대지 257평 건물 40평) 지하암반수 마당 넓음,터와 주위에 약초 많음 (용도 :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등)
- 암환자 치유도량으로 최고
- 투자하고 같이 할 분도 환영
- 가액 : 4억 8천(실입주금 3억)

010-4234-253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화명동 (요지)
- 3층건물의 3층
- 법당, 공양간 약 60평
- 깨끗한 시설 완벽 (소임관계로 급 양도)
- 가액 :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신설공사비) 1800만원 (절충)

010-3582-89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 2,103㎡
- 법당, 요사 약 100평
- 창고, 기타 약 15평 외 20평은 기초공사 완료
- 석등 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5천만원

010-5518-6606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산속 솔밭 속 사찰
- 대지 670평, 가건물 5동
- 매실나무 350그루 외 다양한 유실수 보유
- 건강 관계
- 가액 : 2억 8천만원

010-6656-8117(주인직접)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 건물, 목조한옥, 원룸형 10.5평
- 부지 82평, 전 221평 (추가필지)
- 2차선 도로에서 200M
- 계곡물이 흐르고 도로 끝 지점
- 가액 : 9천만원

010-8562-448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약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3723-0777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시설비 금액은 1,600만원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010-9902-396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 3층 건물중 2층 약 80평
- 방 5개(주방,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 교통 편리
- 가액 : 보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4805-595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45평, 건평 92평,
- 4층 건물 1층 33평(법당), 2층 24평, 3층 20평 4층 15평
- 건물 : 철근 콘트리트구조 산밑 아담하고 조용한 곳

010-5931-1071

사찰,암자,선방부지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 평수 : 약 2,300평
- 지목 : 계획관리지역 + 보존임야
- 특징 : 조용하고, 전망과 조망이 좋고 투자성으로 매우 좋습니다. 주인직접
- 가액 : 2억 3천

010-2215-3657

사찰 및 요양원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저수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최고의 명당터
[사찰] ●1층 30평 천불상 관음궁전
- 2층 25평 삼존불 및 지장보살 소불 130불 요사채 45평(황토방1, 큰방3
[요양원] ●1층 90평, 2층 90평 입소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
- 가액 : 17억 5천
- 월수입 약 4천만원(원장 건강상 급 양도)

010-9567-0813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진악산
- 대지 444평, 법당 27평
- 요사 28평, 임야 171평
- 깨끗하고 주차장 완비
- 진악산 밑 조용하고 아늑함
- 가액 : 2억 7천

010-3401-6356
010-4355-635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5번길 17 (거제시장 안쪽 통닭골목)
- 3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주방, 욕실,창고 등 보신후 결정
- 가액: 보 5백만원, 월 60만원 (60평 정도됨)
- 시설비는 보신 후 결정

010-8385-24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 동림동 새고개 2길 47
- 대지 300평
- 법당 20평
- 요사 30평
- 가액 : 3억

011-9551-33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면지역
- 대지 : 120평, 전 390평
- 법당 : 목조 13평
- 요사채 : 26평, 종무소 6평, 산신각
- 가액 : 1억 8천만원(조정가능)

010-9231-6825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일월산
- 자락이 아담한 곳, 1급수 청정지역 앞마당 계곡물 흐르고 산기운이 솟는자리
- 땅 500평 법당자리 토목공사 완료, 20평 허가
- 요사채 30평, 현대식 목조건물 완공 2년반
- 밭 2필 500평, 개인사정 급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도심 속의 아담한 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121-11번지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 7500만원 대출 + 1억 1천 5백만원 합 가액 : 1억 8천 5백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마당 잔디. 조경 전망 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 7천 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8억 6천만원)
- 불사 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팔공산 부근
- 건물 80평
- 주차공간 양호
- 건강상 급히 양도하니 연락바람

010-3807-004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왜관읍 2번 도로길 60번지
- 2층, 40평, 법당, 삼존불
- 방,사무실,주방,에어컨3대 옥상(창고로 사용가)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1,0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4813-5123

(급)암자 같은 포교원 안내

- 경북 고령군 시설특 A급 몸만 오시면됨
- 법당1,삼존불 완비, 스님방1,거실1, 주방1,옥실1,창고1,원두막1, 보일러실 별도, 마당 넓고 조용한 한옥단독주택 약 25평이며 주변 주차공간 많음
- 비구니스님 오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 가액 :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약간있음,보시고 결정
- 외국 유학 관계로 급 양도

010-5807-24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 토지 : 대지 200평, 답 760평
- 건물 : 45평 (후불탱화, 지장보살 봉안)
- 방향 : 남향
- 야산에 위치한 아담하고 조용한절
- 전기, 전화, 인터넷 가능

010-2831-8573
(주인직접)

멋진2층전원 주택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 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 교통편리, 시설완벽 사찰로 100평 법당에 방 4개
- 가액 : 전세 천만원, 월50만원 집기일체 2,000만원
- 인연있는 스님에게 보시합니다.

010-5269-5440

사 찰 안 내

(시세이하 급 안내)
- 위치: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격 협의 가능(현지답사후 협의 요망)

010-8014-7707
010-3832-7157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세, 물, 공기 좋은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 130평
- 법당, 요사채 후원, 실외화장실
- 텃밭 무한정 사용가능
- 가액: 1억 6천만원

055-972-0338

토 굴 안 내

- 지리산 청학동, 산중턱 위치 차량주차 후 20분 산길 거리
- 완전수행도량, 약 800평
- 황토건물 4동, 법당, 삼존불, 각각 군불(재래식 난방)
- 꼭 수행하실분만 연락요망
- 가액 : 2억

011-9206-8464

포교원 사찰

-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453번지(창원불교사 2층)
- 46평, 소답동 시장요지 상가건물
- 삼존불, 신중탱, 칠성탱
- 최고의 시설 직접 와 보시면 알 수 있음!
- 내부시설비 3,500만원
- 건물 : 1억 7천만원 합 : 2억 500만원

010-4844-7098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청 네거리 대도로 인접
- 3층, 법당, 방2, 주방, 욕실
- 가액: 인수가 1천만원, 월 50만원 (보증금 300만원 포함)
- 종교법인 인수 하실분, 별도상담 요망 바람

0505-242-240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시내
- 평수 : 60평
- 정원 조성 되어 있는 기와집 단독주택
- 법당1, 방2, 입식주방1 창고1, 보일러실1
- 시설 : 삼존불, 집기류 완벽
- 가액 : 전세 2,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8223-4879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 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공양간 외 부속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급 2억 8천 (부득이한 사정으로)

010-4628-5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 오거리 (위치좋음)
- 2층 전체 약 30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가액 : 보 2,000만원 월 70만 시설비 답사후 결정(현재 법회중)

010-9598-575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 대지 670평, 가건물 5동
- 매실나무 350그루 외 다양한 유실수 보유
- 건강 관계
- 가액 : 2억 8천만원

010-6656-8117(주인직접)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미아 4거리 부근
- 법당 30평, 공양간 약4평
- 방 4개(대 2, 소 2) 화장실 2개(대1, 소 1) 창고 약 4평(대1, 소 1)
- 3층건물 3층
- 관리비(전기료 수도료외 없음)
- 가액 : 보2,500만원 임차료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6396-691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
- 독채, 한옥, 법당 2개
- 교통 편리함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 가액 : 보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6758-6639

포교원(급)안내

- 위치: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 1호선, 동묘역 2번, 3번 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 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급)암자 같은 포교원 안내

- 경북 고령군 시설특 A급 몸만 오시면됨
- 법당1,삼존불 완비, 스님방1,거실1, 주방1,옥실1,창고1,원두막1, 보일러실 별도, 마당 넓고 조용한 한옥단독주택 약 25평이며 주변 주차공간 많음
- 비구니스님 오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 가액 : 2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350만원. 조정가능
- 외국유학 관계로 급 양도

010-5807-245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마당 잔디. 조경 전망 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 7천 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8억 6천만원)
- 불사 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팔공산 부근
- 건물 80평
- 주차공간 양호
- 건강상 급히 양도하니 연락바람

010-3807-004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왜관읍 2번 도로길 60번지
- 2층, 40평, 법당, 삼존불
- 방,사무실,주방,에어컨3대 옥상(창고로 사용가)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1,0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4813-5123

(급)암자 같은 포교원 안내

- 경북 고령군 시설특 A급 몸만 오시면됨
- 법당1,삼존불 완비, 스님방1,거실1, 주방1,옥실1,창고1,원두막1, 보일러실 별도, 마당 넓고 조용한 한옥단독주택 약 25평이며 주변 주차공간 많음
- 비구니스님 오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 가액 :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약간있음,보시고 결정
- 외국 유학 관계로 급 양도

010-5807-24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 토지 : 대지 200평, 답 760평
- 건물 : 45평 (후불탱화, 지장보살 봉안)
- 방향 : 남향
- 야산에 위치한 아담하고 조용한절
- 전기, 전화, 인터넷 가능

010-2831-8573
(주인직접)

멋진2층전원 주택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 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 교통편리, 시설완벽 사찰로 100평 법당에 방 4개
- 가액 : 전세 천만원, 월50만원 집기일체 2,000만원
- 인연있는 스님에게 보시합니다.

010-5269-5440

사 찰 안 내

(시세이하 급 안내)
- 위치: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격 협의 가능(현지답사후 협의 요망)

010-8014-7707
010-3832-7157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세, 물, 공기 좋은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 130평
- 법당, 요사채 후원, 실외화장실
- 텃밭 무한정 사용가능
- 가액: 1억 6천만원

055-972-0338

토 굴 안 내

- 지리산 청학동, 산중턱 위치 차량주차 후 20분 산길 거리
- 완전수행도량, 약 800평
- 황토건물 4동, 법당, 삼존불, 각각 군불(재래식 난방)
- 꼭 수행하실분만 연락요망
- 가액 : 2억

011-9206-8464

포교원 사찰

-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453번지(창원불교사 2층)
- 46평, 소답동 시장요지 상가건물
- 삼존불, 신중탱, 칠성탱
- 최고의 시설 직접 와 보시면 알 수 있음!
- 내부시설비 3,500만원
- 건물 : 1억 7천만원 합 : 2억 500만원

010-4844-7098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청 네거리 대도로 인접
- 3층, 법당, 방2, 주방, 욕실
- 가액: 인수가 1천만원, 월 50만원 (보증금 300만원 포함)
- 종교법인 인수 하실분, 별도상담 요망 바람

0505-242-240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시내
- 평수 : 60평
- 정원 조성 되어 있는 기와집 단독주택
- 법당1, 방2, 입식주방1 창고1, 보일러실1
- 시설 : 삼존불, 집기류 완벽
- 가액 : 전세 2,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8223-4879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 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공양간 외 부속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급 2억 8천 (부득이한 사정으로)

010-4628-5699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토마스 비엔 · 비버리 비엔(명상 지도자)

〈3〉 당신의 삶 이야기를 말하라

‘말하는 대로’ 된다면 ‘영웅이 되라’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

어느 제자가 랍비에게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랍비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랍비의 대답은 매우 놀라웠다. 그는 하느님이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다고 답했다. 그만큼 인간은 이야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만약 일부 신학자가 그렇듯이, 신을 완전한 타자적 존재로 본다면 신은 자신의 피조물이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신이 인간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위 랍비의 대답은 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관한 것이 된다.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존재다. 우리의 삶을 비극이든 희극이든 드라마로 보는 경향은 뼛속 깊이 인간 본성의 일부이다.

궁극적으로 마음챙김이 지향하는 목표는 이야기를 초월해 삶의 실재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다. 깨달음이 추구하는 이상은 바위나 쇳덩이처럼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야기라는 환영의 그물에 옴짝달싹 못하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로부터 조금 떨어져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결코 도망갈 수 없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피해가기보다 그 속을 통과해가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관점이 지닌 한계에서 궁극적으로 자유롭고자 한다면, 우선 나 스스로 어떤 삶 이야기(life story)를 지어내고 있는지 자각해야 한다.

이 장에서 우리는 삶 이야기와 물질 남용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음식이나 알코올 등 물질 남용과 관련된 자신의 삶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중독 회복을 방해하는 잘못된 믿음들을 스스로 발견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자기 몸에 집어넣는 음식과 알코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어 자신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를 미화하거나 과장하고 있지 않은가? 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신비화시키지 않는가? 어쩌면 이제 자신에 관한 낡을 대로 낡아버린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하는 시점인지 모른다.

감옥 수감자 한 사람이 차량 절도 ‘전문가’로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차량 절도 기술을 완벽하게 갈고 닦았다. 어떤 자동차도 단 10초면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는 경찰과 벌인 추격전이나 아슬아슬하게 기적적으로 탈주한 경험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일종의 ‘무법자’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자신에게만큼은 매우 완벽한 삶 이야기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다음번 절도를 위해 자신의 ‘기량’을 더욱 갈고닦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의 삶 이야기는 ‘완벽한 차량 절도범’이라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짜여 있었다. 그는 그 신화를 쉽사리 바꾸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별의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는 논리와 합리성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다. 그보다는 신화와 전설, 이야기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우리가 단지 변화하겠다고 결심한다 해서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근저에 깔린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당신은 성공할 수 없다’고 계속 지껄인다면, 당신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성공할 수 없다.

> “
> **삶, 스스로 이야기 만드는 과정**
> **어떤 얘기 지어내는가 자각하고**
> **‘내가 주체’란 자립심도 가져야**
> **영웅 이야기 주인공 될 수 있어**
> ”

반항아는 술을 마신다?

알코올은 우리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면 알코올은 잠시 그걸 잊게 한다.

알코올의 실재는 우리 스스로가 지어내는 ‘이야기’와 무척 다르다. 알코올은 우리를 사회적으로 무례한 사람으로 만들 뿐 아니라 인지 기능과 성 기능까지 저하시킨다. 협응력(근육 · 신경기관 · 운동기관 등 움직임의 상호조정 능력)과 신속한 반응 시간을 요하는 자동차 운전 등 일의 수행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코올이 멋진 일을 한다고 믿는 이유는 우리가 술을 마시면 마시기 이전과 다른 영역, 즉 ‘이야기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즉 기대감은 알코올에 마법과도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은 알코올의 실제적 · 화학적 작용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하다.

알코올 외의 약물에 관하여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서로 유사하다. 흥분성 약물이 지닌 한 가지 특징은, 그것을 취할 때 스스로 강하고 멋진 존재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렇게 약물로 인한 즐거움에 빠져 있는 와중에 삶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건 아닐까? 어떤 점에서 보면, 종류를 불문하고 약물 남용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삶에서 일어나게 마련인 문제들에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삶과 실제 삶의 간격을 자각하지 못하게 된다.

알코올을 포함하여 약물 사용과 관련된 공통 주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반항이라는 주제다. 약물 사용은 자신을 통제하려는 상대방에 대한 반항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반항이라는 주제가 약물과 알코올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만약 자유로워지고 싶고 반항하고 싶을 경우(누구나 어느 정도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억누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유와 반항의 욕구를 분출하는 보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반항적 기질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들은 삶이라는 동아리에서 스스로를 단절시키기보다 그것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뿐이다.

약물의존에서 회복된 이야기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다. 모두 ‘죄와 구원’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그런 이야기가 지닌 한 가지 특징은 나의 구원을 나 이외의 사물과 사람, 존재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신을 대신해 속죄하는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 모임이 구원자일 수 있다. 만약 그런 존재가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반드시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안의 붓다가 나를 구한다

영웅 이야기는 자신에 대한 의존, 즉 자립심이라는 주제를 강조한다. 이를 나타내는 심리학 용어가 바로 ‘내적 통제위(Internal locus of control)’라는 것이다. 이것은 삶이란 외부에서 나에게 덮치는 사건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관점을 표현하고 있다.

심리치료 결과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치료와 치료사 덕분으로 여기는 사람은 심리적 문제가 재발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반면 자신의 노력으로 호전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치료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한다.

이면에 있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즉 대속자 신이 나의 바깥에 있느냐, 아니면 신비전통에서 말하듯 내 안에 있느냐는 물음이다. 때로 신이 바깥에 있다고 여기는 것은 위안이 되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외부의 신성한 힘에 의해 구원받았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사악한 힘에게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신이 자기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신뿐만 아니라 악도 다뤄야 한다. 불교 수행 가운데, 매일 붓다에 귀의하는 수행이 있다. 사실 이 수행에는 ‘내 안의 붓다(이미 지혜롭고 깨어 있는 존재)’에 귀의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영웅 주제의 변주로서, ‘깨달은 사람’이라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혀 살기보다 자기 안의 붓다나 예수와 연결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속해 있는 ‘더 큰 이야기’와 연결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전통이 현대의 문화와 상호작용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 이야기와도 창조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특히 과거의 전통이 개인이 가진 부정적 이야기를 더 강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속삭이는 죄-구원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것 역시 이야기다. 그런데 ‘깨달음은 이야기’라는 말에는 ‘깨달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깨닫는 행위만이 존재한다고 한 스즈키 순류 선사의 말도 이런 맥락이다. 이런 의미에서, 깨달음이란 매 순간 명료하고 고요하게 깨어있는 상태 외의 다른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깨달음을 거창한 체험이나 고상한 정신상태로 간주한다면 이 점을 놓치게 된다. 참된 깨달음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 속에 감추어져 있다. 물고기가 자신이 헤엄치는 물을 의식하지 않듯이, 새가 자신이 나는 하늘을 느끼지 않듯이, 참된 깨달음은 일상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 글은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慧眼史書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한국최초!!
내손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 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해 드립니다.)
동영상 CD(외장하드)를 함께 드리며 화상강의도 가능합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념 著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부처님 마음 공부

무량 청정암 열린 마음선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부처님 마음공부를
함께하실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아 래

❶ 교육과정 및 일정

과 정	요일및시간	수업내용	
기초과정	매주 화요일 (요일 변경 가능)	염불선	1단계 : 불교이해 2단계 : 경전독송 이해
중급과정	매주 수요일	참 선	참선이해, 법거량
고급과정	매주 금요일	간화선	화두참구, 깨달음

❷ 수업 신청 방법
– 기초과정 : 3개월 선착순 (20명 이내 한정)
– 법사와 1대 1 수업 운영
– 수 강 료 : 3개월 (30만원)

❸ 교육장소 : 무량 청정암
❹ 교 수 : 무량 청정암 최정훈 법사
❺ 문 의 : 010-2559-6886

무 량 청 정 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76번길 23



배종훈의
명상카툰



삶의 정상

우리 삶, 산을 오르는 것. 사람마다 산의 높이도, 오르는 길도, 만나는 사람도 다르다. 어떤 이는 매우 험하고 높은 산을 변변한 장비 없이 오를 것이고, 누군가는 잘 정비된 등산로를 따라 오르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깎아지른 절벽을 외줄 하나에 의지해 오르고, 어떤 이는 중도에 포기하고 내려오기도 한다.

또는 서로 같은 길을 가기도 하고, 잠시 헤어져 다른 길을 걷다 다시 만나기도 한다. 어떤 이와는 함께 도와가며 오르고 때론 서로 앞서가기 위해 싸우기도 한다.

이토록 힘들게 오랜 시간 오른 산 정상은 어디일까? 그곳에 행복이 있을까? 서글프지만 정상은, 그러니까 우리 삶의 종착은 죽음이다. 그러나 우린 죽기 위해 살지 않는다.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유의 순간에만 인식될 뿐이다.

내일은 확신할 수 없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다. 주어진 현재에 충실하고 이 순간에 행복하기 위해….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긍정적 미래 생각하기

"이 사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와요"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이 사회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한참 공부에 집중해야 할 학생이 무슨 소리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이상한 틀에 틀어박혀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학교라는 제도도 그렇고, 입시도 그렇고, 취직도 그렇고, 나아가선 주택 구입이나 결혼 · 양육 · 노후 문제 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저희들한텐 선택권이라는 게 없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경쟁에만 내몰리게 만들어놓은 사회에서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생각하면 벌써 한숨부터 나옵니다.

먼저 틀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도둑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해요. 자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어떠한 시련과 위기도 견뎌내며, 아주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걸 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왜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학생은 그걸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에요.

알은 젊었을 때 유명한 화가이자 도예가였어요. 그에게는 아내와 두 명의 훌륭한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큰아들이 심한 복통을 호소했어요. 그러나 알 부부는 단순한 배탈로 여기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큰아들은 죽고 말았어요. 사실은 급성 맹장염을 앓았던 거죠. 그 충격 때문인지 얼마 뒤 그의 아내마저 여섯 살밖에 안 된 둘째 아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두 가지 비극이 안겨다 준 심한 고통과 상처로, 알은 비참한 날을 보냈어요. 날마다 술에 의지해 생활했고, 급기야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에 이르렀어요. 가정과 집, 자신이 만든 미술작품 등 모든 걸 하나둘씩 잃어가던 알은 십여 년 뒤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허름한 여인숙에서 혼자 쓸쓸히 생을 마쳤어요.

알의 죽음을 전해들은 보비 기이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허무하게 인생을 소비한 그에게 경멸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보비 기이는 생각했어요. '얼마나 큰 손실인가! 그야말로 헛되게 낭비한 삶 아닌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보비 기이는 그 가혹한 평가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혼자 남은 알의 아들 어니가 어느덧 어른이 된 거죠. 어니는 보비 기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선량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비 기이는 어니의 그런 애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늘 궁금했어요. 어느 날 보비 기이는 용기를 내 어니에게 물었어요.

"어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네. 내가 알기로 자네를 키운 사람은 자네 아버지 알 혼자네. 도대체 알코올 중독자인 자네 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자네를 키웠기에 이토록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어니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학에 가기위해 집을 떠날 때인 열아홉 살 때까지 아버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게 키스를 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난 널 사랑한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도둑에게도 배울 점 있어
옛 것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가 가야할 방향' 세워져
자신의 꿈 성취하기 위해선
현재 자신에 최선 다해야

보비 기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물질적으론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지만 알은 가슴 깊이 사랑을 간직한 아버지였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훌륭한 아들을 남겼던 거예요.

배움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실천해 보이는 것이에요. 인간은 모두 서로 가르치는 사람이자 행동하는 존재거든요. 학교라는 제도는 그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일깨워주는 장소이고요.

학생에게 필요한 건 창조적인 삶이에요. 녹음기처럼 단순히 반복되는 학교생활과 일상이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도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창조적으로 개선해야할 일이 있어요.

창조적인 삶은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학생 안에는 자기 자신도 놀라울 만큼 행복하고, 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학생 고유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창조적인 삶이에요.

개미 쳇바퀴 돌 듯 돌아가는 현재 사회를 보면서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요. 정해진 규정과 관습과 전통과 패턴에 따라 똑같이 반복되는 사회가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라고 해서 도둑이 도둑질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평범하고 엉망진창인 현장 속에서 창조적인 행위가 가능해요. 스티브 잡스처럼 창조적인 삶을 산 사람이 빛을 발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말이 있죠. 창조적 삶은 오히려 헌것서 새것을 발견하고, 새것으로 새것을 만나는 삶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현재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가 새것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낡은 사회방식과 갈등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저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것으로 새것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받아들임과 믿음이 중요해요.

이 세상에 별개의 존재, 제삼의 존재는 없어요. 미래에는 오직 불확실성만 존재하고, 따라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세상에는 우수한 말(馬), 좋은 말, 용렬한 말, 우둔한 말 등 네 종류의 말이 있다"며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네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하셨어요.

첫째,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과 생명의 무상한 생멸 현상을 보고 정신 차려 힘써 정진하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니 이들은 우수한 말과 같다. 둘째, 사람은 뜨고 지는 해와 달, 피고 지는 꽃을 보면서 생명의 무상함을 깨닫고 자신에게 채찍질해 태만하지 않으니 좋은 말과 같다. 셋째, 자신의 친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겪는 죽음의 고통과 육신의 훼멸, 고달프고 초라한 인생과 육친 간의 이별의 고통을 보고서야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그는 마치 용렬한 말과 같다. 넷째, 병마가 몸에 침습해 몸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흩어졌을 때야 비로소 세상을 헛살았음을 통탄하니 이들은 우둔한 말과 같아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말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지요. 〈끝〉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118호 현대불교
2016년 10월 19일 (9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내 마음의 봄은 항상 봄이지 사계절이 따로 있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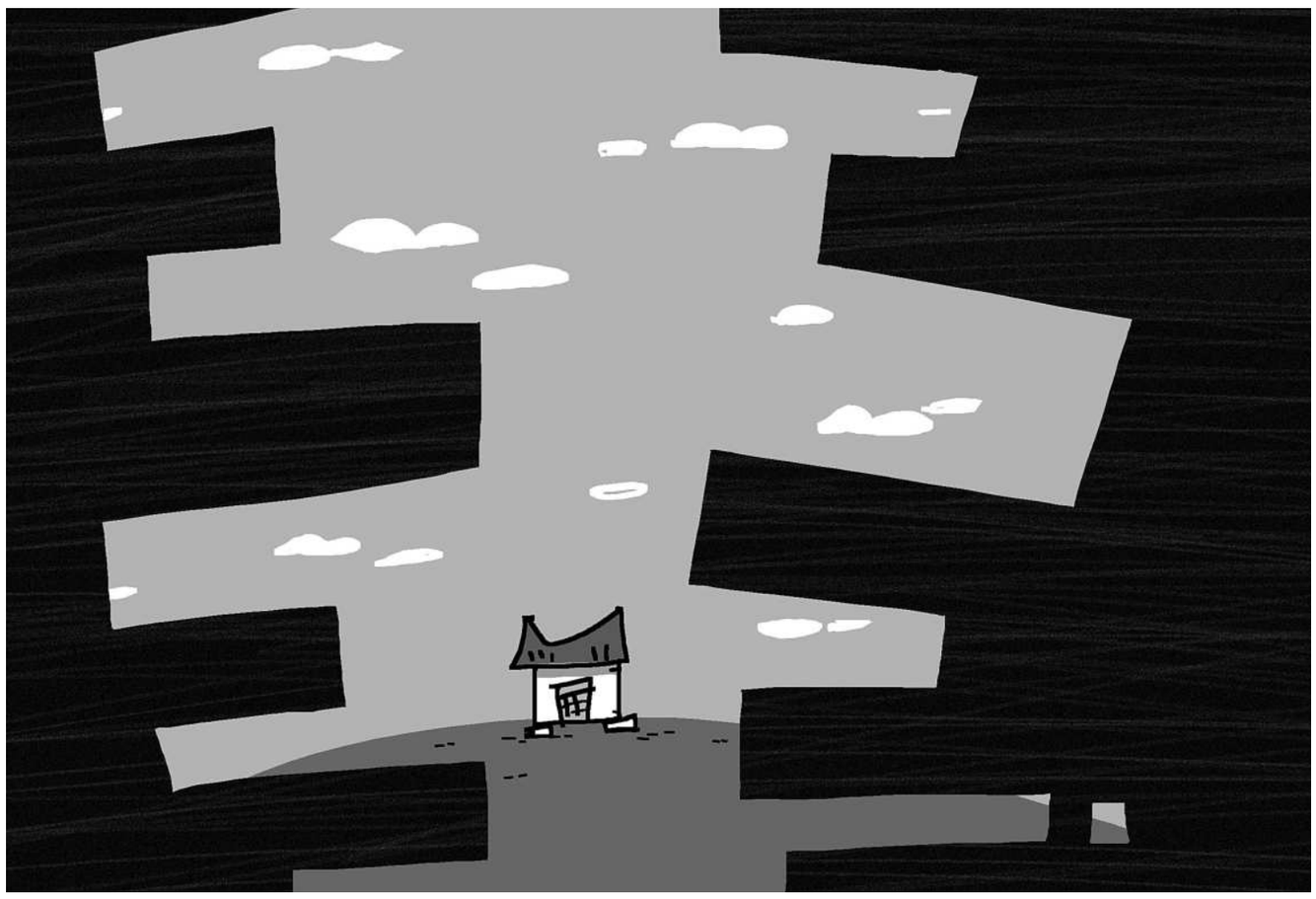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인생을 결정짓는 장본인

질문 스님께서는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것이 내 탓이니, 모든 것을 내 안의 근본에 맡기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모든 인생의 실마리가 다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 인생을 결정짓는 그 장본인이자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람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아야 공부하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라기보다도 인생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을 근원으로 해서, 또는 우리 미생물로 하여금, 그 인연에 따라서, 인과로 인해서 정자와 난자의 뜻을 받아서 살과 몸과 피와 뼈를 빌려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고통 속에서, 고통이라고 하기보다 인간 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면 인간이 돼 가지고도 고통스럽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왜 그렇게 각본대로 나오는가? 인간은 왜 돈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는가? 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왜 마음대로 되질 않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했던 말 되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할는진 모르지만 진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인연에 따라서, 인과로 인해서 몸을 받았다면 엄마 아빠라는 인연도 여러분 차원에 따라, 여러분과 똑같은 차원으로 인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든 중생들도 수십억 마리가 여러분의 인연에 따라서, 인과로 인해서 여러분 몸속에 작은 별들처럼 회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생명들이 회전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움죽거리는가 하면, 회전을 하는 그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 바로 그 생명들의 집이죠. 그런데 그 생명들이 한데 모여서 마음을 내고, 마음을 내기 이전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내며 회전을 하는 삼합이 바로 공(空)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천차만별로 여러분의 머리를 때리고 나옵니다.

그전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팔만 사천 번뇌가 들락거린다."라고요. 여러분이 한 생각을 제대로 못하면 악의 인연으로 하여금 바로 팔만 사천 번뇌가 털구멍을 통해서 들락거리고, 여러분의 한 생각이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루어져 자유스럽고 여여하다면 바로 그 털구멍을 통해서 팔만 사천의 부처가 들락날락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또 자유스러운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몸뚱이 속에 어째서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모여서 회전을 하고 있는지…. 또는 역력하게 우리 마음으로부터 머리로, 두뇌로부터 사대(四大)로 각각 알려 주는 통신! 그 통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마음 내는 게 있고 감각, 촉각, 시각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다 같이 미생물에서부터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쫓고 쫓기고, 부모를 잃고 울고, 자식을 잃고 울고, 서로 울며불며 다지고 쫓기며 인간까지 됐으니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수억겁의 생을 거쳐 오면서 살아나오던 습의 인과가 바로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인연을 따라서 모두 들어 있으니 고(苦)가 있다고 '나는 피해야겠다.' 이럴 생각은 아예 마세요. 왜? 그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어디로 피해서 갑니까?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인연에 따라서, 만약에 악조건의 인연이라면 그 악의 무리의 생각이 떠올라서 그대로 악조건으로 길을 갈 것이고, 선의 조건이 삼분의 이가 된다면 바로 선의 조건으로 여러분의 두뇌를 통해서 갈 것입니다.

그러니 천차만별 인연의 소치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각본대로 솔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본대로 짊어지고 나온 이 몸뚱이가 인연의 소치라면 어떻게 해야만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인연의 소치는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생각하고 행한 그 자체가 각본대로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 감겨서 현실에 자꾸자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행동하고 가는 것은 미래에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도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도 공해서 없다." 이렇게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몸속에 수없는 자연인으로서 갖가지로 저지른 그 인연의 소치가 지금 생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마음들이 바로 여러분이 마음 쓴 대로 인연에 따라서 나한테 온 것이니까 그 마음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녹여라. 거기에 끄달리지 말아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끄달린다면 그 인과 속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뚱이 속에 다 가지각색으로, 각본대로, 자기 한 대로, 저지른 대로, 그 의식대로 감추어진 것이 그대로 그냥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바른쪽 발은 이만하고 (양 팔을 벌려 보이시며) 왼발은 요만하다면 어떻게 걸음을 걷고 다니시렵니까? 우리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아주 짧은 그런 형국이요, 눈도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긴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귀도 한쪽 귀만 있지 다른 한쪽 귀는 없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살기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선과 악이 모조리 내 몸 안에 들어 있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나온 데다가 되놓으면, 맡겨 놓으면 바로 그것은 카세트에 앞서 감긴 것이 다 지워지고 현재에 넣는 것만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연방 고정된 관념이 없고 고정된 행이 없고 생각도 고정된 게 없으니, 생각나는 대로 거기 놓게 되면 담겼다 없어졌다 담겼다 없어졌다 하니 항상 그릇은 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방편입니다. 모든 게 '공했다' 고 말을 하지마는 우리는 실지다, 실지가 아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 사는 자체가 그대로 실지입니다.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가야만이 기계를 돌려도 그렇고, 맷돌질을 해도 그렇고, 의정을 내도 그렇고 헛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단지를 모시고 있는데

질문 스님, 제가 얼마 전에 고모님 댁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찾아뵙는 건데 집이 굉장히 초라하고 그랬는데 집 안 귀퉁이에 조그만 단지가 있었습니다. 옆에 쌀도 있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싶어서 고모님한테 여쭈었더니 돌아가신 시어머님을 갖다가 모시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섬뜩했는데 알고 보니 그 고모님은 오랫동안 불자로서 부처님을 믿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고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고모님은 그냥 제 이야기를 흘려듣는 것 같았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떻게 고모님을 위해서 마음을 내 드려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런 예가 있었어요. 어느 집 시어머니가 상자에다 옷을 해서 놓고 항아리를 해

☞ 26면으로 계속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뭇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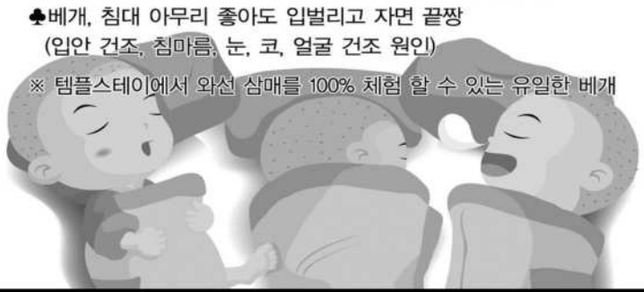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살아오면서 입력된 모든 것이 바로 현재 이 속에 다 있다

☞ 25면에서 계속

놓고 쌀을 놓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거를 믿는다 하는 집으로 어떤 색시가 시집을 갔더래요. 그 색시는 이 공부를 하는 색시예요. 그래서 하루는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길래, "그러면 모든 걸 주인공에다 맡겨 놔라. 그것은 그냥 물건일 뿐이다. 마음에 맡기면 물건일 뿐이니, 시어머니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치우지 말고, 또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마음에 어깃장을 내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고 너만 알고 한마음으로 모든 거를 넣어라. 모든 걸 넣게 되면 천도가 되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선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먼지를 털기 위해서 거기까지도 막 치고 털고 이러니까 시어머니는 껌벅 죽는 거죠. 그거 모셔 놓은 데다가 함부로 그렇게 먼지를 털고 그러느냐고요. 그러니깐 그 며느리가 있다 하는 소리가 "어머님, 이것도 먼지가 앉으면은 아니 되니깐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드려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자도 먼지가 있으면 상자가 더럽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냥 말도 안 하시고 쓱 삐져서 들어가시더니 그날 저녁에 꿈을 꾸어 가지고는 그 이튿날 "야, 참 이상스러운 꿈을 꿨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하니까 "아, 그 상자 속에서 글쎄, 전부 그냥 나가더라." 하하하. "상자 속에서 전부 나가서 구름을 타고 가는데 아이, 그 상자는 그냥 비었지 않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휴, 정말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이라고 "아유, 그런 꿈을 꿨는데 정말 저 상자는 비었더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휴, 그러면 어머님 꿈이 그냥 맞겠네요, 그러니깐 그거는 그냥 태워 버리는 게 좋겠지요." 하니깐 "그래라. 비었더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예언에 대해서

질문 불교를 공부하지 않은 서양의 유명한 사람이 수백 년 전에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80, 90%가 맞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래가 아예 짜여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또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미래를 80, 90%까지 미리 맞출 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이 참 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데요, 내가 항상 그러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다고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입력된 모든 것이 바로 현재 이 속에 다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다 들어 있어서 거기서 그대로 차곡차곡 입력됐던 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예언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공(空) 안에서 나오는 것이니 삼세심(三世心)을 일심(一心)으로 뭉쳐서 공 안에다 넣어라." 이러는 거는 일체 삼세가 다 공했으니까, 그 공 안의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다 모두 놓으라는 겁니다. "한마음" 이러면 거기 벌써 과거 · 현재 · 미래가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미래를 예언하는 자는 소인이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거는 자유자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예언이 없습니다. 왜냐?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럴 수도 있고, 내일 이랬다가 모레 저럴 수도 있고, 허허허…. 아니, 바꿔 놓기도 하고 뒤집어 놓기도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되게 딱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을 못 한다는 얘기죠. 예언자는 아예 소인이면서도 도둑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언자는 소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컵을 여기에 갖다 놨는데 이거를 "여기 있다" 하고 예언을 한다 해도 잠시 후에 이 컵을 또 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언한 게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언자가 정말 있어서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예언한 것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부처님께 걸린다면 예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는 소인의 행동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본 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한 번 들은 게 그대로 있습니까? 종소리 나는 거를 들고 올 수가 있습니까? 먹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귀에다 넣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예언을 못 합니다. 종소리가 금방 났다 금방 멎었다 하는데, 어떻게 종소리가 난다고 예언을 합니까? 그리고 종소리가 안 난다고 할 수도 없고 종소리가 난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소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양자역학과 한마음과의 상관관계

질문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큰 줄기는 시간과 공간에 관한 상대성 이론과 그의 내실을 밝힌 양자역학을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물체를 분석해 보더라도 자꾸만 쪼개 나가면 분자, 원자, 나중엔 소립자, 즉 극미립자의 세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극미립자의 세계는 입자의 나타남과 없어짐 즉, 생멸의 세계가 아주 무상합니다. 현대의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의 결론은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입자의 나타남과 없어짐의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 장이라고 불리어지는데, 반야심경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 하고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한마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답변 네, 그것이 상관이 있고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리학이나 과학적으로 그런 입자, 소립자까지…, 지금 살림하는 데도 조그마한 데까지도 우리는 지금 하고 가고 있죠. 그렇듯이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근본적인 지수화풍으로 일체가 다 뭉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그런 맨 끄트머리의 소립자까지도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핵이 있으면 바로 전자가 있고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바로 핵이 되고, 핵을 보호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물질하고는 정반대로 우리가 그런 거를 연구하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망원경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떤 한계를 두고 봅니다. 그러나 심안이라는 것은 어디가 멀다, 수천, 수만억 광년이다 할지라도 내가 요기 보는 거와 같은 겁니다. 이것이 둘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둘이 아니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서 보느냐? 그게 아니죠. 자기의 마음의 그 밝은, 면경과 같은 밝은 마음으로 본다면 앉아서 그 모든 것을, 천체를 볼 수 있고, 반을 볼 수가 있고, 어떤 부분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불가에선 천안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천체망원경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성이 아니고는 절대로 다 볼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게 그래서 무위심, 즉 말하자면 무심과 유심이 같이 혼합이 돼서 행을 할 수 있는 그 봉을 본다면 과학자들도, 천문학자들도 진짜 그 이름 없는 천문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이름만 천문학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이지 천 가지의 그 뜻이 다, 내가 보는 눈이 그대로 문이 돼서 벽도 없고 걸림 없이 내가 볼 수 있다면 연구를 하면서도 자기가 자재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보기만 해도 도가 아니니라" 이랬거든요. 본다고만 해서 무슨 이익이 있어야지. 또 듣는다고만 해서도 이익이 없고, 남의 속을 안다고만 해서도 이익이 없고, 또 남이 어디서 어떻게 왔다는 걸 안다고 해도 이익이 없단 말입니다. 그건 왜? 잘 들으세요, 이걸. 그게 왜 이익이 없느냐? 무꾸리를 하러 가니까 "새달에 너는 죽을 운수다." 하고 이걸 무꾸리장이가 안다고 합시다. 족집게처럼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을 운수만 알았지, 남의 속만 알았지 그것을 자유스럽게, 죽을 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저렇게 갖다 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 다섯 가지로 인해서, 누진을 통해서 지리학이나 이러한 것도 그냥 자유자재죠. 이 지역이 좋다, 여기가 좋다 이러한 문제도 자유스럽죠. 이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언짢은 것도 아니니 그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내가 정하는 대로 그냥 법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흉내가 되지만, 이 마음의 도리를 길러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경을 만약에 흉내를 낸다면 자기 몸이 해쳐지고, 즉 말하자면 "야호!" 하면 안으로 들듯이 흉내 내는 그 말이 자기한테 그냥 반영이 돼서 자기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생의 흉내 내는 그런 모순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진짜로 아시려면 잘 공부하세요. 젊은이니까 앞으로 창창하지 않소? 그러니 잘 공부를 하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아는 것도 참, 모두를 알아도 그것을 누가 안다고 하지 않고, 말없이 그대로 길을 지나가다가도 건질 수 있고, 길을 가다가도 오다가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무 한 동 가지고 은혜를 갚을 수 있겠냐?"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분이 '아이고! 알았다.' 하고서 그때 나무를 동댕이치고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은사 스님한테 절을 삼배를 올리고 "감사합니다." 했거든.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 하니까 그냥 가만히 합장을 하고 싱긋이 웃고 앉아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부처님의 골수를 얻어서 너는 오늘 그 집의 물 한 그릇의 그 이치를 알겠구나!" 하고선 비켜나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어려운 집을 그 해에 마름을 받게 하고 자연히 보리쌀 뜨물을 안 먹고 쌀밥을 먹게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동네 일판에서 둘째 가라면 섧게 먹고살기가 훌륭하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해마다 공양을 잘 올리고 그 집의 자손들이 불가에 또 인연을 맺고 그래서 크게 부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남의 흉 볼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남을 원망할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 가기도 바쁜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가을이 돌아 닥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내 마음에 봄이 오도록 해야겠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었죠. 요거 한마디만 하고 끝내죠. 어떤 스님이 아주 영하다고, 정말 제일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마적, 도둑이 많았죠. 그러한 산도둑이 떼로 몰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스님이 그렇게 유명하다니 내가 한번 만나보리라." 그래서 칼을 들고서 그 스님이 오시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이 오시니까 하는 소립니다. 자기 속말로 '흥, 저렇게 묘하다는 스님이 내가 여기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와, 저렇게.' 하고 아주 방탕한 웃음을 웃었죠.

그런데 스님이 오시니까 도둑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유명해 봤던들 당신 가슴에는 뭐, 철판을 깔았기에 칼이 안 들어가겠느냐? 당신이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이 칼은 사정없이 당신의 가슴을 찌를 수 있고, 가슴을 찔러서 뭐가 그렇게 유명한 게 있나 한번 째 보고 싶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예요. 껄껄 웃으면서 "추운 겨울에 고목을 자른들 꽃이 나오겠나? 봄이 오면 스스로 이 고목에서도 꽃이 피고 스스로 열매가 열릴 것을 말이야. 그러니 그 뜻을 알게." 하시더랍니다. 그래도 수십 년을 마적으로 다녔으니 경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그 소릴 듣고 칼을 뚝 떨어뜨리면서 거기서 그냥 삼배를 올리고 그 도둑들, 꼬마 도둑들도 다 그 스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나한도 다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된 그런 이치도 있지만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제자가 된 분들도 여러 분이 그 당시에 있었다 합니다.

내 마음의 봄은 항상 봄이지 사계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봄이 와서 물이 흐르고 그 물맛이 좋고, 열매가 열려서 수많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무르익히신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 만 가지 열매의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가짐가짐을 가지시고 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이 남의 흉 볼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남을 원망할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 가기도 바쁜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불자 세상보기

외국인 세 모녀가 일깨워준 시민의식



허 남 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누군가 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잔잔한 감동과 함께 몸소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던 우리 자신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다. 어쩌면 그들은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세상이 그래도 여전히 살만한 곳임을 말없이 가르쳐주는 불보살님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난주 SNS 이용자와 네티즌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외국인 세 모녀의 이야기도 그와 같은 감동을 선사해주었다. 화제의 동영상은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민소매 차림의 외국인 엄마가 앙증맞은 모자를 쓴 예쁜 꼬맹이와 함께 기껏해야 초등학교 저학년쯤으로 추정되는 어린 딸을 데리고 바닷가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외국인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마침 부산 광안리 해변을 지나던 어느 목격자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했고 감동을 받은 나머지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SNS와 인터넷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파일 밑에 달린 댓글에는 '아이고, 이뻐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끄럽네', '이런 게 제대로 된 시민의식이다', '너무 감동적이다'와 같은 쪽지들이 줄을 이었다.

당시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에는 태풍 '차바'가 몰고 온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동영상에 나오는 세 모녀는 청소도구를 이용해 각종 쓰레기들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파도에 떠밀려온 해초류와 생활용품 따위가 뒤엉켜 흉물스러운 쓰레기를 정리하는 세 모녀의 모습이 평소에도 늘 하던 익숙한 작업인 듯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였다. 어쩌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처럼 꾸밈없는 장면들로부터 더 큰 감동을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동영상 속의 세 모녀는 근처에 사는 동네 주민일 수도 있고 잠시 부산에 들른 외국 관광객일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외국인 모녀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우리들의 부끄러운 시민의식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쓰레기 청소를 해야 할 시민적 의무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관계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섣부른 단정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

태풍 인한 광안리 쓰레기를
치우는 외국인 모녀 '귀감'
윤리적 자화상 경책에 감사

는 새삼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0대 후반에 접어든 필자는 내 소유의 자동차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깨끗한 주거환경과 넘쳐나는 먹거리는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민주시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가를 반문해 보면 나 자신부터 대답이 궁색해지고 만다. 잦은 교통위반에다 내 집 앞의 눈치우기에도 모르는척 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곱씹어 볼수록 필자의 시민의식 점수는 바닥을 맴도는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인은 공동체적인 유대감이 유달리 강한 민족이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도 서로 돕는 미풍양속의 문화를 널리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슬그머니 자리 잡기 시작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건전한 시민의식의 형성과 실천을 거부하고 말았다. 그렇게 사는 동안 우리는 말 그대로 품격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자문자답해 볼 일이다. 그런 점에서 어린 두 딸과 함께 낯선 이국의 해변에 밀려든 쓰레기를 치우는 외국인 가족의 솔선수범은 우리의 시민의식을 거듭 일깨워 주고 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외국인 세 모녀가 쓰레기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보태 하던 작업을 마무리 했다는 점이다. 시민의식은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것인가 보다. 작지만 큰 울림으로 우리들의 윤리적 자화상을 경책해 준 이름 모를 외국인 세 모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기자 칼럼

천진불 행사에 19禁 노래 웬 말



윤호섭
취재부 기자

우리나라 음악계에 어느덧 '힙합(Hip Hop)'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TV 오디션과 예능 프로그램에는 래퍼들이 대거 출연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음악차트 상위권에 힙합곡들이 즐비하다.

이를 반영하듯 불교계에서도 학인 스님들이 '쇼미 더 붓다(Show me the Buddha)'라는 주제로 랩과 비트박스 공연을 선보여 SNS상에서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얼마 전, 어린이 천진불들을 위한 행사가 수도권 한 사찰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차 방문했다. 왕성한 어린이법회 등을 통해 지역 어린이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이 사찰은 '행사 기획력과 규모' '사부대중의 활발한 동참'이 잘 이뤄져 포교모범도량으로도 손꼽히는 곳이었다.

이날 1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은 조별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운동회 등을 마치고 경내 마당에서 야외활동을 하기 위해 옹기종기 모였다. 마당 곳곳에는 흥을 돋우기 위한 대형 앰프들이 설치돼 있었고, 신나는 노래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창 아이들이 뛰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청소년 청취불가 판정(일명 19禁)'을 받은 힙합곡이 앰프를 타고 퍼져나갔다. 영어와 한국어로 된 욕설이 난무하는 곡이 경내를 뒤흔들었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은 놀이 삼매경에 빠져 인식하지 못한 듯했다. 십수 명에 달하는 지도교사들 역시 개의치 않고 행사를 이어갔다. 그 이후로도 욕설이 담긴 몇몇 곡이 나왔지만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문제라고 인식하는 이가 없었다. 아쉬움이 남는 행사였다.

그로부터 얼마 뒤, 다른 불교계 어린이·청소년 행사 취재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 나란히 정렬된 여러 체험부스들과 행사장을 빽빽하게 채운 아이들. 그 사이를 타고 흐르는 욕설 담긴 노래는 성인과 미성년자를 갈라놓는 장벽이자 행사 취지와는 거리가 먼 이질적인 느낌이었다. 몇몇 아이들은 그 노래가 신나는지 흥얼거리며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수도권 사찰서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행사서도 노래가 딱히 문제 되진 않았다.

왜 19금 노래가 아이들 행사에서 울려 퍼지고, 이에 대해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았을까. 가장 큰 이유는 '어른들의 무지(無知)'다. 아이들에게 불교를 더욱 친숙하게 전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자 노력했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탓이다.

음악사이트에서 '성인인증' 한 번만 해두면 더 이상의 절차가 없어 무심코 선곡했을 수도 있고, 딱히 가사를 음미하지 않으며 들어왔기에 욕설이 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런 노래는 번화가에 즐비한 가게 앞에, 그리고 식당 앞에서 누구나 흔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하더라도 천진한 아이들을 위한 행사이기에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만 한다.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불교. 내 행동 하나하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하면서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을 향해 나아가는 종교다. 하지만 앞서 목격한 행사는 결코 '깨어있음'과 가깝지 못한 어른들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세상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에겐 어른 한 명이 저지른 사소한 잘못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자식(子息). 한자의 연원을 따져보면 다른 의미가 담겨있을 수 있겠지만 식(息)은 '숨 쉬다'라는 뜻이다. 부모로부터 숨을 받아 세상과 호흡하는 아이들이지 않은가.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아이들에게 신경 써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니까.

社說

취약매체인 종교방송 보호해야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계의 광고매출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방통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온 소리다. 이는 미디어렙법 제정 당시부터 우려됐던 부분이다. 현행 제도는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체제로 이런 구조에서는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방송사간 과다경쟁은 초기에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지라도 경제규모의 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방통위의 자료만 보더라도 그 여파는 극명히 드러난다. 종편이 각기 세운 미디어렙의 매출이 증가하며, 기존 공민영미디어렙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공영미디어렙에 속해 있는 종교방송의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시청율 경쟁으로 방송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자연적으로 공공성을 지닌 방송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특히 편성의 60% 이상을 종교적 내용으로 하는 의무를 지니는 종교방송의 경우 이런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 이제는 정부에서 공민영 미디어렙 간 공익적 시스템 운영에 대해 고민할 때가 왔다.

종편이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있는 지금이 취약 매체인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과 공정거래 환경의 정착을 이끌 시기인 것이다. 이와 함께 불교계 내부적으로는 불교계 방송의 광고 매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후원과 함께 신도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종교는 우리사회에서 정신문화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종교방송의 역할은 각자의 종교를 선교·포교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심성완화 등의 공공목적도 지니고 있다. 급변하는 방송환경,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공공성을 보호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水魔 피해지역에 관심과 자비를

가을의 문턱에서 찾아온 태풍 차바는 경상도 지역에 많은 피해를 안겼다. 피해금액도 어마어마하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울산의 태풍 피해액은 1930억 원으로 장점 집계됐으며,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제주도는 300억 원정도로 추산된다.

수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좌절과 원망만이 남는다. 그래도 한국사회에 온정은 식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지역인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는 5만 5000명을 넘었고, 모금액은 56억 원을 넘어섰다.

사찰들의 자비행도 이어지고 있다. 태풍 직후 10월 6~8일 한마음선원 울산 지원 신도 50여명은 수해 피해 가정을 방문해 정리 및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9~15일은 매일 새벽 공양을 준비했다고 한다.

이 같이 훈훈한 미담들도 이어지지만 복구와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다. 당장 상가 등 사유시설은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어렵다.

'9.12 지진'에 이어 태풍 피해까지 입은 경주 지역의 사정도 힘들다. 경주 관음사의 경우 지진 피해에 이어 수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화재 시설과 일반 한옥가옥들도 전문 인력들이 모자라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당장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심적 안정감도 필요하다. 불교계가 나서야 할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수마에게 할퀸 상처를 보듬는 일이다. 〈유마경〉에서 유마 거사는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고 했다. '중생과 보살은 한 몸'이라는 말이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불교계의 관심과 자비가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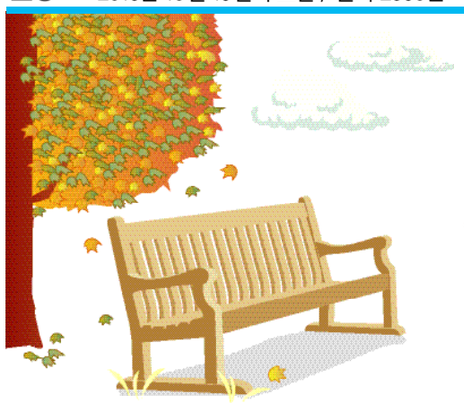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의 열쇠

불광출판사

틱낫한 기도의 힘

틱낫한 스님이 평소 기도와 관련해 가장 자주 들어온 질문 다섯 가지와 그에 대한 답을 진솔하게 들려준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기도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고, 참된 기도란 무엇이며, 기도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다가온다.

명성

한국 비구니계의 '등불' 명성 스님의 일대기. 당시 폐허나 다름없던 운문사 강원을 오늘날 한국 비구니 교육의 '심장'으로, 선원과 율원을 갖춘 대가람으로 일으키기까지 혼신을 다한 스님의 생애가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의 유려한 필체로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불법의 근본에서 세상을 바꿔라

'중국 역사를 바꾼 근대 4대 고승' 시리즈 중 마지막 편.

태허 대사가 주장한 인간불교는 현학이나 미신에 치우친 기존의 중국 불교를 반성하고 인생에 직접 도움을 주는 불교가 되자는 것으로, 청나라 말 혼란했던 시기 자선 사업과 항일운동을 펼치며 현대 중국불교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 문의 02)420-3200

비움과 소통

무량수경 심요

정토종과 선종, 화엄과 밀교의 정수를 담은 최후의 불경 '무량수경' 회집본을 최초로 강설한 책. 하련거 대사가 무량수경 5종 역본을 회집한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佛說大乘無量壽莊嚴淸淨平等覺經』을 경문으로 삼아, 황념조 거사가 그 요점을 풀이(요해)하고 정공 큰스님이 강의(강해)한 국내에서 번역된 가장 상세한 무량수경 해설서이다.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 불력수행

선(禪)과 유식(唯識), 정토종 법문을 통해 염불이 말법시대 중생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생사해탈법임을 밝힌 책. 중국 근대의 고승 담허대사의 '염불론', 대만의 대덕(大德)인 오총룡 거사의 '정토도언'과 '임종훅문', 중국의 대덕 이원정 거사의 '불법도론', 한중 선지식의 염불선 법문이 망라되어 있다.

백봉 거사의 선문염송요론

선종의 교과서인 『선문염송』의 난해한 선문답이 담긴 선화(禪話)를 바탕으로 백봉 거사가 번역과 강론을 통해 화두를 풀어헤쳐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독자들은 '지금 여기' 바로 이 당체(當體)에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선종(禪宗)의 핵심 종지를 깨닫는 기연(機緣)을 갖게 될 것이다.

■ 문의 02)2632-8739

민족사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한국 현대불교사의 산증인이자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신 태공 월주 큰스님의 법문집.

큰스님의 사상과 원력이 담긴 이 법문집은 우리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 주는 나침반으로서 우리 사회를 맑고 밝은 정토로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 권으로 읽는 대승경전

대승경전은 기원을 전후하여 반야경을 시작으로 많은 경전이 성립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경전이자 대승불교의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는 대표적 대승경전들을 이 한 권의 책 속에 담았다.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불교를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책. 젊은 불교학자로 주목받고 있는 동국대학교 이자랑 교수와 이필원 교수가 글을 쓰고, 배종훈 작가가 도표를 그렸다. 도표만 봐도 불교의 윤곽이 그려지고, 상세한 주(註)를 달아서 불교사전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게 했다.

■ 문의 02)732-2403

담앤북스

신해행증(信解行證) 관점으로 풀어낸 강미농의 금강경 강의

중국 근대 격변기, 불교연구와 포교에 평생을 바친 강미농 거사의 '금강경 강의'을 정리한 책. 총 1,116쪽으로 「금강경」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집요하리만치 꼼꼼히 해석한다. 감히 '불교 대백과'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티베트 스님의 인생특강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하버드대, 예일대, 베이징대 등 세계 100여 곳의 명문대에서 강연한 켄포 소달지의 인생특강.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돈, 사랑, 행복에 관해 직설적이고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한다.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키우는 삶의 지혜를 전하고자 켄포 소달지는 불교와 서양철학, 현대과학을 넘나든다.

어린이를 위한 명상연습 마음이 아플 때 따라 해 봐!

초등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명상 그림책이다. 아이가 생활에서 마주하는 불안, 걱정, 긴장, 화, 산만함 등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호흡과 상상연습 9가지를 제안한다. 아이 눈높이에 맞는 그림과 설명이 담겨 있다.

■ 문의 02)765-1251

운주사

정토삼부경 역해

『정토삼부경 역해』는 평생 정토를 신앙하며 학문적으로 정토교학을 깊이 연구하여 다수의 정토 관계 저술을 해온, 한국 정토불교계의 대표적 학승이라 할 수 있는 태원 스님이 정토삼부경을 번역하고 해설한 것이다.

경전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 기존의 여러 원전 판본을 꼼꼼히 대조하고 교열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도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아미타경 핵심강의

정토법문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인 『아미타경』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밝힌 책이다. 『아미타경』의 주요 경문에 대해 선도대사의 칭명염불 사상에 의거해 해설함으로써 정토법문은 누구나 닦기 쉽고, 그 효과가 빠르며, 염불만 하면 다 왕생하여 성불할 수 있음을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다.

염불하여 왕생하고, 왕생하여 성불하세

선도대사에 의해 완성된 칭명염불의 순수한 정토법문을, 대만의 혜정법사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고 닦기 쉬운 법문을 만날수 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라 부르는 그 아미타불이 어떤 부처님이며, 그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왜, 어떻게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가를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한다.

■ 문의 02)926-8361

지혜의 나무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

이 책은 붓다의 가르침으로 보는 이야기 천자문이다. 천자문을 기존의 해설이나 풀이 방법이 아닌, 본연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경문으로 풀어낸다. 한자의 구성과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야기와 예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등을 인용해 알기 쉽게 엮어 내었다.

참 나를 찾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보는 천자문 이야기는 깨달 음으로 가는 해탈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준다

마음이나 알자

마음이란 무엇인가?

몸과 마음을 환히 다 보고 다 아는 묘각의 각성에 대한 이야기! 석가세존이 묘각의 불안으로 밝혀 놓으신 경전을 근거로 마음의 생원설에 대한 이야기로 마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수능엄경 (상·중·하)

이 책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이다.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하다.

■ 문의 02)730-2211

유교와 기독교,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통찰 합니다. 수학과 숫자, 십진법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로 설명해 줍니다.

대도대한

천비록(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지비록 (수도사가 쓴 환인 · 환웅 · 단군 이야기)

오랜 세월을 아시아의 종주국으로서, 세상의 중심국으로서 인류에게 문명을 전해 주며 세상을 이끌어 왔던 대한민족이었다.

한국, 배달한국, 대조선에 이르기까지 7,0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의 민족으로 한 국가를 이루며 이어 왔던 대한민족이 열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니 과연 다시 뭉쳐 새로운 통일된 나라를 건국할 시기는 언제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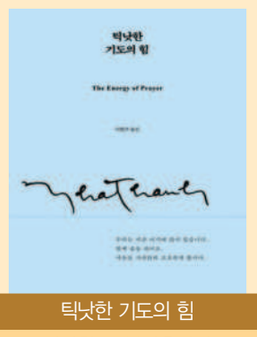
인비록 (죽어서 가는 길)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 문의 063)643-7285

BOOK STORE

※ 전국 유명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틱낫한 기도의 힘
틱낫한 |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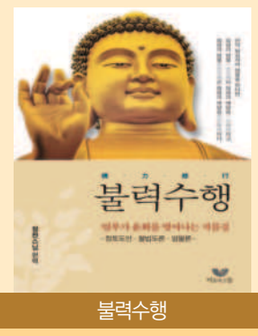
명성
남지심 | 불광출판사



불법의 근본에서 세상을 바꿔라
태허 대사 | 불광출판사



무량수경 심요
정공스님 강해 | 비움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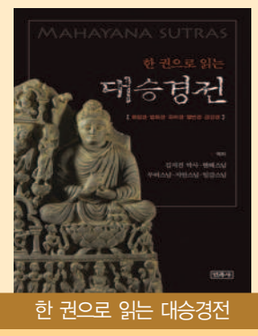
불력수행
정전스님 편역 | 비움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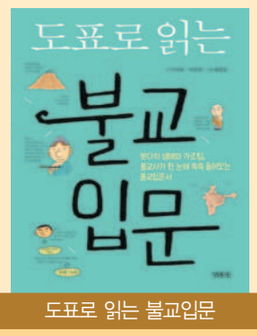
선문염송요론 (전3권)
백봉거사 지음 | 비움과 소통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월주 | 민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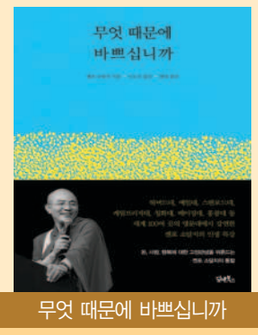
한 권으로 읽는 대승경전
김지견, 현해, 무비, 지안, 일감 | 민족사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이자랑 · 이필원 | 민족사



강미농의 금강경 강의
강미농 | 담앤북스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켄포 소달지 | 담앤북스



마음이 아플 때 따라 해 봐!
휘트니 스튜어트 | 담앤북스



정토삼부경 역해
서주 태원 | 운주사



아미타경 핵심강의
정종 법사 | 운주사



염불하여 왕생하고…
혜정 법사 | 운주사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
천명일 | 지혜의 나무



마음이나 알자
천명일 | 지혜의 나무



수능엄경 (상 중 하)
천명일(해설) | 지혜의 나무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대광 엘리사 | 대도대한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환인 · 환웅 · 단군 이야기)
대광 엘리사 | 대도대한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 대도대한